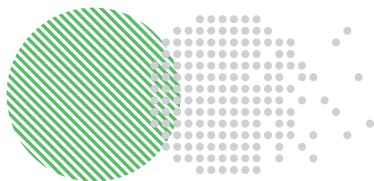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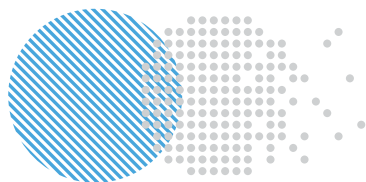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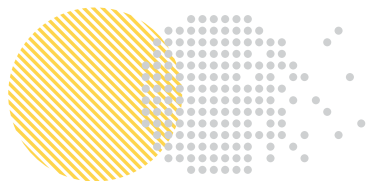
연구보고25-일반06-01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최인재 · 노언경 · 정 송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갑니다.



nyp*i*



2025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저 자 최인재, 노연경, 정송

연구진 연구책임자_최인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노연경(전주대학교 · 교수)
공동연구원_정송(국민대학교 · 강사)
연구보조원_진인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기의 학교폭력 참여와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가 개별 요인이나 횡단적 분석에 머문 한계를 넘어, 본 연구는 국가수준 조사자료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KCYPS 2018)를 활용해 종단적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기초분석과 세 차례의 심층분석으로 진행되었다. 기초분석에서는 가정폭력실태조사, 학교폭력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아동기 가정폭력 및 청소년기 학교폭력의 추이를 살폈다. 심층분석Ⅰ에서는 가정폭력 경험과 부모 양육태도가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분석Ⅱ에서는 가정폭력 노출 집단의 이질적 유형과 학교폭력 경험의 차이를, 심층분석Ⅲ에서는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 적응 프로파일로 전이되는 과정 및 학교폭력 경험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청소년기 학교폭력 실태는 코로나19 시기 파·가해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급격히 증가해 최근에는 조사 이래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언어폭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둘째, 가정환경 요인과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 간 관계 분석에서는 가정폭력 경험이 전반적으로 위험 요인, 부모의 파스함과 구조 제공은 일관된 보호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동조자·강화자 역할은 부모의 폭력 경험과 거부적 양육태도에서 학교폭력 참여 가능성이 증가한 반면, 긍정적 양육은 학교폭력 참여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셋째,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은 언어폭력 피해 집단, 체벌 피해 집단, 신체폭력 및 복합피해 집단, 폭력 목격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이 중 신체폭력 및 복합피해 집단은 현실·사이버 폭력 피해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고위험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가정폭력 노출 집단은 심리·사회적 적응

우수 집단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고, 중간 수준 또는 부적응 집단에 머무를 확률이 높았다. 특히 부적응 집단은 현실폭력 피해가 두드러졌고, 중간 수준 집단은 현실·사이버 폭력 가해·피해가 일부 동반되었으며, 우수 집단은 학교폭력 경험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이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경험을 매개하는 핵심 경로임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아동기 가정폭력은 청소년기 학교폭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은 그 부정적 효과를 완충하거나 증폭하는 핵심 기제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가정환경-심리·사회적 적응-학교폭력의 연계성을 통합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와 개입 전략 마련에 필요한 실증적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와 최근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4가지의 정책 영역과 8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정책 영역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영역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정책과 이들 영역을 아우르는 기반 조성 영역으로 정책 영역을 구분하였고, 영역별 정책과제를 각각 2가지씩 제안하였다.

주제어: 아동기 가정폭력, 학교폭력, 잠재계층분석, 잠재전이분석,
학교폭력예방 정책

연구요약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학교폭력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업, 사회적 적응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각종 제도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폭력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임. 이는 학교폭력이 개인 특성만이 아니라 가족·학교·또래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다차원적 문제임을 의미함
- 아동기의 경험은 청소년 발달 경로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특히 가정폭력은 정서·행동 발달과 애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임. 이러한 경험은 청소년기 학교폭력의 가해나 피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 하지만 기존 연구는 종단적 맥락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본 연구는 국가수준 조사자료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를 활용하여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기의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통해 아동기 가정환경→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청소년기 학교폭력 경험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학교폭력의 조기 예방 및 맞춤형 개입 전략 수립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연구내용

● 아동기 가정폭력과 청소년기 학교폭력 실태

이 연구에서 주요 변인으로 다룬 아동기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법적 근거를 검토하였다. 한편, 가정폭력실태조사, 학교폭력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등 유사 조사 항목을 포함하는 국가수준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기 가정폭력과 청소년기 학교폭력의 전반적 현황과 변화 추이를 파악하였다.

● 가정환경 요인과 학교폭력 참여자 간 관계

학교폭력 참여자를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여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부모양육태도가 학교폭력 참여 역할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방법은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과 관찰변수 간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가정환경이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에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가정폭력 노출의 이질성과 학교폭력 경험과의 관계

가정폭력 다양한 노출 경험이 학교폭력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 6차년도 학생 자료에서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잠재계층을 분류하여 잠재계층으로 분류된 집단별로 청소년기 학교폭력 경험이 어떻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 가정폭력 노출 유형이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프로파일로의 전이와 학교폭력 경험

아동기의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 LTA)을 통해 검증하고,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경험으로 도출된 잠재계층과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으로 도출된 잠재계층을 교차하여 청소년기 학교폭력 수준을 파악해 보았다. 자료는 앞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KCYPS 2018 자료 중 중학교 1학년 패널 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 이상의 연구 내용을 기초분석과 세 차례의 심층분석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함. 기초분석에서는 아동기 가정폭력과 청소년기 학교폭력의 실태와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고, 심층분석 I은 가정환경 요인이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 심층분석 II에서는 가정폭력 노출 집단 내 이질적 유형을 도출하고, 유형별 학교폭력 경험 차이를 살펴봄. 심층분석III에서는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 적응 프로파일로 전이되는 과정과 전이된 적응 유형이 학교폭력 경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함

■ 분석 방법 및 절차

- 이 상에서 제시한 연구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수행한 분석 내용과 분석 방법을 체계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기초분석 (아동기 가정폭력과 청소년기 학교폭력 실태)	
분석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유사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수준 데이터 활용 (가정폭력실태조사, 학교폭력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아동기 가정폭력 실태 추이 및 청소년기 학교폭력 실태 추이
분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술통계



심층분석Ⅰ (가정환경 요인과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 간 관계)	
분석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체 학생 대상 (KCYPs 2018 중1패널 6차년도 자료)가정폭력 노출과 부모 양육태도 →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
분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심층분석Ⅱ (가정폭력 노출의 이질성과 학교폭력 경험)	
분석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정폭력 노출 경험 학생 대상 (KCYPs 2018 중1패널 6차년도 자료)가정폭력 노출 경험 이질성을 유형화 → 학교폭력 경험
분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잠재계층 분석



심층분석Ⅲ (가정폭력 노출 유형이 심리·사회적 적응 프로파일로의 전이와 학교폭력 경험)	
분석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체 학생 대상 (KCYPs 2018 중1패널 6차년도 자료)가정폭력 노출 유형 → 심리·사회적 적응 잠재프로파일 → 학교폭력 경험
분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잠재전이 분석

■ 연구결과

● 아동기 가정폭력과 청소년기 학교폭력 실태

-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는 2022년 가해율이 감소했고, 정서적 폭력이 신체적 폭력보다 높았음. 반면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2016~2023년 피해율이 증가했고, 신체적 별이 정서적 폭력보다 높았음. 다만, 조사 문항과 응답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기 학교폭력 피해율은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모두 코로나19 시기 일시적으로 낮아졌으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최근에는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음. 두 조사 모두 언어폭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청소년기 학교폭력 가해율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2019년 이후 최근에는 다시 2013년 수준으로 회귀했음. 가해율은 피해율보다 낮지만, 이는 과소보고 경향에 따른 것임. 유형별로는 2020년 이후 언어폭력이 40% 이상으로 가장 높아졌으며, 집단따돌림은 감소하고 신체폭력은 최근 증가세를 보였음

● 가정환경 요인과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 간 관계

- 가정폭력 경험은 전반적으로 위험 요인으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따스함, 구조 제공)는 일관된 보호 요인으로 확인되었음
- 가해자, 동조자, 강화자 역할은 부모의 폭력 경험이나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에서 학교폭력 참여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반대로 부모의 따스함과 구조 제공은 학교폭력 참여 가능성을 감소시켰음
- 방관자 역할에서는 부모의 거부가 보호 요인으로, 자율성 지지가 위험 요인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패턴이 도출되었음. 즉 부모의 거부를 경험하면 거부민감성이 높아져 또래 맥락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 다른 참여 형태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부모가 자율성을 지지하면서 명확한 구조 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도덕적 의무를 외면하게 될 수 있음
- 이를 통해 학교폭력 참여가 단순히 개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환경과 그 해석 방식에 의해 달리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가정폭력 노출의 이질성과 학교폭력 경험

-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은 언어폭력 피해 집단(13.9%), 체벌 피해 집단(54.2%), 신체폭력 및 복합피해 집단(13.3%), 폭력 목격 집단(18.6%)으로 유형화되었음
- 언어폭력 피해 집단과 폭력 목격 집단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학교폭력 경험을 보였으나, 체벌 피해 집단은 사이버폭력 피해에서 변동성이 크고, 신체폭력 및 복합피해 집단은 현실·사이버 폭력 피해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고위험 집단으로 확인되었음

● 가정폭력 노출 유형이 심리·사회적 적응 프로파일로의 전이와 학교폭력 경험

- 가정폭력 노출 집단은 심리·사회적 적응 우수 집단(18.4%)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고, 중간 수준(64.7%) 또는 부적응 집단(16.9%)에 머무를 확률이 높았음. 이는 아동기 폭력 노출이 긍정적 발달경로로의 진입을 제한하고 부적응 위험을 증대시킴을 보여줌
- 학교폭력 경험 분석에서, 가정폭력 노출 집단이면서 심리·사회적 부적응 집단은 현실폭력 피해가 두드러졌고, 중간 수준 집단은 현실·사이버폭력 가해·피해가 일부 동반되었으며, 우수 집단은 학교폭력 경험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이는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이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 참여를 매개하는 핵심 경로임을 보여줌

● 결과 종합

- 기초분석에서는 아동기 가정폭력과 청소년기 학교폭력이 여전히 중요한 사회문제임을 확인함. 심층분석에서는 아동기의 가정환경이 청소년기의 학교폭력 참여에 큰 영향을 주며, 그 영향은 가정폭력의 유형과 강도, 부모의 양육태도, 그리고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줌
- 특히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은 가정폭력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거나 크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됨. 따라서 가정에서의 조기 개입과 청소년의 적응 역량 강화가 학교폭력 예방에 매우 중요함

■ 핵심 정책제언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4가지의 정책 영역과 8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안함. 먼저 가정에서부터의 폭력 예방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부부관계 향상이나 의사소통 증진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적용되어야 함. 또한 직장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시행되는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함
-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고도화함으로써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 또한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증진하고, 심리·사회적 역량을 키워 가도록 지원해야 함. 지역에서는 폭력의 유해성을 알리고 건강한 가정과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폭력 예방에 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함. 또한 인성교육의 가치와 덕목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가정-학교-지역사회 협력 생태계 구축과 인성교육 지원을 확대해야 함
- 가정-학교-지역사회 영역의 사업과 과제 추진을 위한 지원과 기반을 조성해야 함. 이를 위해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들을 위한 전문기관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음. 또한 학교폭력 예방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가족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책임 있는 진정한 반성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회복적 정의가 실현되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표 1.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 영역	정책과제
1 가정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1-1. 부모 교육(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확대
	1-2. 부모-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 시행 강화 및 지원 확대
2 학교 장면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2-1. 학교폭력 유형 변화에 따른 맞춤형 대응 방안 마련
	2-2.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역량 강화
3 지역사회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3-1.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
	3-2.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인성교육 강화·확대
4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기반 조성	4-1.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전문지원기관 인프라 확대
	4-2. 학교폭력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

2025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연구보고25-일반06-1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5
3. 분석 방법 및 절차	7
II. 아동기 가정폭력과 청소년기 학교폭력 실태	9
1. 이론적 배경	11
2. 연구 방법	15
3. 분석 결과	18
III. 가정환경 요인과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 간 관계 ...	33
1. 이론적 배경	35
2. 연구 방법	39
3. 분석 결과	45

IV. 가정폭력 노출의 이질성과 학교폭력 경험	59
1. 이론적 배경	61
2. 연구 방법	63
3. 분석 결과	66
V. 가정폭력 노출 유형이 심리·사회적 적응 프로파일로의 전이와 학교폭력 경험	79
1. 이론적 배경	81
2. 연구 방법	84
3. 분석 결과	88
VI. 결론 및 정책제언	101
1. 결론	103
2. 정책 제언	106
참고문헌	119
Abstract	131

표 목차

표 II-1. 가정폭력의 유형	12
표 II-2. 학교폭력의 유형	13
표 II-3. 가족폭력 실태조사 내 아동폭력 가해 문항	16
표 II-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내 가정폭력 문항	17
표 II-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내 학교폭력 피해 문항	17
표 III-1.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 문항	41
표 III-2. 가정폭력 노출 경험 문항	42
표 III-3. 부모 양육태도 문항	43
표 III-4. 가정 환경 요인 중 가정폭력 노출 경험 빈도	45
표 III-5. 가정 환경 요인 중 부모의 양육태도 기술통계	46
표 III-6. 학교폭력 참여자 빈도	47
표 III-7. 가정 환경 요인이 학교폭력 참여자 중 가해자 역할에 미치는 영향	49
표 III-8. 가정환경 요인이 학교폭력 참여자 중 동조자 역할에 미치는 영향	51
표 III-9. 가정환경 요인이 학교폭력 참여자 중 강화자 역할에 미치는 영향	52
표 III-10. 가정환경 요인이 학교폭력 참여자 중 방아자 역할에 미치는 영향	53
표 III-11. 가정환경 요인이 학교폭력 참여자 중 방관자 역할에 미치는 영향	54
표 III-12.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내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	55
표 IV-1. 학교폭력 경험 문항	65
표 IV-2.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경험 빈도	67
표 IV-3. 청소년기 학교폭력 경험 기술통계	68
표 IV-4. 잠재계층 수 증가에 따른 통계 분석 결과	70
표 IV-5. 잠재계층별 가정폭력 노출 경험 확률	73
표 IV-6. 잠재계층별 학교폭력 경험 기술통계	75
표 V-1. 심리·사회적 적응 문항	86
표 V-2.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 기술통계	89
표 V-3. 청소년기 학교폭력 경험 기술통계	89
표 V-4. 잠재계층 수 증가에 따른 통계 분석 결과	90
표 V-5. 잠재계층별 가정폭력 노출 경험 확률	92

표 V-6. 잠재프로파일 수 증가에 따른 통계 분석 결과	93
표 V-7. 잠재프로파일별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	95
표 V-8. 전이확률	96
표 V-9.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과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 잠재집단에 따른 학교폭력 경험 수준	98
표 VI-1.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106
표 VI-2. 정책 영역 1 - 가정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107
표 VI-3. 정책 영역 2 - 학교 장면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110
표 VI-4. 정책 영역 3 - 지역사회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114
표 VI-5. 정책 영역 4 -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기반 조성	116

그림 목차

그림 I-1. 분석 절차 개요	8
그림 II-1. 가정 내 아동폭력 유형별 가해율 추이(2016-2022년)	19
그림 II-2. 아동기 가정 내 신체적,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 추이 (2016-2023년)	20
그림 II-3. 학교폭력 피해율 추이(2013-2024년)	21
그림 II-4. 학교급별 피해율 추이(2013년-2024년)	22
그림 II-5. 학교폭력 유형별 피해율 추이(2013년-2024년)	23
그림 II-6. 청소년기 현실 및 사이버폭력 피해율 추이(2016-2023년)	24
그림 II-7. 중학생의 학교폭력 유형별 피해율 추이(2016-2023년)	25
그림 II-8.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유형별 피해율 추이(2016-2023년)	26
그림 II-9. 중학생의 사이버폭력 유형별 피해율 추이(2016-2023년)	27
그림 II-10. 고등학생의 사이버폭력 유형별 피해율 추이(2016-2023년)	28
그림 II-11. 학교폭력 가해율 추이(2013-2024년)	29
그림 II-12. 학교급별 가해율 추이(2013년-2024년)	30
그림 II-13. 학교폭력 유형별 가해율 추이(2013년-2024년)	31
그림 III-1. 연구모형(심층분석 I)	44
그림 IV-1. 연구모형(심층분석 II)	66
그림 IV-2. 잠재계층의 형태	73
그림 IV-3. 잠재계층별 학교폭력 경험 수준 비교	76
그림 V-1. 연구모형(심층분석 III)	88
그림 V-2. 가정폭력 노출 경험에 따른 잠재계층의 형태	92
그림 V-3.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형태	94
그림 V-4. 가정폭력 노출 경험과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에 따른 집단별 학교폭력 경험 수준 비교	97
그림 VI-1. 학부모On누리	108
그림 VI-2. 서울학부모지원센터	108
그림 VI-3. 어울림+(어울림 더하기) 개요	109
그림 VI-4.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111
그림 VI-5. 디지털 역량 개념 정의 및 프레임워크	112

그림 VI-6.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113
그림 VI-7. 학교문화 책임규약 가이드	114
그림 VI-8. 인성교육 시행계획	115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 내용
- 3. 분석 방법 및 절차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는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학습, 사회화, 그리고 자아정체성 형성 등을 위한 체계적 환경을 제공하며, 발달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도전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기능 이면에는 또래 폭력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내재 되어 있기도 하다. 신체폭력, 집단따돌림, 강요 등과 같은 모든 유형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상적인 어려움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학업 성과, 그리고 범죄 및 비행 행위에 대한 관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Polanin et al., 2021). 이에 학교폭력은 또래 간의 다툼과 같은 학교 내부의 단순한 갈등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학교폭력 해소를 위해 관련 법률 및 제도 강화와 다양한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의 발생률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정책 추진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 응답률은 2021년 1.1%에서 2024년 2.1%로, 가해 응답률은 2021년 0.4%에서 2024년 1.0%로 증가했다 (교육부, 2024). 이처럼 학교폭력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기존의 접근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며, 발생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가·피해 학생의 개인적인 특성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인 현상이며, 가정, 학교, 또래 집단 등 여러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다차원적인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여러 원인 중에서도 아동기 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아동기의 경험은 청소년기 발달 경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아동기에 겪는 긍정적 경험은 청소년기 사회정서 역량과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등을 높이는 데 기반이 되지만, 부정적 경험은 발달의 궤도를 이탈시켜 이후의 삶에 장기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icchetti & Toth, 2009). 더불어 아동기에 형성되는 대인관계 패턴, 정서조절 방식, 그리고 문제 해결 전략은 청소년기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폭력과 같은 복합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전 발달 단계의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 중에서도 가정폭력은 부모-자녀 관계의 핵심 미시체계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이며, 아동의 정서 및 행동 발달과 애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onfenbrenner, 1979). 가정은 아동의 일차적인 사회화 장소이자 정서적 안정감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가정폭력이 있을 때, 가정은 오히려 아동에게 불안, 무기력, 그리고 공격성을 내면화하게 만드는 역기능적 환경이 된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아동은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 낮은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Felitti et al., 1998; Marçal, 2022).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경험은 이후 학교폭력 상황에서 두 가지 상반된 행동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첫 번째로 폭력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오인하여 학교생활에서 공격적인 가해 행동을 보이거나, 두 번째로 학습된 무기력감으로 인해 폭력 피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 또는 학교폭력과 관계 등을 개별적으로 고찰하거나 횡단적으로 분석해 왔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아동기 경험의 중요성과 장기적인 영향력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시기의 경험이 청소년기 발달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전이되는지 시간적 흐름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관련 항목을 조사하고 있는 국가 수준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기 가정폭력과 청소년기 학교폭력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KCYPS 2018 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기 가정환경이 청소년기 학교폭력 참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가정폭력 노출 경험에 따라 하위 집단은 어떻게 구분되며 이들의 학교폭력 경험수준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에 따른 하위 집단을 도출하고 이들이 청소년기에 어떤 심리·사회적 적응 유형으로 이동하는지 그리고 학교폭력 경험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기 부정적 경험, 심리·사회적 적응 요인, 학교폭력이 어떠한 다면적 관계를 갖는지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교폭력 조기 예방·중재를 위한 근거 기반 통합 전략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1) 아동기 가정폭력과 청소년기 학교폭력 실태

먼저 이 연구에서 주요 변인으로 다룬 아동기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법적 근거를 검토하였다. 예컨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와의 개념과 그 구체적 행위에 대해 살펴보았고, 가정폭력의 유형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통해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한편,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학교폭력을 개념화하였고 유형별 예시를 제시하였다.

한편, 가정폭력실태조사, 학교폭력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등 유사 조사 항목을 포함하는 국가수준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기 가정폭력과 청소년기 학교폭력의 전반적 현황과 변화 추이를 파악하였다. 조사에 따라 조사 기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략 최근 10년 안팎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조사 기간 중 발생한 코로나19라는 사회 및 학교 환경의 큰 변화와 전환 사건이 학교폭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관련 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는 이후 심층분석 과정을 위한 기초 자료는 물론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예방 정책의 근거자료로도 활용하였다.

2) 가정환경 요인과 학교폭력 참여자 간 관계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을 기존의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단순 이분법적 관계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집단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학교폭력에 관해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Salmivalli와 동료들의 연구(Salmivalli et al., 1996)에서 제시한 ‘참여자 역할(Participant Role)’ 모델을 활용하였다. 즉 학교폭력 참여자를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여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부모양육태도가 학교폭력 참여 역할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 6차년도 학생 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 방법은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과 관찰변수 간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가정환경이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파악하였다.

3) 가정폭력 노출의 이질성과 학교폭력 경험과의 관계

아동의 발달 과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가정에서의 폭력 경험은 청소년기 자녀가 학교에서 폭력 상황에 대처하는 행동 양식과도 관련이 깊다. 이에 가정폭력 노출 경험이 학교폭력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가정에서의 폭력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보호자로부터 직접적 폭력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는 간접 폭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체벌이나 신체, 언어적 폭력 등 폭력 유형도 다양하다. 또한 폭력의 빈도나 어느 정도의 강도로 폭력을 경험하였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단일한 폭력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여러 유형의 폭력을 동시에 경험하는 중복피해(poly-victimization)를 경험한 아동의 경우 더욱 심각한 심리·사회적 부적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 6차년도 학생 자료에서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잠재계층을 분류하여 잠재계층으로 분류된 집단별로 청소년기 학교폭력 경험이 어떻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4) 가정폭력 노출 유형이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프로파일로의 전이와 학교폭력 경험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연구 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아동기 폭력 경험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 과정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그간 많은 연구에서 다른 연구 주제이고, 현실에서 그 연구 결과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는 횡단조사를 통한 변인 간의 관계를 주로 살펴본 연구이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누적해서 자녀의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에 종단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현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가정폭력 경험에 따라 잠재계층을 분류한 후,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 적응 잠재프로파일로 어떻게 전이되는지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 LTA)을 통해 살펴보고,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경험 잠재계층과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으로 도출된 집단을 교차하여 현실 및 사이버폭력의 가해 및 피해 경험이 또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교차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자료는 앞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KCYPS 2018 자료 중 중학교 1학년 패널 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3. 분석 방법 및 절차

이 연구에서는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과 청소년기 학교폭력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기초분석과 세 차례의 심층분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우선 기초분석에서는 가정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등 국가수준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기 가정폭력과 청소년기 학교폭력의 전반적 실태와 변화 추이를 기술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심층분석에서의 원인 규명·전이 분석을 위한 토대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진행된 심층분석Ⅰ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 6차년도 전체 학생 자료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노출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심층분석Ⅱ에서는 가정폭력 노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추출하여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노출 경험의 이질적 유형을 도출하고, 각 유형이 학교폭력 경험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노출 집단 내부의 다양성을 규명하고, 유형별 맞춤형 개입 전략 마련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심층분석Ⅲ에서는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도출된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유형이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 적응 프로파일로 어떻게 전이되는지를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으로 검증하였다. 더 나아가 전이된 적응 프로파일과 학교폭력 경험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경험이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을 거쳐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종단적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 예방, 심리·사회적 적응 증진, 학교폭력 개입을 연계한 통합적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기초분석 (아동기 가정폭력과 청소년기 학교폭력 실태)	
연구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기 가정폭력과 청소년기 학교폭력 실태는 어떠한가?
분석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수준 데이터 활용 (가정폭력실태조사, 학교폭력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아동기 가정폭력 실태 추이 및 청소년기 학교폭력 실태 추이
분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통계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기 가정폭력과 청소년기 학교폭력의 전반적 현황과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기초자료 제공 국가수준 데이터를 활용한 실태 분석으로,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예방 정책의 근거자료 제시 심층분석에서의 원인 규명·전이 분석을 위한 토대 마련



심층분석Ⅰ (가정환경 요인과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 간 관계)	
연구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기 가정환경(가정폭력 노출, 부모 양육태도)은 청소년기 학교폭력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분석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학생 대상 (KCYPs 2018 중1패널 6차년도 자료) 가정폭력 노출과 부모 양육태도 →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
분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폭력 발생의 직접적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파악 가정환경 요인이 전체 청소년의 폭력 행동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거시적 이해 제공



심층분석Ⅱ (가정폭력 노출의 이질성과 학교폭력 경험)	
연구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폭력 노출 학생들 내에서 가정폭력 노출 경험 유형이 어떻게 존재하며, 각 유형은 학교폭력 경험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분석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폭력 노출 경험 학생 대상 (KCYPs 2018 중1패널 6차년도 자료) 가정폭력 노출 경험 이질성을 유형화 → 학교폭력 경험
분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잠재계층 분석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분석에서 보이지 않는 ‘노출 집단 내부의 다양성’ 규명 위험도가 높은 세부 유형별 맞춤형 개입 전략 마련 가능 복합적, 이질적 경험 유형에 기반한 차별적 지원 근거 제공



심층분석Ⅲ (가정폭력 노출 유형이 심리·사회적 적응 프로파일로의 전이와 학교폭력 경험)	
연구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유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기에 어떤 심리·사회적 적응 프로파일로 전이되며, 이는 청소년기 학교폭력 경험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가?
분석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학생 대상 (KCYPs 2018 중1패널 6차년도 자료) 가정폭력 노출 유형 → 심리·사회적 적응 잠재프로파일 → 학교폭력 경험
분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잠재전이 분석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폭력 노출이 심리·사회적 적응을 통해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종단적 메커니즘 규명 예방 및 개입 정책을 가정폭력, 심리·사회적 적응, 학교폭력 간 연계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 제공

그림 1-1. 분석 절차 개요



제2장 아동기 가정폭력과 청소년기 학교폭력 실태

- 1. 이론적 배경
- 2. 연구 방법
- 3. 분석 결과

1. 이론적 배경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배우자 간 폭력뿐 아니라 아동과 노인에 대한 폭력도 포함된다(이진석, 김준범, 2024; 여가부, 2022a). 이 중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은 아동학대와 개념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며, 밀접한 상호 연관성과 동시 발생의 경향성을 보인다(이진석, 김준범, 2024; 정혜숙, 2011; Pearson et al., 2023).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금지행위)는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학대 행위를 명시하며, 다음과 같은 유형을 포함한다: ① 아동의 매매, ② 성적 학대, ③ 신체적 학대, ④ 정서적 학대(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 포함), ⑤ 방임, ⑥ 장애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⑦ 아동을 이용한 구걸 행위, ⑧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 강요 또는 제3자 인도, ⑨ 무자격자의 아동 양육 알선과 금품 수수, ⑩ 아동을 위하여 지급된 금품의 목적 외 사용 등이다.

가정폭력의 형태에 따른 측면에서 가정폭력의 종류는 신체적인 폭력, 정서적인 학대, 경제적인 위협, 성적인 폭력, 방임으로 분류된다(법제처, 2025). 세부적으로 신체적인 폭력은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직접 때리는 것과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것 등이 해당된다. 정서적인 학대는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과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경제적인 위협으로는 가족 구성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며, 성적인 폭력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방임은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하거나 위험 상황에 방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에 대한

정의는 가족 내 모든 구성원 간 다양한 형태의 폭력 유형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의미가 매우 포괄적이다.

표 II-1. 가정폭력의 유형

구분	내용	예시
신체적인 폭력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짊 움켜잡는 것	밀치기, 때리기, 발로 차는 행위, 꼬집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사지를 비트는 행위,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담배 불로 지지는 행위,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조르는 행위,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정서적인 학대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 통제적으로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것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큰 소리로 소리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말로 공격·협박·위협하는 행위,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 희롱하는 행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경제적인 위협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과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	가정구성원(노인)의 소득, 재산 및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재산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 통제행위, 금액에 상관없이 허락없는 금전사용 금지행위
성적인 폭력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	원하지 않은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상대방의 몸을 동의 없이 만지고 애무하고 움켜쥐고 꼬집는 등의 행위, 자신의 성기나 이물질을 상대방의 성기에 넣는 행위,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그 밖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방임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한다거나 위험 상황에 방치하는 것	끼니를 주지 않는 행위, 불결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놔두는 행위,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문을 잠가놓고 나가는 행위

* 출처: 법제처(202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

가정에서 아동들이 경험하는 부모(또는 보호자)의 직접적인 폭력의 형태뿐 아니라 부모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의 목격 또한 이들의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발달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특히 두 경험 모두 청소년 폭력에 유의미하게 기여하며, 청소년의 폭력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승경, 송미경, 2014; 손수민, 이소연, 2022; Carter, 2005).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관련된 제도적 틀을 만들고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었다. 해당 법률 제2조(정의)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의 세부 유형은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공갈),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으로 구분된다(교육부, 2023a). 유형별 예시 상황은 <표 II-2>와 같다. 예를 들어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신체폭력의 경우 상해, 폭행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신체폭력 행위는 감금에 해당한다.

표 II-2. 학교폭력의 유형

구분	예시상황
신체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방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 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 (공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칭 빵 서둘, 와이파이가 서둘,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돈을 건어오라고 하는 행위

구분	예시상황
따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주는 신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 야한 사진, 야한 동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 또는 음성물)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사이버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영상 유포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 또는 음성물)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 출처: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2025), 「2025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p.7.

2.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경험과 청소년기 학교폭력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아동기 가정환경 요인, 특히 가정폭력 노출 경험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폭력의 다양한 참여자 역할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탐색하고, 가정폭력에 노출된 집단 내 이질성을 규명하여 이들이 경험하는 청소년기 학교폭력 경험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기에 경험하는 가정폭력이 이후 청소년기 다양한 심리·사회적 적응으로 어떻게 전이되며, 이들의 학교폭력 경험 수준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 자료를 활용한 심층분석에 앞서 본 장에서는 유사 항목을 조사하는 가정폭력실태조사(여성가족부), 학교폭력실태조사(교육부),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를 기반으로 아동기 가정폭력과 청소년기 학교폭력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가정폭력방지 정책을 수립하고자 2004년부터 3년 주기로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며, 표본추출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진다. 2022년 7차 조사 기준으로 9,062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여성가족부, 2022b).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는 가정폭력을 배우자에 의한 폭력뿐 아니라 노인에 대한 폭력, 아동에 대한 폭력을 포괄하여 정의 내리고 있다. 조사 내용은 크게 가정폭력에 관한 인식과 경험, 배우자/비혼동거 파트너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 아동폭력 가해 경험, 가족원폭력 피해 경험, 노인폭력 피해 경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과 지식 및 정책 수요로 나누어진다(여성가족부, 2022a). 조사영역 중 아동폭력 가해 경험은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2021년 8월 ~ 2022년 7월)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 행동의 여부를 조사한다. 아동폭력 유형별 가해율은 각 유형에 해당하는 행동 중 하나라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는 경우를 가해 경험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가정 내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폭력의 가해율을 아동 또는 청소년의 응답률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표 II-3. 가족폭력 실태조사 내 아동폭력 가해 문항

구 분	문항	응답척도
신체적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 몸을 때렸다 • 허리띠, 몽둥이 등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렸다 • 아동을 잡고 던지거나 넘어뜨렸다 • 주먹이나 발로 세게 때렸다 •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 고의로 화상을 입혔다 •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있다, 없다
정서적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부었다 	
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를 제때 챙겨주지 않았다 • 진료가 필요한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거나 진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 •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아동을 돌보지 않았다 • 어른과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게 하였다 	

주)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조사표(만 65세 미만)를 기준으로 제시함.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기초로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인권의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09년부터 1년 주기로 수집되고 있는 조사이다.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재학생(아동·청소년)을 모집단으로 학교급과 학년, 지역 구분을 고려한 표본추출을 통해 총 9,000명의 학생이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유민상, 이경상, 2023).

조사영역은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과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장애·기초보전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로 구성된다. 이중 본 연구에서는 폭력 및 학대 영역 중 최근 1년 동안 부모 또는 교사로부터 받은 신체적 체벌 및 정서적 공격, 또래나 학교에서 당하는 폭력의 피해,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를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에 대한 응답 자료를 활용하였다. 특히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조사에 참여하므로 학교급별로 조사영역을 나누어 분석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초등학교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기 가정폭력 발생률의 추이를, 중·고등학교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기 학교폭력 발생률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II-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내 가정폭력 문항

구 분	문항	응답척도
부모님 (보호자) 으로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적 벌(벌세우기,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 정서적인 공격(모욕적인 말, 욕설 등)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주)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조사표(초등학생용)를 기준으로 제시함.

표 II-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내 학교폭력 피해 문항

구 분	문항	응답척도
친구, 선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따돌림을 당함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함 강제적인 심부름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협박을 당함 성희롱을 당함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따돌림을 당함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주)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조사표(중·고등학생용)를 기준으로 제시함.

아동·청소년의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는 가장 대표적인 조사에는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있다. 해당 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학교폭력의 실태 파악과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자 연 2회 실시되고 있다. 1차 조사는 전수조사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2차 조사는 표본조사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중 표본 4%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피해, 목격, 가해 경험 등을 조사한다(교육부, 2024).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 가해 및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 신체폭력, 집단따돌림, 강요, 사이버폭력, 스토킹, 성폭력, 금품갈취로 구분된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한 가정폭력실태조사의 경우, 현재 가장 최신 자료인 2022년 데이터만을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2016년, 2019년, 2022년 발간된 연구 보고서 내 결과를 이용하여 재구성하였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또한 원자료 활용이 제한되어 교육부 보도자료 등을 통해 2013~2024년까지의 학교폭력 가해, 피해 현황에 관한 추이와 학교급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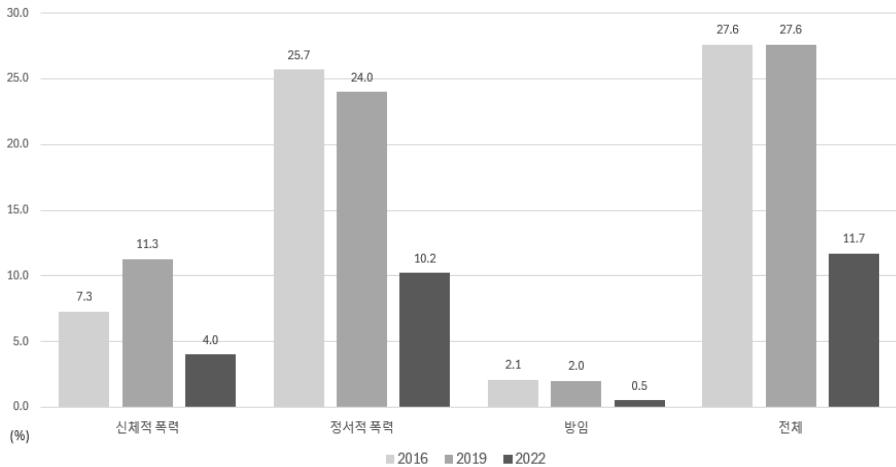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경우 조사가 1년 주기로 실시되며 원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기 가정폭력 실태의 추이는 2016~2023년에 수집된 초등학교 4~6학년 응답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문항 내용 중 각각 한 문항으로 측정되는 신체적 체벌과 정서적인 학대와 관련하여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응답 범주를 피해로 간주하여 비율을 산출하였다.

청소년기 학교폭력 실태의 추이는 2016~2023년에 수집된 중·고등학교 1~3학년 응답 자료를 분석하였다.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경험한 6개 또는 7개 피해 항목, 인터넷에서 경험한 5가지 피해 항목 중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응답 범주를 피해로 간주하여 두 가지 영역별로 각각 비율을 산출하였다.

3. 분석 결과

1) 아동기 가정폭력 실태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으며, 2016년, 2019년, 2022년의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폭력 유형별 가해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별 가해율은 해당 유형의 행위 중 하나라도 경험한 경우를 가해로 간주하여 산출되며, 모든 연도에서 정서적 폭력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체적 폭력, 방임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체 가해율은 신체적 폭력(8문항), 정서적 폭력(2문항), 방임(4문항)을 측정하는 전체 문항 중 한 문항이라도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의미한다.



* 출처: 2016, 2019, 2022년 가족폭력실태조사연구 보고서 결과를 재구성함.

주1) 2016년 보고서에서는 응답자(본인)와 응답자 배우자의 응답 결과가 각각 보고되어 있으나, 다른 조사 연도와의 결과 비교를 위해 응답자(본인) 결과를 제시함.

주2) 조사주기마다 관련 항목을 측정하는 문항의 진술 형태에 차이가 있음. 주기별 문항은 다음과 같음: 2016년("지난 1년 동안 귀하는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2019년("지난 1년 동안 만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2022년("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림 II-1. 가정 내 아동폭력 유형별 가해율 추이(2016-2022년)

신체적 폭력은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포함하며, 2016년 7.3%에서 2019년 11.3%로 증가하였다가 2022년 4.0%로 감소하였다. 정서적 폭력의 경우 때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욕 등의 나쁜 말을 퍼붓는 행위를 나타내며, 2016년 25.7%, 2019년 24.0%로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2022년 10.2%로 이전 주기 결과들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방임은 식사를 제때 챙겨주지 않았거나 어른과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혼자 있게 하는 행동 등을 나타낸다. 신체 및 정서적 폭력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2016년과 2019년은 각각 2.1%, 2.0%로 유사하였고 2022년에는 이보다 낮은 0.5%로 확인되었다. 유형별 가해율과 전체 가해율 모두 2022년 조사 결과에서 크게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실제 가정 내 아동폭력 발생이 줄어든 결과일 수도 있지만, 2022년 조사의 경우 아동폭력 가해 경험을 측정하는 문항에서 '귀하는'이라는 주어를 추가해 응답자 본인의 가해 경험만을 묻도록 질문 방식이 변경된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여성가족부, 2022a).

이어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응답한 폭력의 실태 및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으로부터 경험한 벌 세우기,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의 신체적 벌과 모욕적인 말, 욕설 등의 정서적인 공격의 경험 비율은 그림 II-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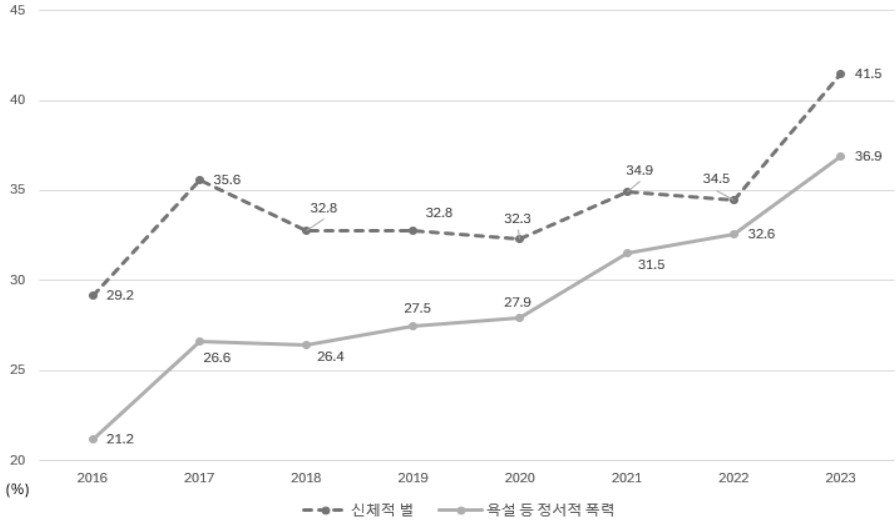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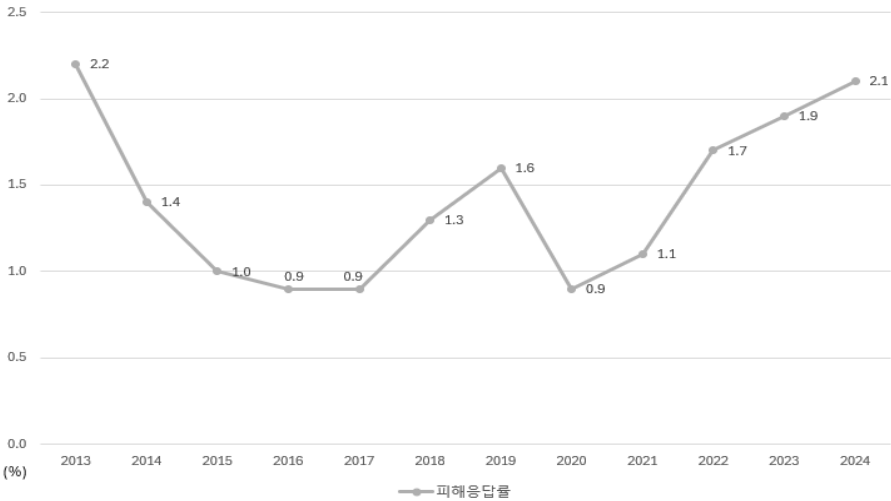


그림 II-2. 아동기 가정 내 신체적,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 추이(2016-2023년)

모든 연도에서 신체적 체벌의 비율이 정서적인 폭력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신체적 체벌의 경우 2016년 29.2%였던 비율이 2017년 35.6%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2022년까지 약 33~35%의 수준에서 상승과 하락의 형태를 반복하며 유지되었다. 반면 2023년에 41.5%로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서적인 폭력의 경험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2016년(21.2%)에서 2017년(26.6%), 2020년(27.9%)에서 2021년(31.5%), 2022년(32.6%)에서 2023년(36.9%)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소년기 학교폭력 실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전수조사 형태로 실시되는 1차 조사의 2013~2024년 결과를 통해 살펴본 학교폭력의 피해율 실태 및 추이는 다음과 같다.



* 출처: 신대섭(2023). 학교폭력 실태 및 추이 분석. 한국의 사회동향 2023
교육부(2024). 2024년 1차(전수조사) 및 2023년 2차(표본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결과를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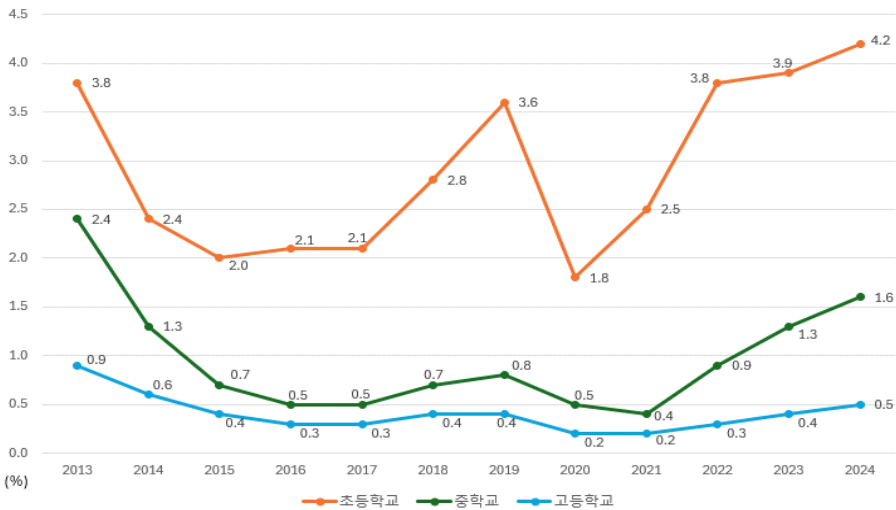
주1) 피해율=(피해응답 인원 수÷참여자 수)×100.

주2) 모든 연도는 1차 조사(전수조사) 결과임.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전수조사로 1회만 조사됨

그림 II-3. 학교폭력 피해율 추이(2013~2024년)

초, 중, 고등학교급을 통합한 전체 피해율은 2013년(2.2%)부터 2017년(0.9%)까지 꾸준히 감소하였다. 2018년부터 다시 증가하던 피해율은 2019년 1.6%로 나타났으나, 2020년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원격 수업 확대로 인해 학생들이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학교폭력 발생 건수 자체가 감소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2021년부터 피해율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4년에는 2.1%로 2013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율을 살펴보면, 세 학교급 모두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학교폭력 피해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3년 초등학교의 피해율은 3.8%로 중학교(2.4%)와 고등학교(0.9%)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후 모든 학교급에서 피해율이 하향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2016년 피해율이 0.3%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 출처: 신태섭(2023). 학교폭력 실태 및 추이 분석. 한국의 사회동향 2023
교육부(2024). 2024년 1차(전수조사) 및 2023년 2차(표본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결과를 재구성함.
주1) 피해율=(피해응답 인원 수÷참여자 수)×100.
주2) 모든 연도는 1차 조사(전수조사) 결과임.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전수조사로 1회만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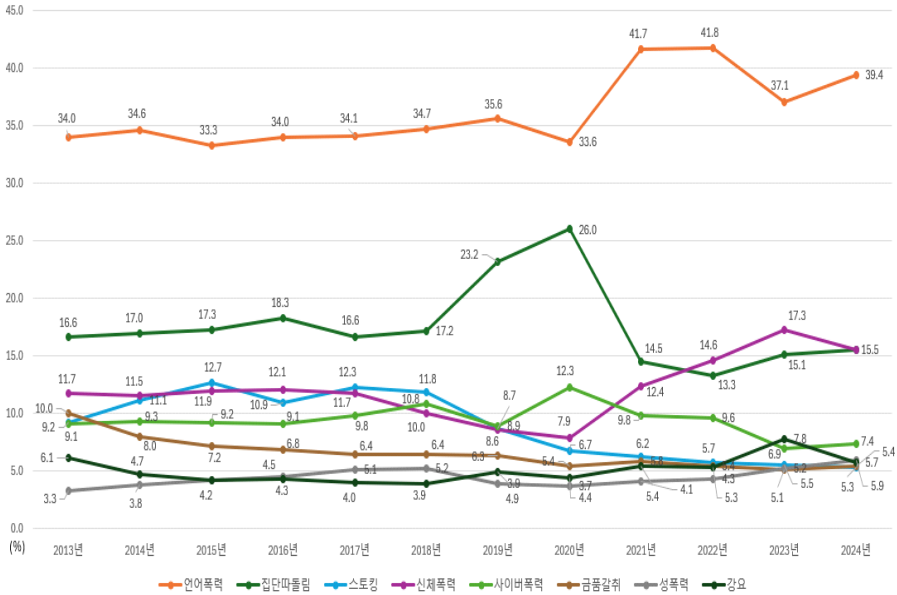
그림 II-4. 학교급별 피해율 추이(2013년-2024년)

초등학교 피해율은 2017년 이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어 2019년 3.6%까지 올랐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는 피해율이 크게 낮아졌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피해율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증가하다가 2020년부터 감소하는 패턴은 초등학교와 유사하였다. 다만, 두 학교급의 경우 피해율 자체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증가와 감소 폭도 매우 작으며, 이 시기 고등학교 피해율은 0.2%로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2022년 이후 모든 학교급에서 학교폭력 피해율이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초등학교의 피해율은 2024년 4.2%를 기록하며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을 확인함

수 있다. 중학교의 피해율도 2021년에는 0.4%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2022년부터 증가하여 2024년에는 1.6%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도 중학교와 변화 패턴은 유사하였으나 전체적인 피해율과 증가폭 자체는 매우 작았다.

학교급에 따른 특징을 정리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2013~2023년까지 중·고등학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피해율을 보였으며, 특히 최근 상승하는 패턴을 보인다. 중학교의 경우 2013년 이후 피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1년 이후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고등학교는 가장 낮은 피해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의 상승세도 상대적으로 완만한 편이다.



* 출처: 교육부의 2019년~2024년 1차(전수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결과를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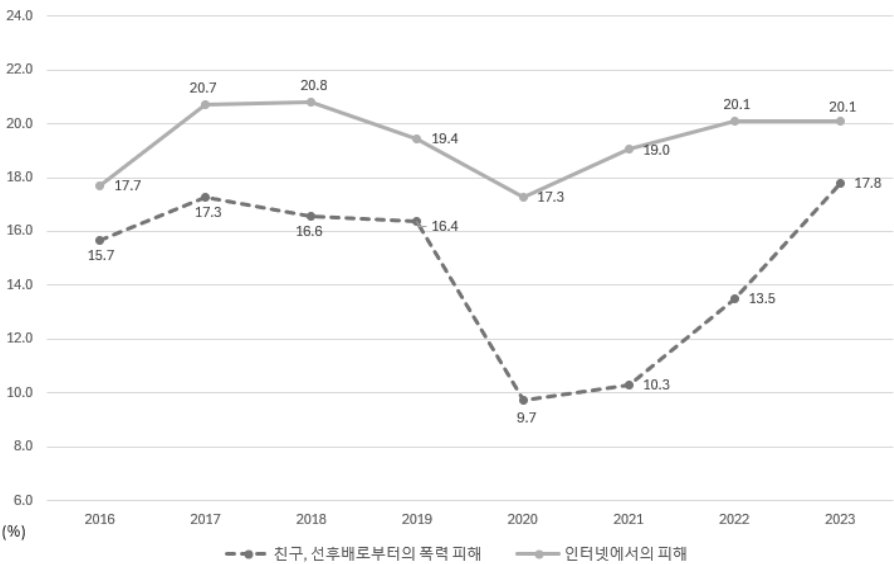
- 주1)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만 응답함.
주2) 피해유형 중복응답 가능, 중복응답 건수 기준 비율(%).

그림 II-5. 학교폭력 유형별 피해율 추이(2013년~2024년)

2013년부터 2024년까지 학교폭력의 피해유형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기간 중 언어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21년까지는 집단따돌림의 비율이 전체 학교폭력 유형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지만 2022년과

2023년에는 신체폭력의 비율이 집단따돌림의 비율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스토킹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다가 2019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금품갈취는 2013년부터 계속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으로는 2020년의 경우, 전반적으로 유형별 발생률이 감소하였으나,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은 오히려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서의 대면 활동은 감소하고 비대면 수업과 온라인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중·고등학생 데이터를 통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청소년기 학교폭력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주1)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경험한 폭력 피해의 경우 2018년까지는 7개 문항으로 2019년부터는 6개 문항으로 측정됨.
인터넷에서의 피해는 5개 문항으로 측정됨.
주2) 전체 문항 중 한 문항이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 피해로 간주하여 영역별 비율을 산출함.

그림 II-6. 청소년기 현실 및 사이버폭력 피해율 추이(2016~2023년)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친구 또는 선·후배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폭행,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을 한 번 이상 경험한 비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소폭이지만 증가와 감소의 패턴이 반복되다가 2020년 9.7%로 크게 낮아졌으며, 2021년

에는 10.3%로 약간 상승하였다. 이후 학교에서의 피해 경험 비율은 급격하게 높아지며 2023년에는 17.8%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인터넷(게시판 댓글, 카톡 등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의 피해 경험을 살펴본 결과, 학교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 비율과 패턴은 유사하였으나 비율의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작고 전반적인 경험수준이 더 높았다. 2016년 17.7%에서 2018년에 20%대로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하는 형태를 보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에는 17.3%로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약 2%p 수준으로, 동일 시점에 절반 가까이 하락한 학교폭력과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인터넷에서의 피해 경험 비율은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감소 이전과 유사한 비율로 유지되고 있다.

이어서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의 세부 유형별 피해율을 학교급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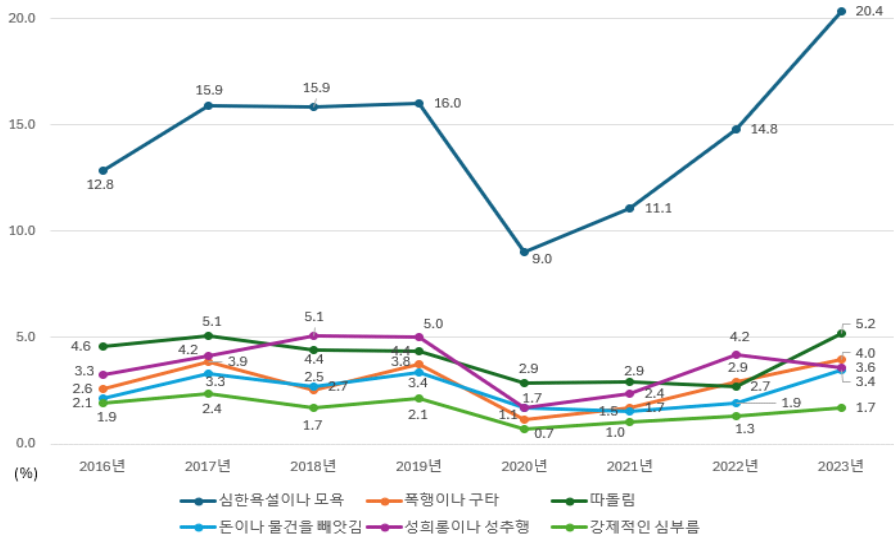


그림 II-7. 중학생의 학교폭력 유형별 피해율 추이(2016~2023년)

중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친구 또는 선후배로부터 경험한 학교폭력 중 심한 욕설이나 모욕의 비율이 9.0~20.4%로 2016~2023년 모든 해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강제적인 심부름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0.7~2.4%로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폭행이나 구타, 따돌림,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 등은 피해율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변화 패턴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전반적인 피해율이 소폭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으며, 2020년에는 모든 학교폭력 유형의 피해율이 크게 하락한 후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더불어 여러 학교폭력 유형 중 심한 욕설이나 모욕의 연도별 변화 폭이 가장 큰 점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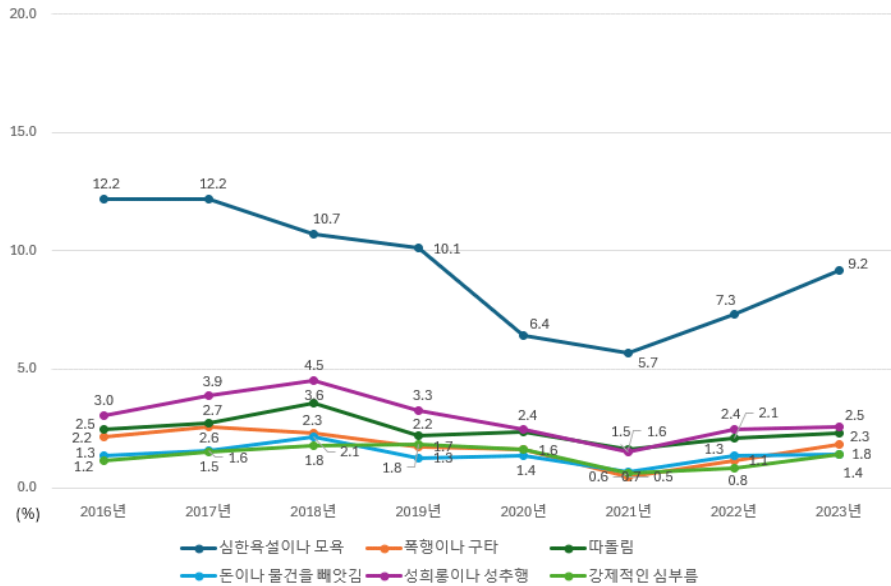


그림 II-8.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유형별 피해율 추이(2016~2023년)

고등학교의 경우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친구 또는 선배로부터 경험한 학교폭력 중 심한 욕설이나 모욕의 비율이 5.7~12.2%로 2016~2023년 모든 해에 가장 높았으나, 피해율 자체는 중학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는 것과 강제적인 심부름의 피해율은 2% 미만으로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학교폭력 피해 유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변화 형태를 살펴보면 심한 욕설이나 모욕의 피해와 폭행이나 구타의 경우 2016년부터 2021년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따돌림, 성희롱이나 성추행,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는 피해 유형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증가하다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으며, 이후 다시 소폭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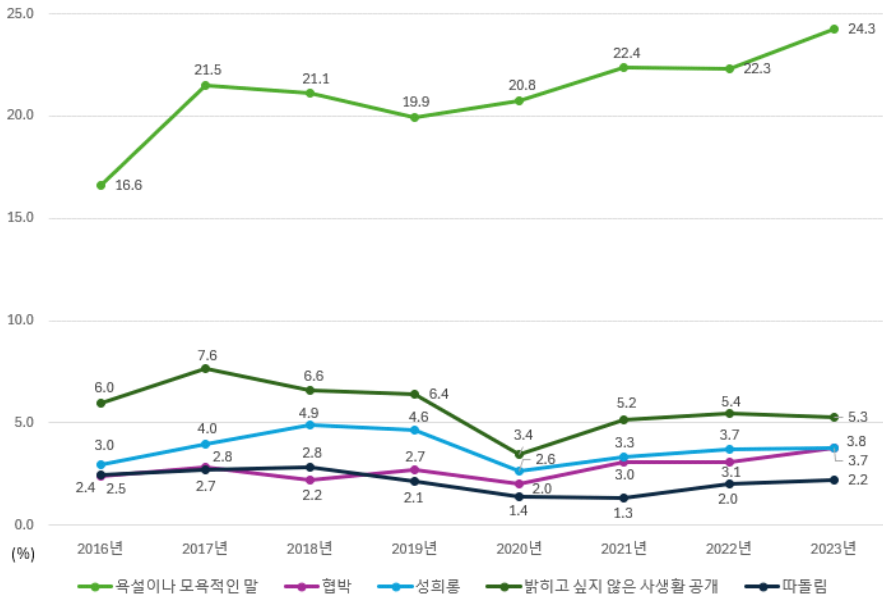


그림 II-9. 중학생의 사이버폭력 유형별 피해율 추이(2016-2023년)

중학생이 인터넷(게시판 댓글, 카톡 등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경험한 사이버폭력의 유형 중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공개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변화 형태를 살펴보면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에 대한 피해율은 2016년 16.6%에서 2017년 21.5%로 높아진 이후 2020년까지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부터 다시 상승하여 2023년에는 24.3%로 나타났다. 그밖에 협박, 성희롱, 따돌림 등의 사이버폭력의 경우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소폭 상승 또는 하락의 형태를 보였다. 2020년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피해율을 보였으나, 이후 다시 상승한 후 유지되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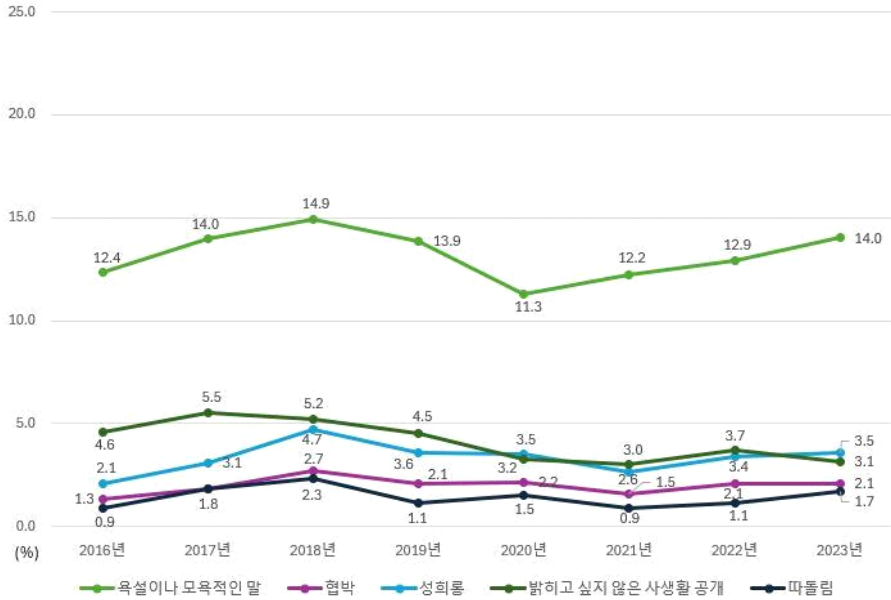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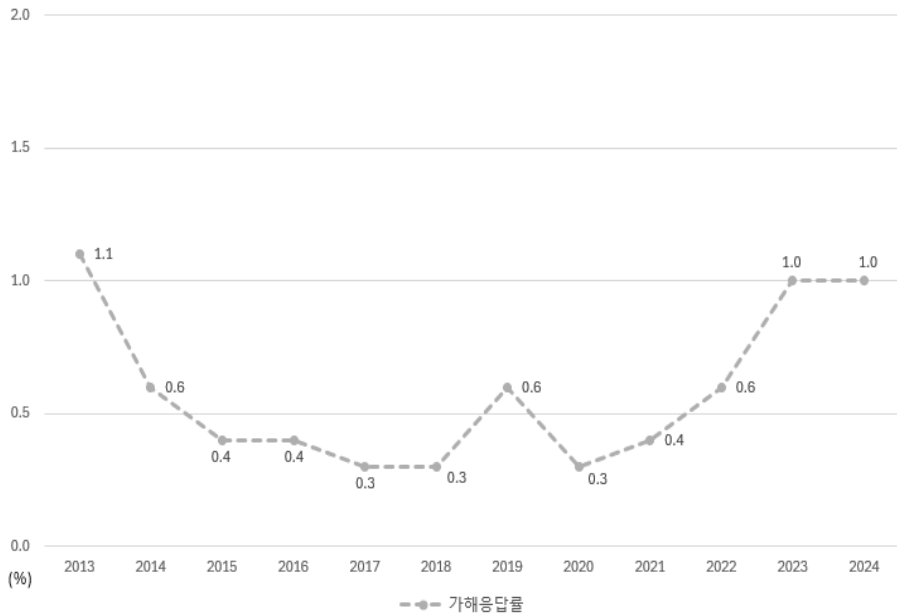


그림 11-10. 고등학생의 사이버폭력 유형별 피해율 추이(2016-2023년)

고등학생의 사이버폭력 피해율 추이를 살펴보면,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경험한 비율이 전체 사이버폭력 유형 중 가장 높았다. 반면,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의 비율이 2019년까지는 두 번째로 높았으나, 2020년부터는 성희롱의 피해 비율이 해당 피해 유형보다 약간 높거나 거의 유사한 수준인 점은 중학교와 다른 특징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변화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에 대한 피해율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후 하락하며 2020년 11.3%로 가장 낮았고,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23년에는 14.0%로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 공개 피해는 2017년과 2022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다른 피해 유형들은 대체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였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피해뿐 아니라 목격, 가해 경험을 기본 문항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에 피해 경험과 동일하게 2013~2024년 1차 조사의 결과를 통해 학교폭력의 가해율 실태 및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처: 신태섭(2023). 학교폭력 실태 및 추이 분석. 한국의 사회동향 2023
교육부(2024). 2024년 1차(전수조사) 및 2023년 2차(표본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결과를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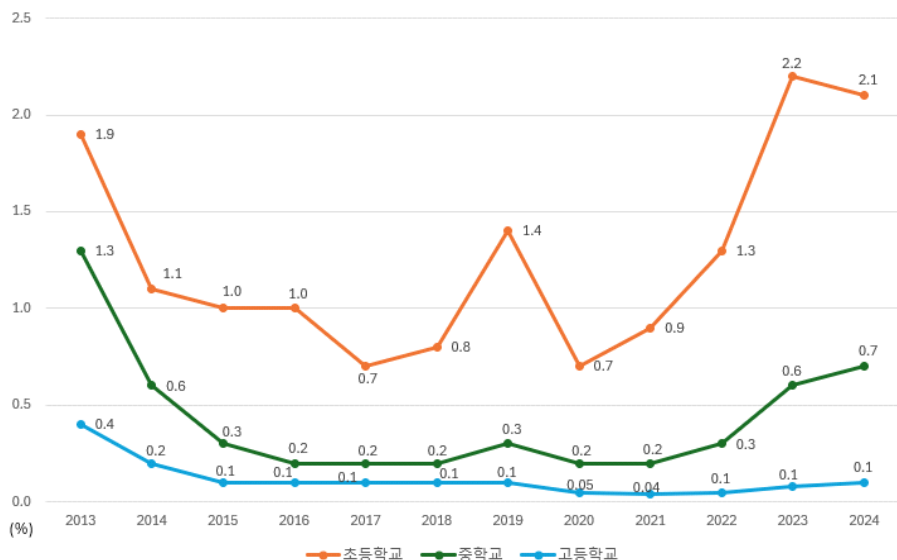
주1) 가해율=(가해응답 인원 수÷참여자 수)×100.

주2) 모든 연도는 1차 조사(전수조사) 결과임.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전수조사로 1회만 조사됨

그림 II-11. 학교폭력 가해율 추이(2013-2024년)

2013년 1.1%였던 초, 중, 고등학교급을 통합한 전체 가해율은 2014년 전년 대비 절반 정도의 수준인 0.6%로 낮아졌으며, 이후 2018년까지 소폭 감소 및 유지되는 추세를 보였다. 2019년 가해율은 다시 0.6%로 높아졌다가 2020년에는 2018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인 뒤 202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 최근에 조사된 2023, 2024년의 학교폭력 가해율은 1.0%로 2013년 결과와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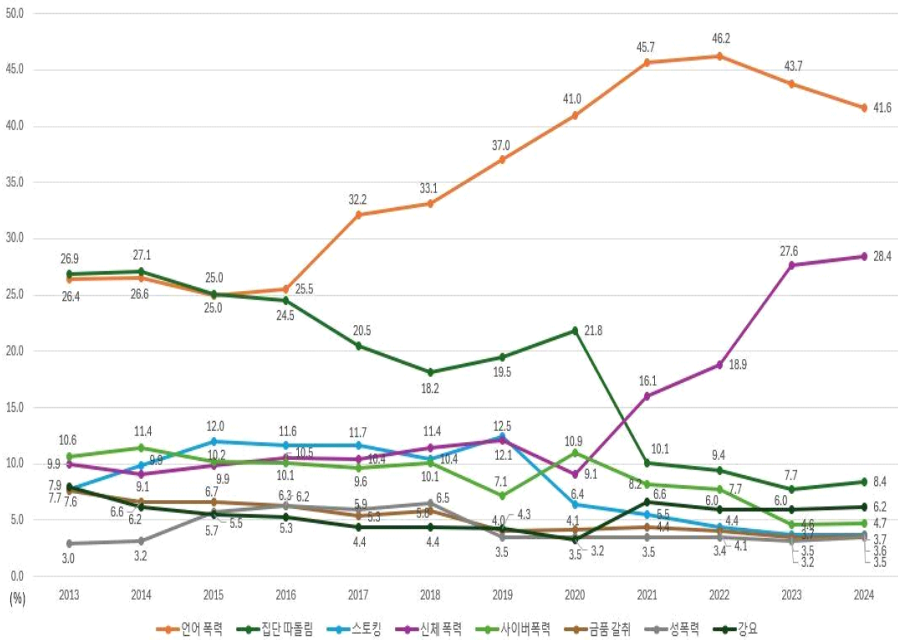
2013년부터 2024년까지 학교급별 학교폭력 가해율을 살펴보면 모든 해에 초등학교의 가해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서가 유지되었다. 초등학교는 가해율이 다른 두 학교급에 비해 높은 것과 동시에 변화의 형태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출처: 신태섭(2023), 학교폭력 실태 및 추이 분석, 한국의 사회동향 2023
 교육부(2024), 2024년 1차(전수조사) 및 2023년 2차(표본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결과를 재구성함.
 주1) 가해율=(가해응답 인원 수÷참여자 수)×100.
 주2) 모든 연도는 1차 조사(전수조사) 결과임.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전수조사로 1회만 조사됨

그림 II-12. 학교급별 가해율 추이(2013년-2024년)

세 학교급 모두 2014년 가해율이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초등학교의 경우 2018년까지 가해율이 감소하거나 이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019년에는 1.4%로 높아졌고, 2020년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인 0.7%까지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3년 2.2%, 2024년에는 2.1%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가해율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0.2~0.3%로 큰 변동없이 유사하였으나,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0.6%, 0.7%로 2014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고등학교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약 0.1%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출처: 신태섭(2023). 학교폭력 실태 및 추이 분석. 한국의 사회동향 2023 결과를 재구성함.

- 주1) 학교폭력 가해를 경험한 학생들만 응답함.
 주2) 가해유형 중복응답 가능, 중복응답 건수 기준 비율(%).

그림 II-13. 학교폭력 유형별 가해를 추이(2013년~2024년)

2013년부터 2024년까지 학교폭력의 가해유형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2013년에서 2016년까지는 전체 가해유형 중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이 24.5~2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두 유형 간 발생 비율도 거의 유사하였다. 하지만 2017년부터 언어폭력의 가해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46.2%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후 소폭 감소해 2024년에는 41.6%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집단따돌림의 경우 가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며, 2017년부터는 언어폭력과 비율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21.8%였던 가해율은 2021년 10.1%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이후에도 소폭이지만 계속 감소하며 전체 가해유형 중 가장 큰 감소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신체폭력은 집단따돌림과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2013~2020년까지 9~12% 내외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비율이 이후 상승하며 2021년 16.1%로 나타났으며, 이는 해당 연도에서 가해유형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며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27.6%, 28.4%로 연어폭력 다음으로 가해율이 높은 유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스토킹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다가 2020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금품갈취는 2013년부터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사이버폭력의 경우 2013~2018년까지는 약 10% 내외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9년 소폭 감소하여 7.1%로 나타났으나, 2020년에는 10.9%로 감소 이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이후 다시 하락하는 형태를 보이며 2023년 4.6%, 2024년 4.7%로 전체 가해유형 중 두 번째로 발생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제3장 가정환경 요인과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 간 관계

- 1. 이론적 배경
- 2. 연구 방법
- 3. 분석 결과

1. 이론적 배경

전통적으로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관계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관점을 넘어서서 학교폭력을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집단 과정(group process)’으로 재정의하고 있다(Salmivalli et al., 1996). 새로운 관점에 의하면 학교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공격성과 피해자의 취약성으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급 등 사회 집단 내에서 다수의 또래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며 발생하고 유지되는 사회적 현상이다. 이 접근에서는 폭력 상황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 즉, 방관자의 역할도 학교폭력의 발생이나 지속, 중단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Knauf, Eschenbeck, & Hock, 2018).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서 Salmivalli와 동료들의 연구(Salmivalli et al., 1996)가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학교폭력 상황에서 학생들이 취하는 다양한 행동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참여자 역할(Participant Role)’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가해자와 피해자 외에도 폭력을 조장하거나 방관하는, 혹은 피해자를 돕는 다양한 역할이 존재함을 명시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닌,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는 집단 규범과 역할 관계의 산물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개인의 특성을 넘어, 이들을 둘러싼 또래 집단의 사회적 구조와 각 참여자 역할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Salmivalli et al. (1996)은 학교폭력이라는 집단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피해자(victim), 가해자(bully), 동조자(assistant), 강화자(reinforcer), 방어자(defender), 방관자(outsider) 등 여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각 역할은 서로 뚜렷하게 구분

되는 특성을 지니며, 이러한 역할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각 역할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Salmivalli et al., 1996).

첫째, 피해자는 반복적 괴롭힘의 대상이 되며, 또래 집단 내에서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렵다. 대체로 낮은 사회적 수용과 높은 사회적 거부를 경험하고, 집단 내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 둘째, 가해자는 괴롭힘을 주도하며, 공격적인 행동을 시작하고 이끄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적극적인 특성을 지니며, 또래 집단 내에서 지배력 확보를 위해 공격적 전략을 사용하고 반사회적 태도와 자기중심적 사고 경향이 높다. 셋째, 동조자는 가해자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도와 괴롭힘 행동에 가담하거나 조장하며, 물리적·언어적으로 가해자와 함께 행동하는 역할이다. 이들은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가해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거나 스스로 가담하여 괴롭힘을 실행하는 적극적 동반자 역할을 한다. 넷째, 강화자는 직접 가해에 가담하지는 않지만 괴롭힘 행동을 보고 웃거나 응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해자의 행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즉, 폭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가해자에게 사회적 보상을 제공하여 가해자의 행동 지속을 유도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방어자는 피해자를 지지하고 위로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멈추도록 촉구한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편에 서서 가해자에 맞서거나 교사에게 알리는 등의 개입 행동을 보인다. 이러한 역할은 집단 내에 친사회적 규범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여섯째, 방관자는 괴롭힘 상황에 개입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무관심을 보인다. 외부인처럼 행동하며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나, 실제로는 침묵을 통해 괴롭힘을 묵인하게 된다. 이러한 방관자의 태도와 행동은 괴롭힘이 지속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역할 수행은 단순히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또래 집단 내 규범과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 역할이 행동의 차이일 뿐 아니라 각기 다른 인지적 구조, 정서적 반응, 사회적 동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Salmivalli, 1999). 따라서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과 개입을 위해서는 각 참여자 역할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이 최초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환경인 가정은 발달의 기초적 맥락으로서, 그 안에서의 경험과 상호작용이 이후 또래 관계에서의 참여자 역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Bandura(1977)의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 의하면, 아동의 사회적 행동은 아동에게 중요한 타인인 부모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학습하게 된다. 직접적인 강화 없이 타인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관찰학습(observational learning)’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 이론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가정 내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공격적인 행동을 관찰하는 어린 자녀에게는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라면 폭력이 분쟁을 해결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수용 가능한 방법이라고 여길 수 있게 되며(Ehrensaft et al., 2003), 부모 간 폭력을 관찰하면 폭력이 감정을 표현하거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학습하기 쉽다(Foshee et al., 1999). 이러한 학습은 학교 환경으로 전이되어 또래 간 상호작용 중 공격성 또는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Herrenkohl et al., 2008). 최근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괴롭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Lee et al., 2022). 가정폭력 노출은 직접적 학대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고, 부부 간 폭력을 목격하게 될 수도 있다. 가정 내 신체적 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폭력 행동과 정적 관련성이 있으며(Duman & Margolin, 2007; Xia et al., 2018; Karsberg et al., 2019),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부부간 폭력을 목격하는 것 역시 실제 청소년이 폭력적 행위를 저지르는 가해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Xia et al., 2018).

청소년기의 학교폭력 참여는 아동기 가정환경 중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경험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양육을 받았는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Darling과 Steinberg (1993)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단순한 양육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context)으로 기능한다고 보았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사회적 행동 발달에 있어 양육 행동의 효과를 조절하며, 학교폭력의 가해 또는 피해 경험과도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부모가 권위적(authoritarian)이거나 허용적(permissive) 또는 방임적(neglectful)인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해당 자녀는 학교폭력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 역할로 학교폭력에 관여할 가능성이 더 높고, 반면 민주적(democratic)인 태도의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학교폭력에 관여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Baldry & Farrington, 2000; Kawabata et al., 2011; Lereya et al., 2013). 또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신체적 처벌이나 심리적 공격 등 학대 행동을 하면, 청소년 시기에 학교폭력에

취약하게 되고, 또래 학대자가 될 가능성을 높인다(Gómez-Ortiz, Romera, & Ortega-Ruiz, 2016).

국내에서도 가정환경,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폭력 참여 역할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최지훈과 남영옥(2017)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 중 방관자, 방어자, 동조자 세 가지 종류에 대해 부모의 양육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역할 모두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청소년은 방어자 역할을,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한 청소년은 방관자나 동조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또한, 유계숙, 이승출, 이혜미(2013)의 연구에서는 가족 내 갈등과 적대감 수준이 낮고 부모의 지도와 감독이 적절할수록 자녀인 청소년은 가해자나 동조자, 강화자 역할에 관여할 가능성이 낮은 반면, 가족갈등 및 적대감이 높으면 가해자 역할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모의 감독이 부족한 경우에는 강화자 역할, 비공격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취했을 때 부모의 지지를 받는 경우 방어자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가정폭력 노출과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폭력적 행동이나 학교폭력 관여 여부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이러한 요인을 설명하는 데 집중해 왔으며, 집단 과정으로서의 학교폭력에서 다양한 참여자 역할을 체계적으로 고려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가정환경 요인이 청소년이 가해자, 동조자, 강화자, 방어자, 방관자 등 어떠한 역할을 선택·수행하게 되는지에 대한 기제를 밝히는 것은 학교폭력 예방과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핵심적이다. 따라서 가정환경 요인과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학교폭력 문제를 개인의 특성을 넘어 사회적·맥락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개입할 수 있는 학문적·실천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및 대상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종합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구축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 자료를 활용하였다(하형석 외, 2017). KCYPs 2018은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1학년을 기점으로 매년 반복 조사되며, 2024년 현재 6차년도까지의 패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조사 항목은 개인발달(생활시간, 지적·진로·사회·정서·역량 발달, 비행·신체 발달)과 발달환경(미디어, 활동·문화, 학교, 가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매년 ‘스페셜 모듈’을 활용하여 시의성 있는 정책 이슈 또는 심층 문항을 측정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4).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패널을 대상으로 1차~6차년도까지 수집된 자료 중 ‘학교폭력’을 스페셜 이슈로 다루고 있는 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6차년도 자료는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지만 학교폭력 뿐 아니라 가정폭력과 같은 다양한 폭력 경험을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고등학교 시기까지 회고적으로 측정하고 있어서 아동기 가정환경과 청소년기 학교폭력 간 관련성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본 장에서는 주요 종속 변수로 또래 괴롭힘 참여자 역할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예측하기 위한 변수로 가정폭력 노출 경험과 부모 양육태도를 설정하여 가정환경 요인이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최종 연구대상은 남학생 1,187명(53.4%), 여학생 1,037명(46.6%)으로 총 2,224명이다.

2) 분석 방법

본 장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종속변수인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이 이분형 변수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을 적용하였으며, 잠재변수 없이 관찰변수만을 활용하여 변수들 간 직접적인 영향 경로를 분석하고자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가정폭력 노출 경험을 나타내는 다섯 가지 이분형 변수와 부모 양육태도를 나타내는 여섯 가지 연속형 변수로 구성된다.

분석은 Mplus 8.10 프로그램(Muthén & Muthén, 1998-2017)을 사용하였으며, 추정 방법은 범주형 종속변수를 포함하는 복잡한 모형에서도 효율적이고 일관된 모수 추정

가능하며 비정규성 문제에 강건한 로버스트 표준오차를 제공하는 최대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with Robust standard errors: MLR)을 활용하였다. 또한, 결측값 처리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하였다.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회귀계수를 지수화한 승산비(OR)는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사건(종속변수=1)의 발생이 몇 배 변하는지’를 보여주며, 본 연구에서는 각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에 대해 승산비가 1보다 크면 위험요인, 1보다 작으면 보호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시되는 95% 신뢰구간(CI)은 승산비 추정치의 통계적 불확실성을 반영하며, CI가 1을 포함하지 않을 때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한다. 특히 다변량 모형에서 각 승산비는 나머지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해당 독립변수의 순수한 영향력을 의미하므로 인과 관계를 보다 엄밀히 평가할 수 있다.

3) 분석에 포함된 변수

(1)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

종속변수로 활용한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은 Salmivalli와 Voeten(2004)의 피해자 보호 척도(Defender of the victim scale)에서 참여자 역할 설문(the Participant Role Questionnaire: PRQ)의 간편형 문항들을 번안하여 활용하였다. KCYPS 2018에서는 또래 괴롭힘 참여자 역할이라고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을 학교폭력으로 간주하고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로 제시하였다. 가해자, 동조자, 강화자, 방어자, 방관자의 총 5가지 역할에 대해 각각 3개 문항을 4점 척도(1=전혀 하지 않는다, 2=거의 하지 않는다, 3=가끔 한다, 4=자주 한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III-1.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 문항

구 분	문항
가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군가를 괴롭히는 행동을 먼저 시작한다. • 다른 아이들도 괴롭히는 행동에 참여하도록 끌어들이는다. • 다른 친구들을 괴롭힐 새로운 방법을 늘 찾는다.
동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군가 어떤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나도 같이 괴롭힌다. • 누군가를 괴롭히는 아이를 거든다. • 괴롭힘 당하는 아이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두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괴롭히는 아이를 도와준다.
강화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괴롭히는 상황을 구경하기 위해 그 주변으로 간다. • 괴롭히는 상황을 보면서 웃는다. • 누군가 어떤 아이를 괴롭힐 때, “본 때를 보여줘!”라고 말하며 옆에서 부추긴다.
방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괴롭힘 당하는 아이를 위로해 주거나 선생님에게 괴롭힘 당한 것에 대해 말하라고 용기를 준다. • 괴롭히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에게 그만하라고 말한다. • 괴롭히는 행동을 중지하려고 노력한다.
방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군가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보통 그 자리에 없는 편이다. • 누군가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 연이지 않으려고 한다. • 누군가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서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

각 역할별 3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을 평균 내어 역할 점수를 산출한 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역할을 1, 그렇지 않은 역할을 0으로 재코딩하여 활용하였다. 가장 높은 점수가 동일 점수일 경우에는 중복 역할을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모든 문항에 ‘전혀 하지 않는다’로 응답한 학생의 경우에는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가해자와 동조자가 모두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받으면 가해자와 동조자는 각각 1, 다른 세 가지 역할은 0으로 코딩하였으며, 모든 역할의 평균 점수가 최하점(1점)인 경우에는 모든 역할에 0으로 코딩하였다.

(2) 가정폭력 노출 경험

독립변수 중 가정폭력 노출 경험은 김정혜 외(2019)의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문항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으로(황진구, 김윤희, 정윤미, 2023), 보호자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3문항과 부모 간 폭력 목격 경험 2문항을 활용하였다.

표 Ⅲ-2. 가정폭력 노출 경험 문항

구 분	문항
<i>“귀하의 부모님(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는 보호자)은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i>	
보호자로부터 체벌 피해	•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때렸다.
보호자로부터 언어폭력 피해	•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등 심한 말을 하였다.
보호자로부터 신체폭력 피해	•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i>“귀하는 부모님 간에 다음과 같은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i>	
부모 간 언어폭력 목격	•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등 심한 말을 하였다.
부모 간 신체폭력 목격	•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보호자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은 “귀하의 부모님(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는 보호자)은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3가지 문항(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때렸다,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등 심한 말을 하였다,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으로 구성하였고, 부모 간 폭력 경험은 “귀하는 부모님 간에 다음과 같은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2가지 문항(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등 심한 말을 하였다,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없다’와 ‘있다’로 구분하여 응답하게 한 후,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초등학교 입학 전, 초등학교 1-3학년 시기, 초등학교 4-6학년 시기, 중학교 시기, 고등학교 시기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각 5문항에 대해 초등학교 입학 전, 초등학교 1-3학년 시기, 초등학교 4-6학년 시기에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여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초등학교 시기까지의 아동기에 해당하는 가정폭력 노출 경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변수를 구성하였다.

(3)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 변수는 김태명과 이은주(2017)의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양육태도 척도 24문항을 사용하여 따스함, 거부, 자율성 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밀관성의 6개 요인에 대해 각각 4문항씩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것을 평균 내어 연속형 변수로 활용하였다. 따스함, 자율성 지지, 구조제공은 긍정적 양육태도로, 거부, 강요, 비밀관성은 부정적 양육태도로 분류될 수 있다.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III-3. 부모 양육태도 문항

구 분	문항
따스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 부모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 • 부모님은 항상 나를 반가워하신다. • 부모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
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십니까 가끔 궁금할 때가 있다. • 부모님은 내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신다. • 부모님은 나로 하여금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신다. • 부모님은 내가 하는 어떤 것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신다.
자율성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다. • 부모님은 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은 나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 • 부모님은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신다. •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오로지 그분들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신다. • 부모님은 모든 것에 대해 “안 돼.” 라고 하신다.
구조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다. • 어떤 일이나 사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싶어할 때, 부모님께서 설명해주신다. •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도움을 주신다. • 부모님은 내게 규칙을 말씀하실 때, 왜 지켜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해주신다.
비밀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이 약속을 해도, 그 분들이 지키실지는 알 수 없다. • 부모님은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실제로는 하지 않으실 때도 가끔 있다. • 부모님은 나에 대한 규칙을 자주 바꾸신다. • 부모님은 사전에 주의도 주지 않고 화부터 내신다.

4)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는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 중 피해자를 제외한 5가지(가해자, 동조자, 강화자, 방어자, 방관자)이고, 독립변수는 가정 폭력 노출 경험 5가지(보호자로부터 체벌 피해, 보호자로부터 언어폭력 피해, 보호자로부터 신체폭력 피해, 부모 간 언어폭력 목격, 부모 간 신체폭력 목격)과 부모 양육태도 6가지(따스함, 거부, 자율성 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밀관성)로, 각각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 모두 측정하도록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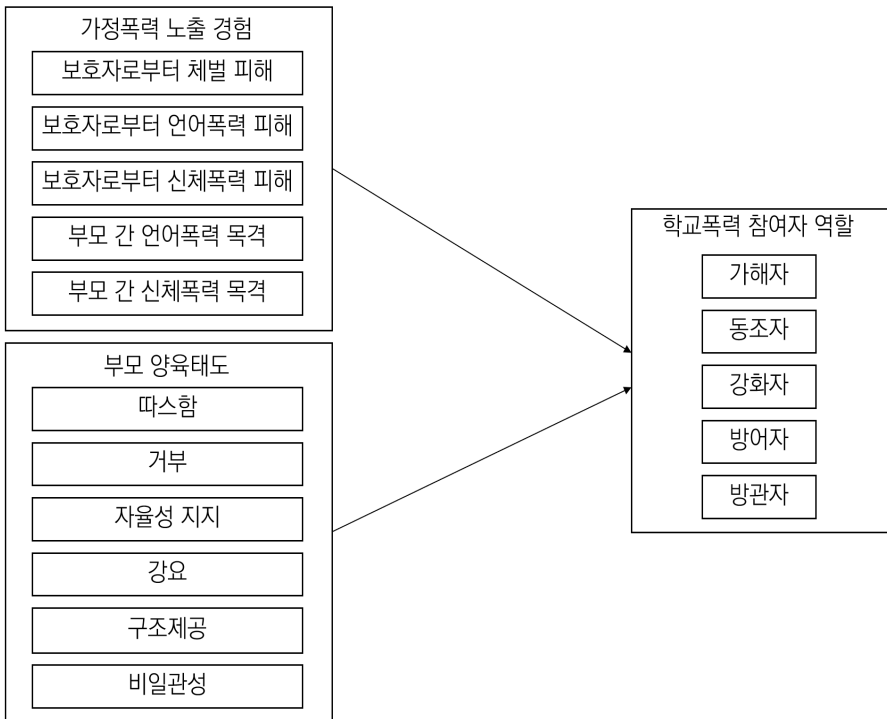


그림 Ⅲ-1. 연구모형(심층분석 I)

3. 분석 결과

1) 기초분석 결과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 이전에, 분석에 활용된 변수들에 대한 빈도분석 또는 기술통계 분석을 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 청소년들의 가정폭력 노출 경험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Ⅲ-4>와 같다. 보호자로부터 체벌을 경험한 학생은 전체의 5.9%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지만 여전히 일부 학생들이 신체적 체벌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언어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1.5%, 신체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1.0%에 불과하여 직접적인 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한편, 부모 간 갈등 상황을 목격한 경험을 살펴보면, 언어적 폭력을 목격한 학생이 2.0%, 신체적 폭력을 목격한 학생이 0.8%로 나타났다.

표 Ⅲ-4. 가정 환경 요인 중 가정폭력 노출 경험 빈도

구 분	경험 여부	빈도(명)	비율(%)
보호자로부터 체벌 피해	무	2093	94.1
	유	131	5.9
보호자로부터 언어폭력 피해	무	2191	98.5
	유	33	1.5
보호자로부터 신체폭력 피해	무	2201	99.0
	유	23	1.0
부모 간 언어폭력 목격	무	2180	98.0
	유	44	2.0
부모 간 신체폭력 목격	무	2206	99.2
	유	18	0.8
합계		2224	100.0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 학생들이 대체로 가정 내에서 폭력적 경험을 많이 겪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비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 경험은 청소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체벌 경험은 여전히 전체 응답자의 약 6% 수준에서 나타나, 아동학대나 아동권리 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사회적·교육적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부모 간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목격한 경험은 직접적인 피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감, 공격성, 대인관계 방식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 피해의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표Ⅲ-5〉 참고), 청소년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특성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양상을 보였다. 먼저, 따스함(평균=3.07, SD=0.59)과 자율성 지지(평균=2.98, SD=0.62)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능력,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학교폭력과 같은 부정적 행동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Ⅲ-5. 가정 환경 요인 중 부모의 양육태도 기술통계

구 분	사례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따스함	2224	1.00	4.00	3.07	0.59
거부	2224	1.00	4.00	1.86	0.58
자율성 지지	2224	1.00	4.00	2.98	0.62
강요	2224	1.00	4.00	2.05	0.52
구조제공	2224	1.00	4.00	2.73	0.58
비일관성	2224	1.00	4.00	1.98	0.53

반면, 거부(평균=1.86, SD=0.58), 강요(평균=2.05, SD=0.52), 비일관성(평균=1.98, SD=0.53)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태도의 평균값은 전반적으로 낮게 보고되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거부하거나 과도하게 강요하거나, 양육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한 행동을 상대적

으로 덜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평균값이 낮더라도 일부 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부정적 양육 경험이 존재하며, 이는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나 공격성, 무기력과 같은 부정적 발달 결과와 관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사 대상 집단의 부모들이 대체로 수용적·지지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소수 집단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양육태도의 잠재적 영향을 추후 분석에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학교폭력 참여 여부를 살펴본 결과, 다양한 역할에서 학생들이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표Ⅲ-6〉 참고). 직접적인 가해자로 참여한 학생은 전체의 11.3%, 동조자는 10.8%, 강화자는 7.6%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직접적인 폭력행위에 가담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여전히 10명 중 1명가량은 가해자나 그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6. 학교폭력 참여자 빈도

구 분	해당 여부	빈도(명)	비율(%)
가해자	무	1973	88.7
	유	251	11.3
동조자	무	1984	89.2
	유	240	10.8
강화자	무	2056	92.4
	유	168	7.6
방어자	무	1508	67.8
	유	716	32.2
방관자	무	1465	65.9
	유	759	34.1
합계		2224	100.0

흥미로운 점은 방어자(32.2%)와 방관자(34.1%)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폭력 상황에서 직접적인 가해자로서보다는 주변인의 위치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방관자의 비율이 3명 중 1명 이상에 달한다는 점은, 폭력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 중립적 태도를 취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반면 방어자의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부 학생들이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폭력을 중단시키려는 행동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또래 집단 내에서 긍정적 개입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 연구에서 참여자 역할이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 다양한 주변인 역할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분석에서는 가정환경 요인, 부모의 양육태도 등이 이러한 참여자 역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결과를 종합하면, 연구 대상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가정폭력 경험이 낮고, 긍정적인 부모 양육태도를 경험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의 경우 여전히 체벌이나 언어폭력, 부모 간 폭력 목격 경험이 존재하며, 이는 청소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해석된다.

또한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 분포에서 나타난 특징은, 상당수 학생들이 방관자나 방어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학교폭력 상황에서 주변인의 역할이 중요하며, 적극적인 방어 행동을 촉진하고 방관을 줄이기 위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가정폭력 노출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가정환경 요인이 청소년의 폭력 참여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 분석은, 예방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심층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가정환경 요인이 청소년의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가해자, 동조자, 강화자, 방어자, 방관자)에 미치는 영향을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경로분석으로 검증하였다. 모든 참여자 역할 변수를 투입하여 동시에 분석하였으나, 지면의 한계와 해석적 측면을 위해 각 역할별로 결과표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가정폭력 노출 경험과 부모의 양육태도는 역할 유형별로 다르게 작용하였으며, 일부 요인은 일관되게 위험 또는 보호 효과를 보였다. 주요 결과를 역할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가해자 역할

가해자 역할과 관련해서는 보호자로부터 언어폭력 피해 경험과 부모 간 신체폭력 목격 경험이 가장 두드러진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언어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가해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5.21배 높았으며, 부모 간 신체폭력을 목격한 학생 역시 5.61배의 위험 수준을 보였다. 이는 가정 내 언어적 학대와 부부 간 폭력 장면 목격이 청소년의 공격적 행동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I-7. 가정 환경 요인이 학교폭력 참여자 중 가해자 역할에 미치는 영향

구분		가해자			
		계수	표준오차	OR	(95% CI)
가정폭력 노출 경험	보호자로부터 체벌 피해	-0.200	0.433	0.819	(0.350-1.914)
	보호자로부터 언어폭력 피해	1.651 *	0.657	5.212	(1.437-18.903)
	보호자로부터 신체폭력 피해	-3.060	1.803	0.047	(0.001-1.606)
	부모 간 언어폭력 목격	0.833	0.583	2.300	(0.733-7.217)
	부모 간 신체폭력 목격	1.724 *	0.812	5.606	(1.141-27.544)
부모 양육태도	따스함	-0.122	0.194	0.886	(0.605-1.295)
	거부	0.372 *	0.171	1.451	(1.037-2.030)
	자율성지지	-0.266	0.200	0.766	(0.518-1.134)
	강요	0.042	0.208	1.043	(0.694-1.568)
	구조제공	-1.245 ***	0.165	0.288	(0.209-0.398)
	비일관성	-0.343	0.176	0.710	(0.502-1.003)

* $p < .05$, ** $p < .01$, *** $p < .001$.

부모의 양육태도에서는 거부가 높을수록 가해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1.45배 증가하였다. 즉, 부모가 정서적으로 차갑고 배척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청소년은 또래 집단에서 폭력적 행동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반대로 구조제공은 가해자 참여 가능성을 71% 감소시키는 강력한 보호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가 명확하고 일관된 규칙과 지침을 제공할 때, 청소년의 자기조절력과 규범 준수가 강화되어 폭력적 행동이 억제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 직접적·간접적 폭력 경험이 청소년의 공격성 강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동시에 부모의 양육태도 중 정서적 거부와 규범 제공 방식이 가해 행동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핵심 기제임을 보여준다.

(2) 동조자 역할

동조자 역할 분석에서는 부모 간 신체폭력 목격 경험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 해당 경험이 있는 학생은 동조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무려 7.10배 높았는데, 이는 가정 내 폭력 목격이 직접적 가담보다는 묵인과 추종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양육태도에서는 따스함과 구조제공이 각각 47%, 68% 위험을 낮추는 보호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부모가 정서적으로 따뜻하게 반응하고 일관된 규칙을 제공할수록 자녀는 또래 폭력 상황에서 가해자에 동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거부는 동조자 가능성을 1.67배 증가시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부모의 배척적 태도로 인해 청소년이 가정에서 소속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또래 집단에서의 소속감을 확보하기 위해 가해자 집단에 동조하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동조자 역할은 가정 내 폭력 목격 경험과 부모의 정서적 태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청소년이 또래 관계에서 수동적으로 폭력에 가담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표 III-8. 가정환경 요인이 학교폭력 참여자 중 동조자 역할에 미치는 영향

구분		동조자			
		계수	표준오차	OR	(95% CI)
가정폭력 노출 경험	보호자로부터 체벌 피해	0.189	0.413	1.208	(0.538-2.716)
	보호자로부터 언어폭력 피해	0.829	0.761	2.291	(0.516-10.180)
	보호자로부터 신체폭력 피해	-2.214	1.187	0.109	(0.011-1.118)
	부모 간 언어폭력 목격	-0.289	0.691	0.749	(0.193-2.900)
	부모 간 신체폭력 목격	1.960 *	0.899	7.102	(1.219-41.385)
부모 양육태도	따스함	-0.634 **	0.205	0.530	(0.355-0.793)
	거부	0.511 **	0.178	1.667	(1.175-2.365)
	자율성지지	-0.389	0.210	0.678	(0.449-1.023)
	강요	-0.114	0.220	0.892	(0.579-1.374)
	구조제공	-1.148 ***	0.174	0.317	(0.226-0.446)
	비일관성	-0.381	0.195	0.683	(0.466-1.002)

* $p < .05$, ** $p < .01$, *** $p < .001$.

(3) 강화자 역할

강화자 역할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보호자로부터 신체폭력 피해 경험이나 부모 간 신체폭력 목격 경험이 있는 경우, 강화자 역할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OR=0). 이는 신체적 폭력의 직접적 고통이나 목격 경험이 오히려 청소년을 폭력 장면에서 강화자로 행동하지 않게 하는 억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양육태도의 경우, 거부는 강화자 가능성을 1.50배 증가시켜 위험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따스함과 구조제공은 각각 43%, 68% 위험 감소 효과를 보여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

였다. 이는 강화자 행동이 부모의 정서적 태도와 규범 제공 방식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정서적 지지와 규율 제공은 강화 행동을 예방하는 핵심 요인임을 시사한다.

표 III-9. 가정환경 요인이 학교폭력 참여자 중 강화자 역할에 미치는 영향

구분		강화자			
		계수	표준오차	OR	(95% CI)
가정폭력 노출 경험	보호자로부터 체벌 피해	-0.177	0.407	0.838	(0.378-1.859)
	보호자로부터 언어폭력 피해	-0.231	1.097	0.794	(0.092-6.823)
	보호자로부터 신체폭력 피해	-11.021	1.029	0.000	(0.000-0.000)
	부모 간 언어폭력 목격	1.486 *	0.589	4.419	(1.393-14.026)
	부모 간 신체폭력 목격	-10.767	0.862	0.000	(0.000-0.000)
부모 양육태도	따스함	-0.557 *	0.221	0.573	(0.372-0.883)
	거부	0.402 *	0.201	1.495	(1.008-2.217)
	자율성지지	0.244	0.222	1.276	(0.825-1.974)
	강요	-0.163	0.229	0.850	(0.542-1.331)
	구조제공	-1.155 ***	0.170	0.315	(0.226-0.440)
	비일관성	0.220	0.190	1.246	(0.859-1.807)

* $p < .05$, ** $p < .01$, *** $p < .001$.

(4) 방어자 역할

방어자 역할에서는 가정환경 요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행동이 가정환경보다 또래관계, 개인의 도덕성, 또는 학교 규범 등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방어 행동은 본 연구에서 다른 가정환경 요인보다는 개인적·사회적 자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표 III-10. 가정환경 요인이 학교폭력 참여자 중 방어자 역할에 미치는 영향

구분		방어자			
		계수	표준오차	OR	(95% CI)
가정폭력 노출 경험	보호자로부터 체벌 피해	0.347	0.203	1.415	(0.950-2.107)
	보호자로부터 언어폭력 피해	0.275	0.390	1.317	(0.613-2.831)
	보호자로부터 신체폭력 피해	-0.088	0.491	0.916	(0.350-2.400)
	부모 간 언어폭력 목격	0.280	0.363	1.324	(0.649-2.698)
	부모 간 신체폭력 목격	-0.482	0.612	0.618	(0.186-2.048)
부모 양육태도	따스함	0.111	0.128	1.117	(0.869-1.437)
	거부	-0.112	0.106	0.894	(0.727-1.100)
	자율성지지	0.215	0.131	1.240	(0.959-1.604)
	강요	-0.013	0.117	0.987	(0.784-1.243)
	구조제공	-0.178	0.108	0.837	(0.678-1.034)
	비일관성	-0.095	0.114	0.910	(0.728-1.136)

* $p < .05$, ** $p < .01$, *** $p < .001$.

(5) 방관자 역할

방관자 역할에서는 보호자로부터 체벌 피해 경험이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으로, 방관자 가능성을 2.27배 높였다. 이는 직접적 신체적 피해 경험이 청소년을 폭력 상황에서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태도로 이끌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의 비일관성 역시 방관자 가능성을 1.25배 높여, 일관성 없는 양육 환경이 청소년의 적극적 개입 동기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표 III-11. 가정환경 요인이 학교폭력 참여자 중 방관자 역할에 미치는 영향

구분		방관자			
		계수	표준오차	OR	(95% CI)
가정폭력 노출 경험	보호자로부터 체벌 피해	0.818 ***	0.198	2.266	(1.537-3.339)
	보호자로부터 언어폭력 피해	-0.152	0.402	0.859	(0.391-1.889)
	보호자로부터 신체폭력 피해	0.064	0.481	1.066	(0.416-2.735)
	부모 간 언어폭력 목격	-0.344	0.405	0.709	(0.320-1.567)
	부모 간 신체폭력 목격	-0.411	0.647	0.663	(0.186-2.358)
부모 양육태도	따스함	-0.279 *	0.134	0.757	(0.582-0.984)
	거부	-0.249 *	0.107	0.780	(0.633-0.961)
	자율성지지	0.415 **	0.139	1.514	(1.154-1.987)
	강요	-0.004	0.115	0.996	(0.795-1.249)
	구조제공	-0.096	0.107	0.908	(0.736-1.120)
	비일관성	0.222 *	0.111	1.248	(1.005-1.551)

* $p < .05$, ** $p < .01$, *** $p < .001$.

부모의 양육태도 중에서는 따스함(OR=0.76)과 거부(OR=0.78)가 방관 행동을 억제하는 보호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부는 다른 역할에서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방관자 역할에서는 보호 효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반면, 자율성 지지는 방관자 가능성을 1.51배 증가시켜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율성 강조가 책임 회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6) 종합

〈표Ⅲ-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정 내 요인은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가정폭력 경험은 청소년의 학교폭력 참여를 촉진하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따스함, 구조제공)는 대부분의 역할에서 일관된 보호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가정환경이 청소년의 폭력 가담 행동과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Ⅲ-12.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내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	위험 요인	보호 요인
가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로부터 언어폭력 피해 경험 • 부모 간 신체폭력 목격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구조제공
동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간 신체폭력 목격 경험 • 부모의 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따스함 • 부모의 구조제공
강화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따스함 • 부모의 구조제공
방어자	—	—
방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로부터 체벌 피해 경험 • 부모의 비밀관성 • 부모의 자율성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따스함 • 부모의 거부

* 주: 1) 승산비가 1보다 크고 p<.05인 경우 위험 요인에, 승산비가 1보다 작고 p<.05인 경우 보호 요인에 제시하였음.
2) 방어자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예측변수가 존재하지 않음.

세부적으로 보면, 가해자 역할에서는 보호자로부터의 언어폭력 피해 경험과 부모 간 신체폭력 목격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구조제공은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동조자 역할에서는 부모 간 신체폭력 목격과 부모의 거부가 위험 요인으로, 부모의 따스함과 구조제공은 보호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강화자 역할에서는 부모의 거부가 위험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부모의 따스함과 구조제공은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방어자 역할에서는 본 연구에서 고려한 가정환경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방어 행동은 또래 관계나 개인적 특성, 학교 맥락에 더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방관자 역할에서 나타난 독특한 패턴이다. 부모의 거부는 가해자·동조자·강화자에서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방관자 역할에서는 오히려 보호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대로 자율성 지지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방관자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부모의 거부·방관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부모의 거부 경험과 관련된 심리적 메커니즘과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다. 장하은과 이운경(2025)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거부민감성을 높이고 정서 표현의 양가성을 심화시켜 대인관계에서 갈등과 불안을 초래한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또래 집단에서 소극적으로 방관자 역할을 하게 하거나 오히려 배척이나 고립의 위험을 더 크게 지각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방관보다는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자신이 ‘무책임한 방관자’로 보이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으며, 이는 방관 억제 효과로 연결될 수 있다. 즉, 부모의 거부적 양육은 일반적으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또래 맥락에서는 거부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진 결과 방관보다는 다른 참여 형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양면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방관자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자율성 지지가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자율성 지지는 원래 내적 동기를 발달시키고 책임감을 학습하도록 돕는 긍정적 요인이지만 부모가 명확한 구조(structure)나 일관된 지침을 제공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자유’를 강조한다면 이는 방임적 태도로 경험될 수 있다 (Soenens & Vansteenkiste, 2010). 이 경우에는 사회적 규범이나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내면화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소극적 태도로 방관자 역할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규칙과 기대를 분명히 하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청소년 발달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또한 과도한 자율성 존중 환경은

청소년이 ‘책임감 분산’이라는 도덕적 이탈 기제를 사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 Thornberg와 Jungert(2013)가 지적했듯이, 방관자들은 ‘개입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며 도덕적 의무를 외면한다. 이는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해야 한다’는 가정 내 가르침이 ‘타인의 문제 역시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확장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집단의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이라는 문화적 맥락에서도 살펴보면, 부모의 거부 경험은 또래 집단에서 소속감을 유지하려는 행동 동기를 강화하여 방관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수 있고, 부모가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로 여겨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참여가 단순히 개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환경과 그 해석 방식에 의해 달리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방관자 역할과 같이 기존 연구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 이는 청소년 발달 맥락과 사회문화적 배경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 — 제4장 가정폭력 노출의 이질성과 학교폭력 경험

- 1. 이론적 배경
- 2. 연구 방법
- 3. 분석 결과

1. 이론적 배경

가정은 아동이 최초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세상을 학습하는 일차적 사회화 환경이다. 이 시기에 형성되는 부모-자녀 관계 및 가족 내 상호작용은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의 근간을 이룬다. 아동은 가정을 통해 안정감과 신뢰를 배우고, 갈등 해결 방식과 대인관계 기술을 내면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발달의 장이 되어야 할 가정이 폭력에 의해 오염될 때, 가정은 더 이상 안전한 보호막이 아닌 공포와 혼돈의 공간으로 변모한다. 폭력에 노출된 아동은 안정적인 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세상과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상실하며, 예측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끊임없는 불안과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가정이 폭력을 학습하는 일차적인 훈련장이 된다는 점이다. 사회화 습이론과 폭력의 세대 간 전이 모형에 따르면, 아동은 부모의 폭력적 행동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관계 내 갈등을 해결하거나 통제권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왜곡된 신념을 습득하게 된다(Russell & Voith, 2025). 이러한 학습은 단순히 폭력행동을 모방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태도와 가치관의 내면화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가정폭력은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고, 폭력이 세대를 거쳐 재생산되는 악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가정폭력 노출은 단순히 경험 여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양상으로 경험될 수 있다. 가정폭력 노출은 전통적으로 보호자로부터 직접 폭력을 당하는 직접적 피해 경험과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는 간접적 노출 경험으로 구분되어 왔다. 두 가지 형태 모두 아동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유발하지만 그 영향의 기제와 결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다. 직접적인 학대 경험은 정서적 결핍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공격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김평화, 윤혜미, 2013). 반면,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약화되고 대화시간이 줄어들게 되며(김재엽, 박진경, 2025), 폭력을 목격하는 것만으로 외상을 경험하게 된다(최혜정, 2012). 또한 폭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우위에 있고, 폭력을 당하는 존재는 힘이 없고 무력하여 참아내야 한다는 폭력에 대한 왜곡된 태도를 학습하게 되며, 결국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어 폭력이 세대 간 전승되기도 한다(최혜정, 2012). 따라서 어떤 종류의 가정폭력에 주로 노출되었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메커니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후 학교폭력의 양상을 예측하고 해결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즉, 노출되는 폭력의 유형, 빈도, 강도, 그리고 여러 유형의 폭력을 동시에 경험하는지 등에 따라 아동의 경험과 결과가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여러 유형의 폭력을 동시에 경험하는 중복피해(poly-victimization)의 경우, 각기 다른 유형의 폭력이 상호작용하여 단일 유형의 폭력을 경험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Chan, Chen, & Chen, 2021). Finkelhor, Ormrod와 Turner(2007)의 연구에서는 단일 유형의 폭력 피해가 반복되는 것보다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중복적으로 경험할 때 정신건강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예컨대, 임상적 수준의 불안 증상을 보인 청소년의 80%, 우울 증상을 보인 청소년의 86%가 최근 1년간 중복피해자에 해당했으며, 이들은 단일 유형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만성 피해 아동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불안·우울·분노 증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의 빈도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피해 경험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누적적이고 독립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처럼 심각한 중복피해 경험의 실태는 변인 중심적 접근(variable-centered approach)으로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가정폭력 노출 경험의 복합성과 중첩성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가정폭력 노출 집단 내에 존재하는 이질성을 규명해야 하며, 사람들의 실제적 경험 수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는 사람 중심적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이 필요하다.

이에 국내외에서 가정폭력 노출 경험과 관련하여 잠재계층 분석이나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이질적인 잠재집단을 도출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미국의 미취학 아동 474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노출 패턴을 분석한 결과(Grasso et al., 2016), 모든 형태의 폭력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다중 피해 계층(Polyvictimized, 15.2%), 주로 신체적 징계를 경험하는 가혹한 양육 계층(Harsh parenting, 49.5%), 거의 가정폭력에 노출되지 않는 저노출 계층(Low exposure, 35.2%)로 구분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중·고등학생 2,080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경험을 유형화한 결과, 저피해 가정환경(47.6%), 아동학대 가정환경

(28.9%), 부부폭력 가정환경(12.3%), 중복피해 가정환경(11.1%)로 분류되었다(김재엽, 황성걸, 오은영, 2022). 김재엽 외(2022) 연구에서 잠재계층별 자살생각 차이 분석에서 중복피해 가정환경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부부폭력 가정환경, 아동학대 가정환경, 저피해 가정환경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두 연구 모두에서 다양한 종류의 폭력을 중복으로 경험하는 비율이 10~20% 정도로 나타났고 그 밖에 특정 종류의 폭력을 두드러지게 경험하는 집단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처럼 가정폭력 노출 경험을 사람 중심적 접근으로 파악하면 어느 유형의 폭력에 어느 정도로 노출되는지, 중복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다른 변수와의 관련성까지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횡단적 자료를 활용하여 가정폭력 경험을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심리적 문제와 같은 내적 요인을 분석하는 데 집중해 왔다. 그러나 아동기의 가정폭력 경험이 이후 청소년기의 학교폭력이라는 외현적 문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특히 기존 연구들은 일회적 시점의 측정에 의존해, 피해의 복합성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발달적 맥락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장기 종단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요구된다. 종단자료를 통해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 유형이 청소년기의 학교폭력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면,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간의 종단적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는 학교폭력 예방 및 개입 전략 수립에 실질적 기초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교육·복지 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2.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및 대상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와 마찬가지로 KCYPs 2018 자료 중 중학교 1학년 패널 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중에서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동기에 해당하는 기간에 한 번이라도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에 포함된 최종 연구대상은 남학생 93명(53.8%), 여학생 80명(46.2%)으로 총 173명이다. 학교기준 도시 규모로 살펴보면, 대도시 64명(37.0%), 중소도시 61명(35.3%), 읍면지역 46명(26.6%), 무응답 2명(1.2%)이었다.

2) 분석 방법

먼저,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경험 5가지 종류를 지표변수로 하여 잠재계층 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경험은 변수 중심으로 접근(variable-centered approach)하기보다는 각 개인이 다양한 종류의 폭력에 대해 서로 다른 양상으로 경험할 수 있으므로 사람 중심적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사람 중심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면, 전체 표본에 이질적인 특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사람들이 응답한 반응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때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야 할지는 몇 가지 통계적 기준과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Nylund et al., 2007). 본 연구 활용한 통계적 기준으로 AIC(Akaike, 1974), BIC(Schwarz, 1978), SABIC(Sclove, 1987)의 세 가지 정보지수, 분류의 질을 의미하는 Entropy, 모형 간 비교 검증인 LMR-L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Lo, Mendell, & Rubin, 2001)와 BLRT(parametric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McLachlan & Peel, 2000), 집단 내 소속 비율을 고려하였다. 정보지수는 값이 작을수록 더 적합한 모형이라고 해석하고, Entropy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 적합한 모형이라고 해석한다. Muthén(2004)에 의하면 .8 이상이면 90% 이상 잘 분류되었다고 판단한다. 모형 비교 검증은 잠재계층수가 K개인 모형과 K-1개인 모형을 비교할 때 p 값이 유의하면 K개인 모형을, p 값이 유의하지 않으면 K-1개인 모형을 지지한다. 잠재계층별 소속 비율은 5% 이상이면 대표적인 집단이라고 보고 그보다 작은 비율의 집단이 존재하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Andruff et al., 2009). 잠재계층 분석은 앞 장에서와 마찬가지로 Mplus 8.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가정폭력을 경험한 학생들로 선별된 173명 자료에서 가정폭력 노출 경험 변수들에 대한 결측값은 존재하지 않았다. 도출된 각 잠재계층별 청소년기 학교폭력의 특징을 살펴볼 때는 3단계 접근법(3-step approach)(Vermunt, 2010)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본 연구 대상의 표본 수가 적은 관계로 통계 검증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여러 잠재계층 중 각 개인이 속할 확률이 가장 높은 잠재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생성된 집단변수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으로 살펴보았다. 집단별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3) 분석에 포함된 변수

가정폭력 노출 경험 문항은 앞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고, 학교폭력 경험에 대한 문항은 다양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크게 현실폭력 가해, 현실폭력 피해, 사이버폭력 가해, 사이버폭력 피해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현실폭력 가해와 피해는 각각 6문항, 사이버폭력 가해와 피해는 각각 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6점 척도(1=전혀 없다, 2=1년에 1~2번, 3=한 달에 1번, 4=한 달에 2~3번, 5=1주일에 1번, 6=1주일에 여러번)로 응답하게 하였다. 현실폭력 가해와 피해는 6문항 응답의 평균을 활용하였다.

표 IV-1. 학교폭력 경험 문항

구 분	문항
현실폭력 가해	<p>“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 다른 사람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 다른 사람 협박하기 •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뺏기기) • 심한 욕설과 폭언
현실폭력 피해	<p>“지난 1년 동안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하게 놀림이나 조롱 당하기 • 집단따돌림(왕따) 당하기 • 심하게 맞기 • 협박 당하기 • 돈이나 물건 빼앗기기(뺏기기) • 심한 욕설과 폭언 당하기
사이버폭력 가해	<p>“지난 1년 동안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가한 경험이 있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인터넷, 카카오톡, SNS 등)에서 따돌리거나 괴롭히기(예: 욕설/모욕, 협박, 성희롱, 사생활 공개 등)
사이버폭력 피해	<p>“지난 1년 동안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인터넷, 카카오톡, 눈 등)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 당하기(예: 욕설/모욕, 협박, 성희롱, 사생활 공개 등)

4)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경험 다섯 가지를 지표변수로 하여 잠재계층을 분류한 후, 잠재계층으로 분류된 집단별로 청소년기 학교폭력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때 가정폭력 노출 경험은 보호자로부터 체벌 피해, 보호자로부터 언어폭력 피해, 보호자로부터 신체폭력 피해, 부모 간 언어폭력 목격, 부모 간 신체폭력 목격, 학교폭력 경험은 현실폭력 가해, 현실폭력 피해, 사이버폭력 가해, 사이버폭력 피해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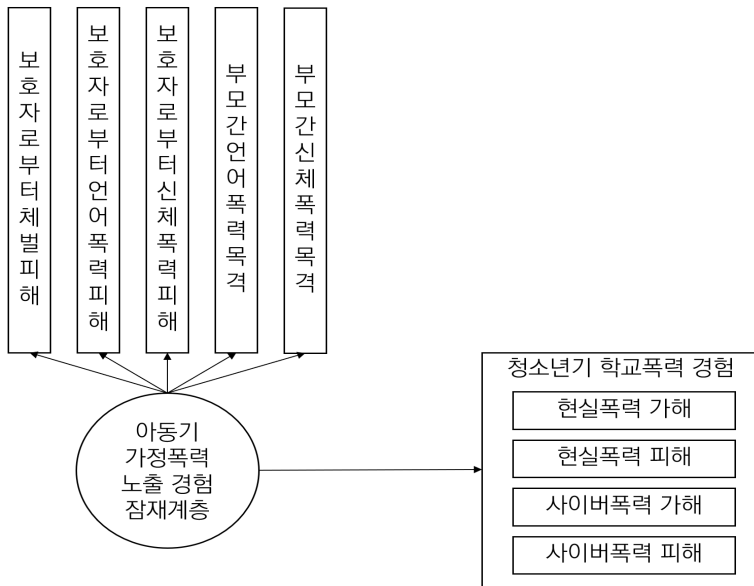


그림 IV-1. 연구모형(심층분석II)

3. 분석 결과

1) 기초분석 결과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 이전에, 분석에 활용된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아동기(입학 전부터 초등학교 시기까지) 가정폭력 경험 여부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 173명 중 다수가 보호자로부터 체벌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호자로부터 체벌 피해는 75.7%가 경험하였으며, 이는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보호자로부터 언어폭력 피해 경험은 19.1%, 보호자로부터 신체폭력 피해 경험은 13.3%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모 간 언어폭력 목격 경험은 전체의 25.4%, 부모 간 신체폭력 목격 경험은 10.4%로 나타나, 직접적 피해뿐 아니라 간접적인 목격 경험 역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체벌 피해 경험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언어·신체적 학대나 부부 간 폭력 목격 경험도 적지 않게 보고되었다. 이는 아동들이 다양한 유형의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표 IV-2.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경험 빈도

구 분	경험 여부	빈도(명)	비율(%)
보호자로부터 체벌 피해	무	42	24.3
	유	131	75.7
보호자로부터 언어폭력 피해	무	140	80.9
	유	33	19.1
보호자로부터 신체폭력 피해	무	150	86.7
	유	23	13.3
부모 간 언어폭력 목격	무	129	74.6
	유	44	25.4
부모 간 신체폭력 목격	무	155	89.6
	유	18	10.4
합계		173	100.0

청소년기 학교폭력 경험의 평균 수준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유형의 학교폭력 경험은 평균 1점대 초반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다수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거의 경험하지 않았음을 의미하지만, 일부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평균이 높은 경향이 확인되었다.

표 IV-3. 청소년기 학교폭력 경험 기술통계

구 분		사례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현실폭력 가해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173	1.00	6.00	1.11	0.53
	다른 사람 집단따돌림(왕따) 시키기	173	1.00	2.00	1.01	0.08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173	1.00	2.00	1.02	0.15
	다른 사람 협박하기	173	1.00	2.00	1.02	0.13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병뜯기)	173	1.00	2.00	1.01	0.08
	심한 욕설과 폭언	173	1.00	6.00	1.22	0.67
현실폭력 피해	심하게 놀림이나 조롱 당하기	173	1.00	5.00	1.17	0.53
	집단따돌림(왕따) 당하기	173	1.00	2.00	1.01	0.08
	심하게 맞기	173	1.00	5.00	1.02	0.30
	협박 당하기	173	1.00	6.00	1.12	0.64
	돈이나 물건 빼앗기기(병뜯기기)	173	1.00	4.00	1.05	0.30
	심한 욕설과 폭언 당하기	173	1.00	6.00	1.17	0.64
사이버폭력 가해	온라인에서 따돌리거나 괴롭히기	173	1.00	2.00	1.10	0.30
사이버폭력 피해	온라인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 당하기	173	1.00	6.00	1.10	0.55

먼저 현실폭력 가해에서는 ‘심한 욕설과 폭언’과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가 각각 평균 1.22, 1.11로 다른 유형에 비해 다소 높은 평균을 보였다. 그 외 집단따돌림, 신체적 폭행, 협박, 금품 갈취 등은 평균 1.01~1.02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현실폭력 피해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 ‘심한 욕설과 폭언 당하기’와 ‘심하게 놀림이나 조롱 당하기’가 모두 평균 1.17로,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되었다. 반면 집단따돌림, 맞기, 협박, 금품 갈취 등은 평균 1.01~1.12 수준으로 낮았다.

사이버폭력 경험은 가해와 피해 모두 평균 1.10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가해와 피해 모두 소수의 학생들이 경험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 경험에서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일부 학생들이 반복적 혹은 심각한 수준의 사이버폭력을 경험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아동기의 가정폭력 노출은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며 특히 체벌 경험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청소년기의 학교폭력 경험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언어적 폭력(욕설, 조롱 등)’은 가해와 피해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이버폭력 경험은 평균적으로 낮지만 일부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가정폭력 노출 경험의 유형화에 따라 학교폭력 양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가정환경의 이질성이 청소년기의 폭력 경험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보다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심층분석 결과

(1)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경험 잠재계층 수 결정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경험으로 잠재계층을 분류할 때 적절한 수의 잠재계층 모형을 결정하기 위해 잠재계층 수를 2개부터 5개까지 하나씩 늘려가며 다양한 통계적 기준에 결과가 부합하는지 살펴보았다.

앞서 제시한 통계적 기준에 따라 2-5개 잠재계층 모형을 비교하고 검토한 결과, 4개 잠재계층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보지수인 AIC, BIC, SABIC를 살펴본 결과, AIC와 SABIC는 잠재계층 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4개 잠재계층 모형에서 최저치를 보였으나, 5개 잠재계층 모형에서는 다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BIC는 2개 잠재계층 모형에서 최저치를 나타냈고, 3개 잠재계층 모형, 4개 잠재계층, 5개 잠재계층순으로 계층 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다. 정보지수 세 가지를 종합하여 볼 때, AIC와 SABIC의 최저치 지점과 BIC의 완만한 증가 추이 모두 4개 잠재계층 모형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기준인 Entropy 값은 모형의 잠재계층 분류의 질을 나타내며, 4개 잠재계층 모형에서 0.95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4개 잠재계층 모형에서 구분이 명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 기준인 모형 비교 검증 결과, LMR-LRT은 4개 잠재계층 모형은 3개 잠재계층 모형 대비 유의하게 적합도 향상을 보였으며, 5개 잠재계층 모형과 비교시에도 유의하여 잠재계층 수가 증가할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좋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BLRT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4계층 모형의 클래스별 소속 비율은 각각 13.9%, 54.2%, 13.3%, 18.6%로, 가장 작은 클래스가 약 3.6%였던 5개 잠재계층 모형에 비해 모두 5% 이상으로 해석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즉, 모든 잠재계층이 실질적 대표성을 확보한다고 볼 수 있다.

표 IV-4. 잠재계층 수 증가에 따른 통계 분석 결과

구분		잠재계층 수			
		2개	3개	4개	5개
정보지수	AIC	769.64	760.24	756.52	759.11
	BIC	804.33	813.85	829.04	850.56
	SABIC	769.50	760.02	756.21	758.73
분류의 질	entropy	0.684	0.711	0.951	0.974
모형 비교 검증	LMR-LRT(p)	0.0000	0.0158	0.0081	0.0006
	BLRT(p)	0.0000	0.0000	0.0000	0.0000
소속 비율(%)		54.3	16.1	13.9	3.6
		45.7	52.5	54.2	13.3
			31.4	13.3	52.9
				18.6	16.4
					13.9

결론적으로, AIC와 SABIC의 최저치, 높은 Entropy, LMR-LRT 및 BLRT의 유의미한 개선, 그리고 잠재계층별 소속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4개인 잠재계층 모형이 통계적 기준과 해석적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 최종모형으로 선정되었다.

(2)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경험 잠재계층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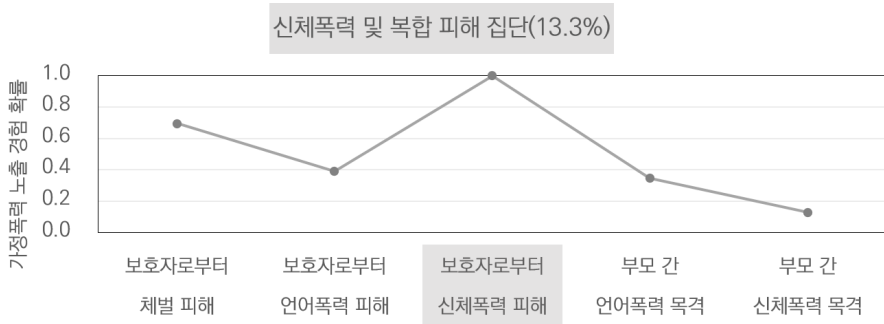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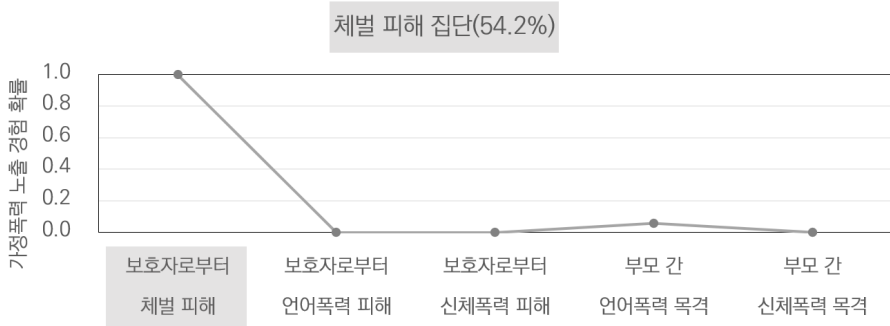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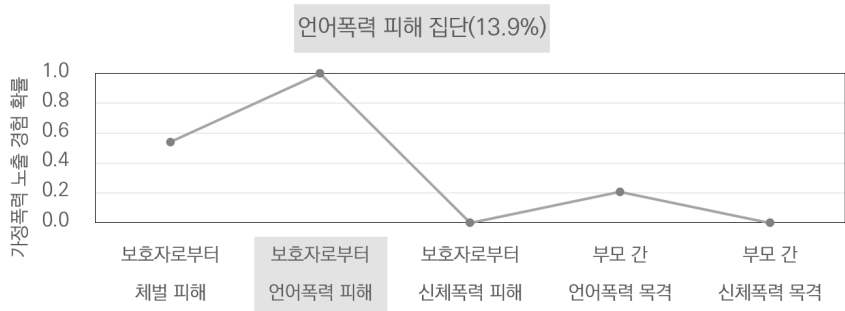
최종모형으로 선정된 4개의 잠재계층별 가정폭력 노출 경험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잠재계층은 전체의 13.9%를 차지하며, 보호자로부터 언어폭력 피해를 경험할 확률이 거의 1.0에 이르는 특징을 보인다¹⁾. 반면 신체폭력 피해 및 부모 간 폭력 목격의 확률은 0에 가깝게 나타나, 직접적 신체 폭력보다는 언어적 피해에만 노출되는 특성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이 집단은 ‘언어폭력 피해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잠재계층은 전체의 54.2%로 가장 크며, 보호자로부터의 체벌 경험 확률이 매우 높게 관찰된다. 나머지 언어폭력 피해, 신체폭력 피해, 부모 간 폭력 목격은 모두 0에 가까워, 이 집단은 주로 체벌을 통한 훈육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 집단은 ‘체벌 피해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잠재계층은 전체의 13.3%를 구성하며, 보호자로부터 신체폭력 피해 경험 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더불어 체벌 피해와 언어폭력 피해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동시에 발생하여, 복합적 폭력 노출 패턴을 보인다. 이 집단은 ‘신체폭력 및 복합 피해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네 번째 잠재계층은 전체의 18.6%로, 부모 간 언어폭력 목격 확률이 약 0.8, 부모 간 신체폭력 목격 확률이 약 0.5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보호자로부터의 직접적 피해 경험은 거의 없어, 이들은 주로 부모 간 갈등 상황을 목격함으로써 관찰적 트라우마에 노출된 집단으로 분류된다. 이 집단은 ‘폭력 목격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1) Mplus 프로그램은 로짓 모형 분석 시 응답 패턴이 너무 치우친 경우에, 즉, 사실상 확률이 거의 1인 상태에는 로짓값을 -15로, 확률이 거의 0인 상태에는 로짓값을 +15로 고정한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도 표본 수가 적고 해당 잠재계층에 속한 학생들이 모두 동일한 값으로 응답한 경우에 확률이 1 또는 0으로 고정된 값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 경우 표준오차는 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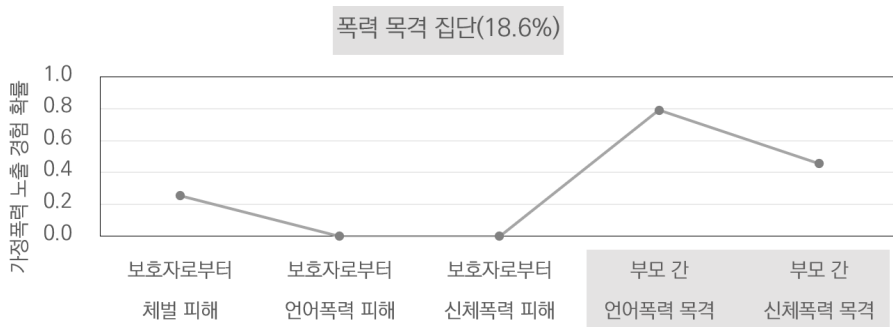


그림 IV-2. 잠재계층의 형태

표 IV-5. 잠재계층별 가정폭력 노출 경험 확률

구 분	언어폭력 피해 집단		체벌 피해 집단		신체폭력 및 복합 피해 집단		폭력 목격 집단	
	확률	표준오차	확률	표준오차	확률	표준오차	확률	표준오차
보호자로부터 체벌 피해	0.542	0.102	1.000	0.000	0.696	0.096	0.255	0.124
보호자로부터 언어폭력 피해	1.000	0.000	0.000	0.000	0.391	0.102	0.000	0.000
보호자로부터 신체폭력 피해	0.000	0.000	0.000	0.000	1.000	0.000	0.000	0.000
부모 간 언어폭력 목격	0.208	0.083	0.058	0.040	0.348	0.099	0.792	0.083
부모 간 신체폭력 목격	0.000	0.000	0.002	0.013	0.130	0.070	0.458	0.102

(3)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경험 잠재계층별 청소년기 학교폭력 경험 수준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유형에 따른 청소년기 학교폭력 경험을 기술통계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각 잠재계층별 학교폭력 경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폭력 피해 집단은 현실폭력 가해와 현실폭력 피해의 평균이 모두 1.0대 초반에 머무르며, 사이버폭력 가해와 사이버폭력 피해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현실폭력 피해와 가해 모두에서 최대값이 1.333 이하로 나타나, 이 집단은 전반적으로 학교폭력에 거의 관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즉, 가정 내 언어적 폭력만 경험한 아동은 학교에서의 가해 또는 피해 경험이 경미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체벌 피해 집단은 전반적으로 현실폭력 가해와 피해 경험 수준이 낮아 평균은 1.0대 초반에 머물렀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현실폭력 가해와 피해에서 최대 2.5~2.7 수준을 보고하여, 다수는 경험이 거의 없지만 일부 학생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폭력에 관여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사이버폭력 가해는 평균적으로 낮으나, 사이버폭력 피해의 경우 최대값이 6.0, 표준편차가 .658로 나타나 네 집단 중 가장 큰 개인차를 보였다. 이는 체벌 중심의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심각하고 다양한 수준의 피해를 경험하는 일부 사례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셋째, 신체폭력 및 복합피해 집단은 현실폭력 피해와 사이버폭력 피해 모두에서 가장 높은 평균이었다. 특히 현실폭력 피해의 최대값이 4.5, 표준편차가 .728이고, 사이버폭력 피해에서도 비교적 큰 편차를 보이는 점은, 신체적·언어적 폭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환경이 청소년기의 학교폭력 피해 수준을 전반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폭력 목격 집단은 현실폭력 가해는 다른 집단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나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는 않았고, 현실폭력 피해는 신체폭력 및 복합피해 집단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값을 보였으며, 사이버폭력 피해는 전혀 보고되지 않았고 사이버폭력 가해는 일부 학생들에게서만 경미하게 나타났다. 즉, 온라인 영역에서는 거의 학교폭력에 관여하지 않는 반면, 부모 간 폭력 상황을 목격한 경험은 오프라인 현실폭력의 가·피해 참여와 일정 부분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는 가정폭력의 유형과 강도가 클수록 청소년기의 학교폭력 수준과 분산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네 집단 중 가정 내 신체적 폭력과 언어·체벌 폭력이 중첩된 노출 패턴을 보이는 ‘신체폭력 및 복합피해 집단’이 청소년기의 학교폭력 가·피해 양상을 가장 크게 악화시키는 ‘고위험 집단’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단일 유형의 폭력 경험

에 그친 다른 집단에 비해 다차원적 트라우마가 누적되어 학교 현장에서의 피해와 가해 모두에서 취약성이 두드러지므로, 다각적 심리·사회적 지원과 예방·중재 프로그램을 우선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표 IV-6. 잠재계층별 학교폭력 경험 기술통계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경험 잠재계층	청소년기 학교폭력 경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언어폭력 피해 집단	현실폭력 가해	1.000	1.333	1.049	.092
	현실폭력 피해	1.000	1.333	1.069	.097
	사이버폭력 가해	1.000	2.000	1.167	.381
	사이버폭력 피해	1.000	1.000	1.000	.000
체벌 피해 집단	현실폭력 가해	1.000	2.667	1.061	.196
	현실폭력 피해	1.000	2.500	1.065	.198
	사이버폭력 가해	1.000	2.000	1.071	.259
	사이버폭력 피해	1.000	6.000	1.143	.658
신체폭력 및 복합피해 집단	현실폭력 가해	1.000	1.833	1.065	.218
	현실폭력 피해	1.000	4.500	1.181	.728
	사이버폭력 가해	1.000	2.000	1.174	.388
	사이버폭력 피해	1.000	4.000	1.174	.650
폭력 목격 집단	현실폭력 가해	1.000	2.167	1.083	.234
	현실폭력 피해	1.000	1.833	1.119	.197
	사이버폭력 가해	1.000	2.000	1.071	.262
	사이버폭력 피해	1.000	1.000	1.000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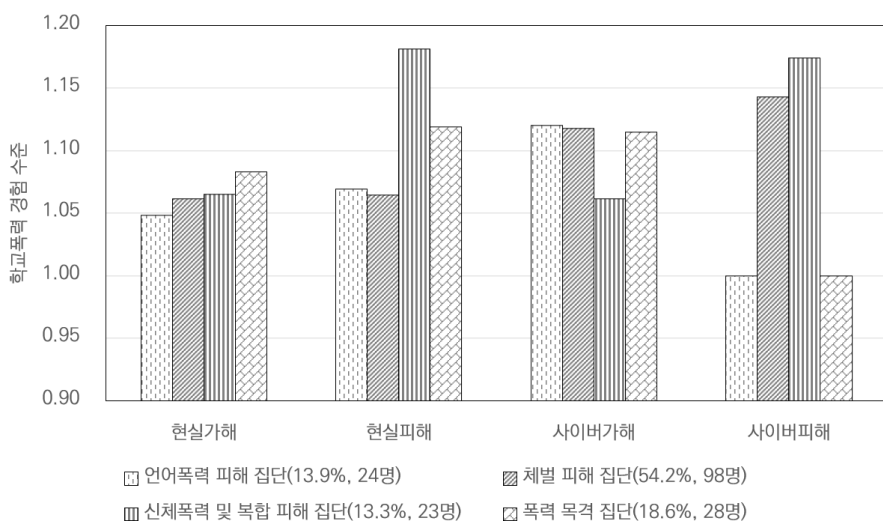


그림 IV-3. 잠재계층별 학교폭력 경험 수준 비교

(4) 종합

본 장에서는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경험이 있는 대상에 한하여 아동기의 가정폭력 노출 경험을 잠재계층 분석을 통해 유형화하고, 각 유형이 청소년기의 학교폭력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은 언어폭력 피해 집단(13.9%), 체벌 피해 집단(54.2%), 신체폭력 및 복합피해 집단(13.3%), 폭력 목격 집단(18.6%)이라는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가정폭력 경험이 단일 차원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다양한 형태와 강도로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체벌 피해 집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체벌이 여전히 주요한 양육 방식으로 존재함을 시사한다.

학교폭력 경험 수준을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은 낮았으나 집단 유형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언어폭력 피해 집단은 학교폭력 가·피해 경험이 거의 보고되지 않았고, 폭력 목격 집단 역시 온라인 폭력에서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반면, 체벌 피해 집단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에서 최대값과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 집단 내 변동성이 두드러졌다. 특히 신체폭력 및 복합피해 집단은 현실폭력 피해와 사이버폭력 피해 모두에서 평균이 가장 높아, 학교폭력 피해의 고위험 집단으로 확인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에서 경험하는 폭력의 강도와 복합성이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심화시키며, 현실과 사이버 공간 모두에서 다차원적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가정폭력의 유형과 강도에 따라 청소년기의 학교폭력 경험은 질적으로 달라지므로, 학교폭력 예방 정책은 단순히 ‘가정폭력 경험 유무’가 아니라 ‘노출 유형과 패턴’까지 고려해야 한다. 둘째, 신체적·언어적 폭력이 증첩된 복합피해 집단은 다차원적 위험에 노출된 만큼, 개별화된 심리·사회적 개입이 먼저 필요하다. 셋째, 체벌 피해 집단에서 사이버폭력 피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전통적 훈육 방식이 온라인 영역의 취약성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새로운 학교폭력 대응 방안 마련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아동기의 가정폭력 경험을 사람 중심적 접근으로 분석하여 그 이질성을 규명하고, 각 집단의 특성을 바탕으로 청소년기의 학교폭력과의 중단적 연관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학교와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예방 프로그램 설계, 위험집단 선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아동·청소년 복지 및 교육 정책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제5장 가정폭력 노출 유형이 심리·사회적 적응 프로파일로의 전이와 학교폭력 경험

- 1. 이론적 배경
- 2. 연구 방법
- 3. 분석 결과

1. 이론적 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은 개인의 기질 및 성격, 가족 내 상호작용, 사회경제적 배경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이 중에서도 가정 환경과 부모의 역할은 아동의 건강한 심리·사회적 적응을 형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간주된다. 구조적이고 지지적인 양육 환경, 가족 구성원 간의 효과적인 정서 조절, 그리고 높은 회복탄력성은 아동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 충족을 돕고, 이는 더 높은 수준의 심리적 안녕감(well-being)으로 이어진다(Camisasca, Miragoli, Di, & Feinberg, 2022; Qiu et al., 2021).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은 중요한 행동 규범을 보다 쉽게 내면화하며, 사회적 관계에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Soenens, Deci, & Vansteenkiste, 2017).

아동기 경험은 해당 시기뿐 아니라 이후 발달 과정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시기의 긍정적 경험은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을 강화하는 반면, 학대·방임·집단 따돌림과 같은 부정적 경험은 청소년기를 넘어 성인기의 정신건강 및 사회적 적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Cicchetti & Toth, 2009; Shonkoff et al., 2012).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기의 가정폭력 노출은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대하고 다면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이다.

특히 부모로부터의 신체 또는 언어적 폭력 경험은 아동의 안전감과 애착 체계를 훼손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과 부정적 자기 개념의 내면화를 촉발한다(Felitti et al., 1998). 반복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폭력 경험은 스트레스 조절 역량을 저하시키고, 이는 장기적으로 정서조절 및 대인관계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진아, 2016). 또한, 정서적

방임 및 학대는 청소년의 낮은 삶의 만족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열등감과 무가치함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Monteleone et al, 2023).

가정폭력은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폭력 목격 경험을 통해서도 아동에게 유사한 심리적 외상을 야기한다(김승경, 송미경, 2014; 조은수, 2024). 이러한 경험은 불안과 우울증 같은 내면화 증상(internalizing symptoms)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며, 사회적 위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Carter, Paranjothy, Davies, & Kemp 2022; Marçal, 2022). 한편, 가정폭력의 경험은 공격성 증가와 같은 외현화 행동(externalizing behaviors)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가정폭력 경험과 청소년기 공격성 증가 사이의 강력한 연관성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가정 내 폭력을 경험한 아동이 폭력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학습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Grujić, 2019; Moylan et al., 2010). 나아가, 가정폭력 목격 경험은 낮은 삶의 만족도, 부정적 자기인식, 가족 관계의 긴장, 그리고 학교폭력과 같은 위험 행동 증기를 포함한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Lepistö, Luukkaala, & Paavilainen, 2011).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학교는 단순한 학습 공간을 넘어, 또래 관계 형성, 자아정체성 발달을 촉진하는 사회화의 장이다(Ragelienė, 2016). 학교는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빈번히 일어나는 환경인 동시에 새로운 위협과 압력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사회인지, 정서조절 능력의 적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학교의 역할을 고려하였을 때 심리·사회적 적응 요소들은 청소년기 발달경로(developmental trajectory)를 결정하는 핵심 매개체이며, 가정 내 역기능적 자국이 학교생활 맥락에서의 적응의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폭력이나 폭력 목격 경험은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기술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폭력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내재화하여 또래 관계에서 공격성을 보이거나, 반대로 위축되고 회피적인 성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사회화 습이론은 가정폭력 연구에 가장 널리 적용되는 행동주의적 관점으로, 폭력적인 부모의 역할 모델을 관찰하거나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폭력 행동을 모방하게 되어 외현적 문제를 표출하게 된다고 설명한다(Bandura, 1977; 조은수, 2024). 이러한 가정 내 폭력은 폭력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학습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 결과, 폭력을 목격한 청소년들은 학교 내에서 가해자가 되거나, 폭력의 순환 고리에 빠져 다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아동기 초기의 가정폭력 노출은 이후 학교폭력의 가해

또는 피해 경험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신체적 학대와 가정폭력 모두에 노출된 아동은 높은 비행 수준 및 학교 관련 문제를 포함하여 가장 부적응적 결과를 보였다(Carter et al., 2022; Uslucan & Fuhrer, 2004).

또한, 학대 경험이 학교폭력 피해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주요 근거로 학습된 무기력감 이론(Seligman, 1975)이 활용되기도 한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자신의 힘으로는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을 학습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이들은 이후 폭력 상황을 회피하거나 막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 또 다른 폭력의 피해에 더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했다(Finkelhor et al., 2009; Cohen & Mannarino, 1996). 이러한 과정에서 공감 능력, 자아존중감,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낮은 자아존중감과 공감 능력의 어려움은 폭력의 가해 및 피해 경험과 깊은 연관성을 보인다(Castañeda et al., 2017).

이상의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볼 때, 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족 내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기 발달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아동기의 가정폭력 노출 경험이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단순한 결과가 아닌,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관계를 내포한다. 또한, 아동기 경험이 청소년기 심리·정서적 적응에 누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기의 현재 적응 수준이 이전 발달 과정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발달적 맥락을 고려할 수 있는 종단자료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잠재전이분석(LTA)을 통해 살펴보고, 이후 현실폭력 및 사이버폭력의 가해 및 피해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교차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가정 내 폭력 경험이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러한 발달 경로가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가정, 학교, 심리·사회적 적응 분야의 통합적 개입 전략 마련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및 대상

본 장에서는 3장과 4장에서와 마찬가지로 KCYPS 2018 자료 중 중학교 1학년 패널 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반면, 본 장에서는 3장에서와 같이 전반적인 특성 및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 전체 표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연구대상은 3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남학생 1,187명(53.4%), 여학생 1,037명(46.6%)으로 총 2,224명이다.

2) 분석 방법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경험에 따라 잠재계층을 분류한 후,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 잠재프로파일로 어떻게 전이되는지를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 LTA)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두 가지 종류의 집단을 교차하여 학교폭력 경험 수준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경험과 청소년기 학교폭력 경험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이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잠재전이분석이란 반복 측정된 관찰변수를 통해 각 시점별 잠재집단을 추정하고, 한 시점의 잠재집단에 속한 개인이 다음 시점에 동일하거나 다른 집단으로 이동(transition)할 확률을 동시에 모형화함으로써 개인의 내재적 변화 경로를 파악하는 모형이다. LTA는 시간에 따른 상태 안정성(stability)과 상태 변화의 패턴(pattern of change)을 확률적으로 동시에 추정하여 두 시점의 상태와 안정성 및 변화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 두 시점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이며, 아동기에는 가정폭력 노출 경험을 바탕으로 잠재계층을 도출하고,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적응을 바탕으로 잠재프로파일²⁾을 도출하였다.

분석을 위해 먼저 각 시점에서 잠재집단 수를 결정해야 하며, 잠재집단 수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앞 장에서 제시한 바와 동일하다. 본 장에서는 이에 더하여 두 시점 잠재집단 간 전이를 파악하는 것이 추가된다. 두 번째 시점의 잠재집단을 분류하는 데

2) 가정폭력 노출 경험 지표변수는 이분형 변수이므로 '잠재계층'이라 하고, 심리·사회적 적응의 지표변수는 연속형 변수이므로 '잠재프로파일'이라 하였음. 잠재계층과 잠재프로파일을 통칭하기 위해 '잠재집단'이라는 용어도 활용함.

첫 번째 시점의 잠재집단 분류가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3단계 접근법(three-step approach)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잠재전이분석에서 필수적이다. 3단계 접근법은 잠재집단을 분류할 때 외부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잠재전이분석 시 두 시점에서 잠재집단을 도출하는 데 활용되는 지표변수가 동일하다면 측정 동일성(measurement invariance) 검증이 필수적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 시점의 지표변수가 서로 다르므로 측정 동일성 검증은 할 필요가 없다.

잠재전이 분석은 앞 장과 같이 Mplus 8.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결과변수인 청소년기 학교폭력의 특징을 살펴볼 때는 3단계 접근법(3-step approach)(Vermunt, 2010)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소규모 잠재집단의 존재로 인해 통계 검증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집단변수를 활용하여 교차한 후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으로 살펴보았다.

3) 분석에 포함된 변수

본 장에서 분석에 포함시킨 변수는 가정폭력 노출 경험 여부와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 그리고 청소년기 학교폭력 경험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가정폭력 노출 경험 여부와 청소년기 학교폭력 경험 수준에 대한 문항은 앞 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으며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에 대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의 총 다섯 가지 심리·사회적 적응 관련 지표변수를 활용하였다.

표 V-1. 심리·사회적 적응 문항

구 분	문항
삶의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 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다. •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 냈다. •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자아존중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역) •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역) •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역) •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역) •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역) • 나는 나에게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공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 아무 이유 없이 울 때가 있다.
사회적 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 •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 수줍어한다. •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우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운이 별로 없다 •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 걱정이 많다 •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 울기를 잘한다 • 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 외롭다 •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 모든 일이 힘들다

* 주: (역)은 역코딩 문항임.

삶의 만족도는 Diener et al. (1985)가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SWLS)를 변안한 5문항을 활용하였고,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0.753이었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 원 문항을 변안하여 활용한 KCYPS 2010의 기존 문항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10문항을 활용하였다. 자아존중감 문항 중 5개의 문항은 자아존중감과 반대되는 의미가 있으므로 역채점하여 활용하였고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0.774였다. 공격성은 조봉환과 임경희(2003)의 아동 정서,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 척도 중 KCYPS 2010 기존 문항을 수정하고 보완한 6문항을 활용하였고,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0.832였다. 사회적 위축 역시 김선희와 김경연(1998)의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 문제척도 중 KCYPS 2010 기존 문항을 수정하고 보완한 5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0.875였다. 우울은 김광일 외(1984)의 간이 정신진단검사 중 KCYPS 2010 기존 문항을 수정하고 보완한 10문항을 활용하였고,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0.896이었다. 모두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고, 각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변수의 수준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4)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경험 잠재계층이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 잠재프로파일로 어떻게 전이되는지를 살펴보고,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경험으로 도출된 집단과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으로 도출된 집단을 교차하여 청소년기 학교폭력 수준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경험 잠재계층의 지표변수는 보호자로부터 체벌 피해, 보호자로부터 언어폭력 피해, 보호자로부터 신체폭력 피해, 부모 간 언어폭력 목격, 부모 간 신체폭력 목격의 다섯 가지 변수를 활용하였고,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 잠재프로파일의 지표변수는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의 다섯 가지 지표변수를 활용하였다. 결과변수인 청소년기 학교폭력 경험은 현실폭력 가해, 현실폭력 피해, 사이버폭력 가해, 사이버폭력 피해의 네 가지 변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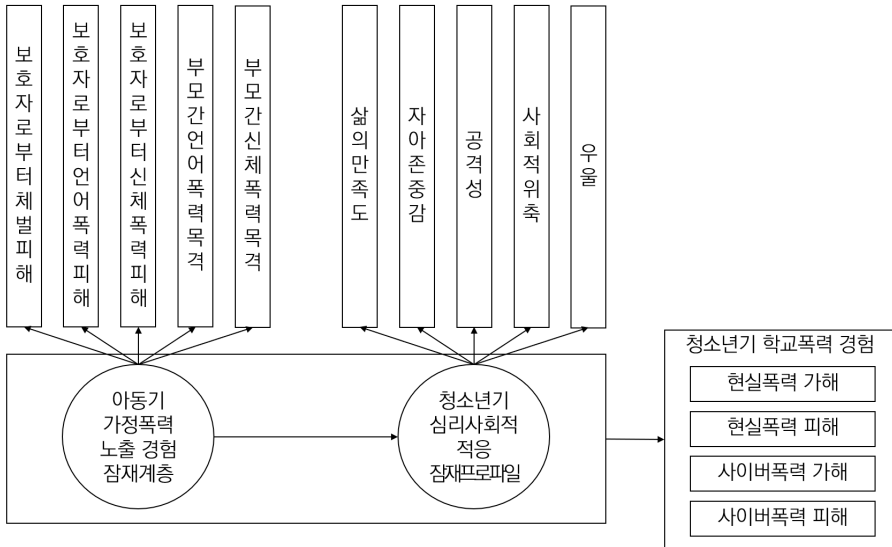


그림 V-1. 연구모형(심층분석Ⅲ)

3. 분석 결과

1) 기초분석 결과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 이전에, 분석에 활용된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경험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는 3장에 제시하였으므로, 본 장에서는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과 학교폭력 경험에 대한 기술통계만을 제시하였다.

먼저,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 변인의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2,224명의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삶의 만족도는 평균 2.56, 자아존중감은 평균 2.88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수준을 보였다. 반면, 부정적 심리 특성을 나타내는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의 평균은 각각 1.80, 2.01, 1.7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심리·사회적 적응은 대체로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2.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 기술통계

구 분	사례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삶의만족도	2224	1.00	4.00	2.56	0.50
자아존중감	2224	1.30	4.00	2.88	0.40
공격성	2224	1.00	4.00	1.80	0.52
사회적위축	2224	1.00	4.00	2.01	0.65
우울	2224	1.00	4.00	1.77	0.52

다음으로, 학교폭력 경험에 대한 기술통계를 보면, 현실폭력 가해 및 피해, 그리고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모두 평균값이 1.00~1.06점 범위에 분포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경험 수준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현실폭력 가해 경험 중에서는 ‘심한 욕설과 폭언’이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그 외의 가해 행위들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 머물렀다. 현실폭력 피해 역시 전반적으로 낮은 평균을 보였으나, ‘심하게 놀림이나 조롱 당하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사이버폭력 경험에서는 가해와 피해 모두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표 V-3. 청소년기 학교폭력 경험 기술통계

구 분		사례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현실폭력 가해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2224	1.00	6.00	1.02	0.23
	다른 사람 집단따돌림(왕따) 시키기	2224	1.00	3.00	1.00	0.05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2224	1.00	2.00	1.00	0.05
	다른 사람 협박하기	2224	1.00	2.00	1.00	0.04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뺑뺏기)	2224	1.00	3.00	1.00	0.07
	심한 욕설과 폭언	2224	1.00	6.00	1.06	0.39
현실폭력 피해	심하게 놀림이나 조롱 당하기	2224	1.00	3.53	1.03	0.12
	집단따돌림(왕따) 당하기	2224	1.00	5.00	1.02	0.18

구 분		사례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심하게 맞기	2224	1.00	2.00	1.00	0.04
	협박 당하기	2224	1.00	6.00	1.01	0.14
	돈이나 물건 빼앗기기(빙뜰기기)	2224	1.00	6.00	1.01	0.19
	심한 욕설과 폭언 당하기	2224	1.00	4.00	1.00	0.09
사이버 폭력 가해	온라인에서 따돌리거나 괴롭히기	2224	1.00	6.00	1.02	0.23
사이버 폭력 피해	온라인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 당하기	2224	1.00	6.00	1.02	0.25

2) 심층분석 결과

(1)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경험 잠재계층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경험에 따른 잠재계층을 도출하기 위해 잠재계층 수를 2개부터 하나씩 늘려가며 통계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았다.

표 V-4. 잠재계층 수 증가에 따른 통계 분석 결과

구분		잠재계층 수		
		2개	3개	4개
정보지수	AIC	2015.11	2006.43	2010.58
	BIC	2079.56	2106.04	2145.35
	SABIC	2044.61	2052.02	2072.27
분류의 질	entropy	0.936	0.972	0.965
모형 비교 검증	LMR-LRT(p)	0.0000	0.0018	0.6424
	BLRT(p)	0.0000	0.0128	0.4286
소속 비율(%)		3.3	2.1	0.4
		96.7	0.8	1.3
		.	97.1	96.5
		.	.	1.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개 잠재계층 모형의 AIC는 3개 잠재계층 모형보다는 다소 높으나, BIC와 SABIC는 3개 잠재계층 모형이나 4개 잠재계층 모형보다 낮아 2개 잠재계층 모형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는 0.936으로, 3개 또는 4개 잠재계층 모형에 비해 약간 낮지만 0.90 이상으로 높은 수준으로 분류가 잘 된다고 할 수 있다. 모형 비교 검증인 LMR-LRT와 BLRT 분석 결과, 모두 2개 잠재계층 모형이 1개 잠재계층 모형보다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음을 확인했으며, 3개 잠재계층 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4개 잠재계층 모형에는 더 이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따라서 3개인 잠재계층 모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개와 4개 잠재계층 모형에서는 소속 비율이 1% 미만인 초소규모 집단이 생성되어 실질적 해석의 안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 이처럼 정보기준, 모형검정, 분류의 질, 집단 크기 및 해석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2개 잠재계층 모형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2개 잠재계층 모형에서도 3.3%가 소속된 잠재계층은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지표변수가 가정폭력 노출 경험이므로 전체 표본에서 나타나는 비율로는 실제와 유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경험에 따른 잠재계층을 두 개로 도출한 결과, 각 잠재계층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잠재계층은 ‘가정폭력 노출 집단’으로 전체의 3.3%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집단은 전반적으로 가정 내 폭력 경험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로부터 체벌을 경험할 확률이 0.642로 가장 높았고, 부모 간 언어폭력을 목격할 확률도 0.42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로부터 언어폭력 피해 및 신체 폭력 피해 경험 확률이 각각 0.317, 0.236으로, 가정 내 정서적·신체적 폭력에 모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부모 간 신체폭력 목격 확률은 0.16 정도로 다른 지표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여전히 비노출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특징은 아동이 다양한 형태의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이후 학교폭력 개입 변수로서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잠재계층은 ‘가정폭력 비노출 집단’으로 전체의 96.7%인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은 모든 폭력 지표에서 경험 확률이 0에 근접하여, 부모로부터의 체벌·언어폭력·신체폭력 피해 및 부모 간 언어·신체폭력 목격이 거의 없는 특징을 보인다. 즉, 가정 내 안전감이 비교적 견고하여 폭력 노출 위험이 극히 낮은 아동기를 보내는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두 집단의 뚜렷한 경험 차이는, 가정폭력 노출 여부가 이후 청소년기의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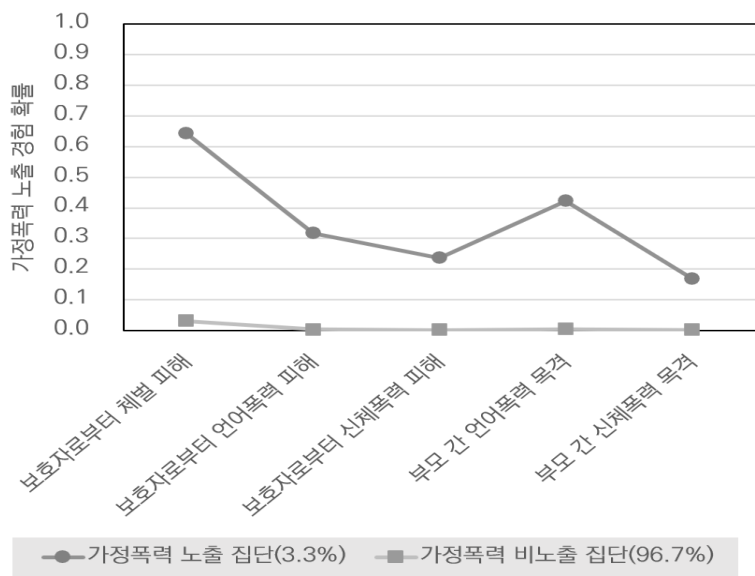


그림 V-2. 가정폭력 노출 경험에 따른 잠재계층의 형태

표 V-5. 잠재계층별 가정폭력 노출 경험 확률

구 분	가정폭력 노출 집단		가정폭력 비노출 집단	
	확률	표준오차	확률	표준오차
보호자로부터 체벌 피해	0.642	0.095	0.030	0.004
보호자로부터 언어폭력 피해	0.317	0.071	0.002	0.001
보호자로부터 신체폭력 피해	0.236	0.066	0.001	0.001
부모 간 언어폭력 목격	0.423	0.083	0.003	0.002
부모 간 신체폭력 목격	0.168	0.048	0.001	0.001

(2)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 잠재프로파일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을 도출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수를 2개부터 하나씩 늘려가며 통계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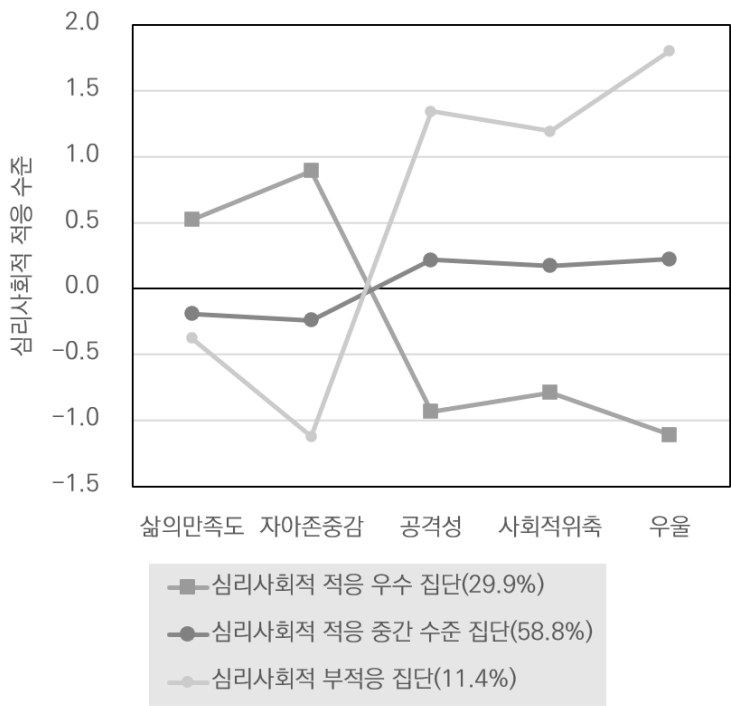
표 V-6. 잠재프로파일 수 증가에 따른 통계 분석 결과

구분		잠재프로파일 수			
		2개	3개	4개	5개
정보지수	AIC	14487.42	13554.77	13333.83	13116.21
	BIC	14578.74	13680.33	13493.63	13310.25
	SABIC	14527.90	13610.43	13404.67	13202.22
분류의 질	entropy	0.766	0.841	0.761	0.786
모형 비교 검증	LMR-LRT(p)	0.0000	0.0000	0.0036	0.0090
	BLRT(p)	0.0000	0.0000	0.0000	0.0000
소속 비율(%)		60.8	58.8	27.4	9.1
		39.2	29.9	20.4	24.3
			11.4	43.2	5.6
				9.1	18.3
					42.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지수인 AIC, BIC, SABIC는 잠재프로파일 수가 증가할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5개 모형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한편,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는 3개 모형에서 0.841로 가장 높아, 3개 잠재프로파일로 구분했을 때 잠재프로파일 간 구분이 가장 뚜렷함을 보여주었다. LMR-LRT와 BLRT 검정 결과 또한 2개인 모형에서 3개인 모형으로 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이 확인되었으며, 4개 모형으로 확장할 때도 유의하였으나, 잠재프로파일 수가 늘어날수록 소규모 집단이 새롭게 생성되어 모형의 해석 가능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3개 잠재프로파일 모형의 소속

비율은 58.8%, 29.9%, 11.4%로, 각 집단이 모두 10% 이상을 차지하여 충분한 해석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반면 4개 이상 잠재프로파일 모형에서는 한두 개 프로파일의 소속 비율이 5~9%대 수준으로 떨어져 적절한 해석이나 개입 전략 수립에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통계분석 결과와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3개 잠재프로파일 모형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고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총 세 개의 집단이 도출되었으며 각 집단은 긍정적 의미의 심리·사회적 적응 지표(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와 부정적 의미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지표(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 수준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었다.



* 주: 집단 간 상대적 차이를 표현하기 위해 표준화(z) 값으로 그린 그래프임.

그림 V-3.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형태

첫째, ‘심리·사회적 적응 우수 집단’(29.9 %)은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게 관찰된 반면,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은 낮은 수준을 보여 전반적으로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이 우수한 특징을 보였다.

둘째, ‘심리·사회적 적응 중간 수준 집단’(58.8 %)은 가장 많은 학생들이 속한 집단으로 심리·사회적 적응 변수들에서 모두 중간 수준을 나타내어 특별한 위험 신호는 없으나 추가적인 개입을 통해 적응 변수를 강화하고 부적응 변수를 완화할 여지가 있는 집단으로 해석되었다.

셋째, ‘심리·사회적 부적응 집단’(11.4 %)은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심리·사회적으로 취약성이 두드러진 부적응 집단으로 규정되었다.

이와 같은 세 집단 간 차이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상태를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지원 및 중간 집단에 대한 예방적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V-7. 잠재프로파일별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

구 분	심리·사회적 적응 우수 집단			심리·사회적 적응 중간 수준 집단			심리·사회적 부적응 집단		
	평균	표준 오차	표준화 (z)	평균	표준 오차	표준화 (z)	평균	표준 오차	표준화 (z)
삶의만족도	2.470	0.013	-0.191	2.811	0.023	0.527	2.376	0.052	-0.376
자아존중감	2.782	0.010	-0.239	3.222	0.021	0.895	2.447	0.028	-1.122
공격성	1.907	0.016	0.218	1.320	0.023	-0.935	2.473	0.040	1.346
사회적위축	2.121	0.019	0.173	1.510	0.032	-0.788	2.763	0.048	1.195
우울	1.885	0.017	0.223	1.215	0.015	-1.110	2.672	0.039	1.805

(3)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에서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으로의 전이

노출된 잠재집단에 대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잠재전이분석 결과,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여부에 따른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 잠재프로파일로의 전이확률은 다음과 같다.

표 V-8. 전이확률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경험 잠재계층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 잠재프로파일		
	심리·사회적 적응 우수 집단	심리·사회적 적응 중간 수준 집단	심리·사회적 부적응 집단
가정폭력 노출 집단	18.4%	64.7%	16.9%
가정폭력 비노출 집단	30.3%	58.5%	11.2%

구체적으로, 아동기 동안 가정폭력에 노출된 집단은 청소년기에 ‘심리·사회적 적응 우수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18.4%에 불과한 반면, 비노출 집단에서는 30.3%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출 경험이 우수한 심리·사회적 적응 경로로의 전이가 상대적으로 잘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심리·사회적 적응 중간 수준 집단’으로의 전이확률은 노출 집단에서 64.7%, 비노출 집단에서 58.5%로, 노출 집단이 중간 수준 집단에 머무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심리·사회적 부적응 집단’에 속할 확률 역시 노출 집단(16.9%)이 비노출 집단(11.2%)보다 높아,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부적응과 직접적으로 연관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이 패턴은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이 이후 발달과정에서 심리·사회적으로 우수한 적응 경로로의 복귀 가능성을 낮추고, 중간 및 부적응 경로에 머무르거나 악화될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4)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과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에 따른 학교폭력 경험 수준

아동기 가정폭력에 노출된 집단 중에서도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이 높은 집단은 학교폭력 상황에서 별다른 가해나 피해 경험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가정 내 초기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또래 관계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심리·사회적 중간 수준 집단에서는 현실폭력 가해와 피해가 일부 나타나는 동시에 사이버폭력 경험도 동반되어, 심리·사회적 적응 문제가 학교폭력과도 관련이 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심리·사회적 부적응 집단에서는 현실폭력 피해가 다른 집단에 비해 뚜렷하게 높아, 초기 가정폭력 노출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통해 학교 내 폭력 경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가정폭력 비노출 집단의 경우, 전반적으로 모든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에서 학교폭력 경험이 낮게 유지되었으나, 심리·사회적 부적응 집단에서는 사이버폭력 피해가 소폭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가정폭력 노출이 없더라도 심리·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이 온라인상의 부정적 경험과 연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이,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경험과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이 청소년기 학교폭력 경험 양상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며, 특히 가정폭력 노출 아동의 경우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개입을 통해 현실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 수준을 동시에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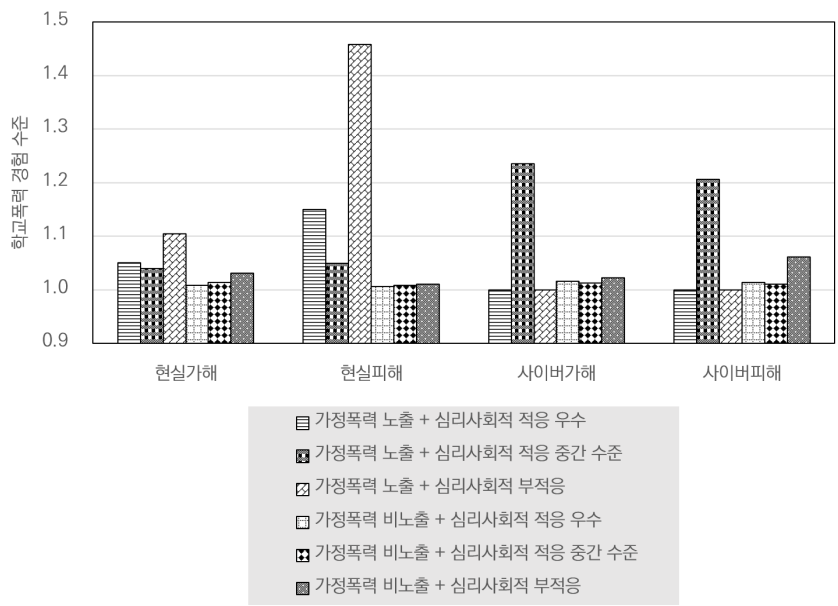


그림 V-4. 가정폭력 노출 경험과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에 따른 집단별 학교폭력 경험 수준 비교

표 V-9.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과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 잠재집단에 따른 학교폭력 경험 수준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경험 잠재계층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 잠재프로파일	청소년기 학교폭력 경험 수준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가정폭력 노출 집단 (2.3%)	심리·사회적 적응 우수 집단 (0.4%)	현실폭력 가해	1.000	1.333	1.050	.112
		현실폭력 피해	1.000	1.333	1.150	.166
		사이버폭력 가해	1.000	1.000	1.000	.000
		사이버폭력 피해	1.000	1.000	1.000	.000
	심리·사회적 적응 중간 수준 집단 (1.5%)	현실폭력 가해	1.000	1.667	1.039	.130
		현실폭력 피해	1.000	1.833	1.049	.156
		사이버폭력 가해	1.000	2.000	1.235	.431
		사이버폭력 피해	1.000	4.000	1.206	.729
	심리·사회적 부적응 집단 (0.4%)	현실폭력 가해	1.000	1.833	1.104	.295
		현실폭력 피해	1.000	4.500	1.458	1.230
		사이버폭력 가해	1.000	1.000	1.000	.000
		사이버폭력 피해	1.000	1.000	1.000	.000
가정폭력 비노출 집단 (97.7%)	심리·사회적 적응 우수 집단 (28.9%)	현실폭력 가해	1.000	2.167	1.009	.067
		현실폭력 피해	1.000	1.667	1.006	.040
		사이버폭력 가해	1.000	6.000	1.016	.216
		사이버폭력 피해	1.000	6.000	1.014	.212
	심리·사회적 적응 중간 수준 집단 (58.5%)	현실폭력 가해	1.000	2.667	1.014	.089
		현실폭력 피해	1.000	2.667	1.009	.073
		사이버폭력 가해	1.000	3.000	1.012	.117
		사이버폭력 피해	1.000	6.000	1.011	.166
	심리·사회적 부적응 집단 (10.3%)	현실폭력 가해	1.000	2.000	1.031	.125
		현실폭력 피해	1.000	1.833	1.011	.068
		사이버폭력 가해	1.000	2.000	1.022	.147
		사이버폭력 피해	1.000	6.000	1.061	.502

(5) 종합

본 장에서는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경험,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 그리고 학교폭력 경험 간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탐색하였다. 잠재계층분석 결과, 아동기는 가정폭력 노출 집단(3.3%)과 비노출 집단(96.7%)으로 구분되었으며, 노출 집단은 체벌·언어폭력·신체폭력 피해와 부모 간 폭력 목격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 경험 확률이 높아 이후 발달 과정에서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반면 비노출 집단은 폭력 경험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워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보여주었다.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은 세 개의 잠재프로파일로 도출되었는데, ‘심리·사회적 적응 우수 집단’(29.9%)은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높고 공격성, 위축, 우울 수준이 낮았으며, ‘중간 수준 집단’(58.8%)은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보였고, ‘부적응 집단’(11.4%)은 긍정적 지표가 낮고 부정적 지표가 높아 심리적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잠재전이분석 결과,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집단은 비노출 집단에 비해 청소년기에 심리·사회적 적응 우수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낮고, 중간 수준 또는 부적응 집단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가정폭력 노출이 이후 발달 과정에서 긍정적 적응 경로로의 진입을 제한하고, 심리·사회적 부적응 위험을 증대시킨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동기 가정폭력과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에 따른 학교폭력 경험 역시 차별적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가정폭력 노출 집단 중 심리·사회적 부적응 집단은 현실폭력 피해 수준이 높아 위험성이 두드러졌다. 중간 수준 집단은 현실폭력과 사이버폭력의 가해·피해가 일부 동반되었으며, 반면 적응 우수 집단은 학교폭력 경험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가정폭력 비노출 집단은 전반적으로 학교폭력 경험 수준이 낮았으나, 부적응 집단에서는 사이버폭력 피해가 소폭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은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학교폭력 경험을 높이는 주요 경로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이 높은 집단은 가정폭력 노출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경험을 최소화하고 있었던 점에서, 심리·사회적 적응 능력의 강화가 회복탄력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보호 요인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 학교폭력 문제를 이해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경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기 개입과 더불어 심리·사회적 적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교육·상담적 노력이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 결론
- 2. 정책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 또는 학교폭력과 관계를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중재를 위한 근거 기반 전략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기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가정폭력실태조사, 학교폭력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등 유사 조사 항목을 포함하는 국가수준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기 가정폭력과 청소년기 학교폭력의 전반적 현황과 변화 추이를 기초분석 단계에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심층분석 단계에서는 학교폭력 참여자를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여 가정폭력 노출 경험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폭력 참여 역할과의 관계와 가정폭력노출 경험이 학교폭력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또한 아동기의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잠재전이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경험으로 도출된 잠재계층과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으로 도출된 잠재계층을 교차하여 청소년기 학교폭력 수준을 파악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 목적과 연구 내용을 토대로 수행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가정폭력 실태의 경우 2016년, 2019년에 비해 2022년 결과에서 큰 감소를 보였으나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아동이 부모로부터 경험한 폭력 피해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모든 연도에서 신체적 체벌의 비율이 정서적 폭력의 비율보다 더 높았다. 하지만 동일 조사임에도 조사 시점에 따라 질문 형태가 변경된 부분도 있고, 조사 유형에 따라 문항의 세부 내용과 응답 척도 등이 상이한 점도 결과 해석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부터 증가하였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24년에는 2013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교급별 피해율은 초등학교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폭력 유형별 비율은 피해율에서 언어폭력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2022년부터 신체폭력이 집단따돌림을 앞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 폭력 양상이 변화하였다.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는 중·고등학교 데이터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학교폭력 피해 실태이다. 학교폭력 피해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9.7%로 급격하게 낮아졌고, 이후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학교폭력 유형을 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심한 욕설이나 모욕 등의 언어폭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희롱이나 성추행, 따돌림 등이 다른 유형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 외의 유형은 유형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징적인 점은 중학생의 경우 최근 몇 해 폭행이나 구타 피해 유형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이버폭력 유형별 피해율 추이를 살펴보면,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이 다른 유형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동일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 공개, 성희롱 등의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가해를 추이를 살펴보면, 가해율의 양상은 피해율 양상과 유사하다. 즉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가해율은 꾸준히 감소하다가 코로나 19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교급별 추이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는데, 초등학교가 가해율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언어폭력 가해율이 가장 높았고, 집단 따돌림은 2013년 2순위이었으나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신체폭력이 최근들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이 특징적인 점이다.

다음으로 심층분석은 총 3단계로 분석을 진행했다. 먼저 가정환경이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가정폭력 경험은 보호자로부터 체벌이나 언어·신체폭력 경험과 부모 간 언어·신체 폭력 목격을 포함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파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등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거부, 강요, 비밀관성 등의 부정적 양육태도로 대별하여 분석하였다. 부모로부터 경험한 직접적 폭력은 물론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간접 폭력도 전반적으로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며,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파스함, 구조 제공)는 일관되게 보호 요인이 됨을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가정폭력 피해나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경우 가해자·동조자·강화자 역할 가능성이 높았고,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 역시 학교폭력 참여 위험성을 증가시켰다. 반면 따스함이나 구조 제공은 학교폭력 참여 위험을 낮추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방관자 역할에서는 부모의 따스함과 거부가 보호 요인으로, 부모의 비밀관적 양육태도와 자율성 지지가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고, 부모로부터 체벌 피해가 가장 큰 위험 요인이었다. 즉 이러한 가정 내 경험을 한 청소년의 경우 발달 과정에서 가정 내 폭력 경험과 부모의 부적응적 양육 방식으로부터 심리적 불안을 내재화하게 되고 도덕적 결정 상황에서 확립되지 않은 내적 갈등으로 단순히 소극적인 회피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심층분석에서는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대상을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유형화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은 언어폭력 피해 집단(13.9%), 체벌 피해 집단(54.2%), 신체폭력 및 복합피해 집단(13.3%), 폭력 목격 집단(18.6%)으로 유형화되었다. 언어폭력 피해 집단과 폭력 목격 집단은 비교적 학교폭력 피·가해 경험이 낮았던 반면, 체벌 피해 집단은 사이버폭력 피해에서 집단 내 변동성이 컸고, 신체폭력 및 복합피해 집단은 현실폭력과 사이버 폭력 피해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고위험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가정 내 신체 폭력과 복합 폭력 피해 경험이 학교폭력 행동과의 관련성이 높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심층분석에서는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 및 학교폭력 경험 간 관련성을 잠재전이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가정폭력 노출 집단은 심리·사회적 적응 우수 집단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고, 중간 수준 또는 부적응 집단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았다. 즉 아동기 폭력 노출은 긍정적 발달을 제한하고 부적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또한 가정폭력 노출 집단이면서 심리·사회적 부적응 집단은 현실폭력 피해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이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 참여를 매개하는 핵심 요인이 됨을 시사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 여부와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폭력 참여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은 가정폭력의 부정적 영향을 조절하는 핵심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향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학교폭력 예방 정책 수립 과정에서 본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과 사업이 수행되길 기대한다.

2. 정책 제언

본 연구는 아동기 가정폭력과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 및 학교폭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영향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경험과 청소년기 학교폭력 간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는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이나 학교폭력 행동 간의 관계를 횡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로 평면적으로 분석하였다면, 본 연구는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기 가정환경이 청소년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폭력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과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으로의 전이에 따라 이후 학교폭력 양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검증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일련의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정책 영역과 8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정책 영역은 청소년기 자녀들이 맞닥뜨리고 있고, 많은 영향을 받는 공간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이들 영역을 아우르는 영역으로 제4영역은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추진 기반 조성”이라 명명하여 구분하였다. 정책과제는 4가지 정책 영역별로 각 2가지씩을 제안하였다.

표 VI-1.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 영역	정책과제
1 가정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1-1. 부모 교육(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확대
	1-2. 부모-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 시행 강화 및 지원 확대
2 학교 장면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2-1. 학교폭력 유형 변화에 따른 맞춤형 대응 방안 마련
	2-2.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역량 강화
3 지역사회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3-1.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
	3-2.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인성교육 강화·확대
4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기반 조성	4-1.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전문지원기관 인프라 확대
	4-2. 학교폭력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

표 VI-2. 정책 영역 1 - 가정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정책 영역 1	가정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정책과제	1-1. 부모 교육(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강화 1-2. 부모-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 시행 강화 및 지원 확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가정에서부터의 폭력 예방 노력이다. 본 연구의 결과뿐 아니라 그간 많은 연구에서도 아동기 때 가정에서 경험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간접 폭력의 경험도 이후의 성장 과정에서 폭력 행동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예컨대 폭력에 대한 허용적 가치관을 형성하거나 부적응적 대응 방식을 학습함에 따라 폭력은 세대 간 전이를 통해 폭력을 경험한 자녀가 반복해서 폭력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는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다. 반면, 자녀가 부모 간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거나 부모로부터 긍정적 양육을 받은 자녀의 경우는 폭력 피·가해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낮고, 폭력으로부터 받는 부정적 영향을 덜 받게 하는 보호 요인이 된다고 많은 연구에서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영역 1. 가정에서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로 “1-1. 부모 교육(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강화”, “1-2. 부모-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 시행 강화 및 지원 확대” 등 2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현재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이하, 센터로 표기함)가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학부모On누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를 교육할 권리와 책임 수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자녀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학교교육 참여 및 교육3주체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국 각 지역센터는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국가 단위의 학부모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 예방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 사업의 수행은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부모 역량을 크게 증진한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온·오프 라인을 통해 진일보한 교육·정보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폭력의 양상은 다양한 폭력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폭력”이라는 인간의 기본 속성을 현실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더라도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정책 추진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고, 청소년들이 폭력 트라우마로부터 치유 받고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은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사업을 보면, 부모교육에 대해 상당히 체계적으로 콘텐츠가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학부모 의무교육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급급에 따른 예비 학부모 교육, 디지털 학부모 교육, 학부모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등으로 나누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 자녀 양육과 교육에 관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콘텐츠가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부모 간 폭력 목적도 학교폭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듯이 기존의 부모교육 내용은 유지하되 이에 덧붙여 학부모의 부부관계 향상이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출처: 1) 학부모On누리 홈페이지: <https://www.parents.go.kr/index.do>에서 2025년 10월 15일 인출.
2) 서울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parents.sen.go.kr>에서 2025년 10월 15일 인출.

그림 VI-1. 학부모On누리

그림 VI-2. 서울학부모지원센터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서도 정책 영역으로 교육3주체(학생, 교원,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관한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기존의 학생 대상 어울림 프로그램을 교사와 학부모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교원의 경우, 학생 간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등 생활지도 전문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학부모에 대해서는 자녀 이해와 소통 역량을 담을 예정이다. 이러한 어울림 프로그램의 고도화 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학생에 대한 학부모의 역량 제고뿐 아니라 학부모 자신의 역량도 증진할 필요가 있다. 즉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폭력 예방을 위해 학부모가 자녀 교육의 조력자로서가 아니라 독립된 주체로서 부모 자신의 심리·사회적 역량 증진과 부부 간 관계 향상 및 의사소통 역량 증진을 통해 가정에서의 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 어울림+(어울림 더하기) 개요 】

	어울림	어울림+ (어울림 더하기)
대상	학생	학생, 교원, 학부모
내용	학교폭력 이해 및 대처, 신고 절차, 공감·의사소통 등 어울림 6대 역량	(학생) 자기인식, 공동체 관리 등 사회정서 역량 (교원) 학생 간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등 생활지도 전문성 (학부모) 자녀 이해와 소통 역량
자료형태	지도안, PPT, 학습지 등	영상, 게임, 메타버스 등 디지털 콘텐츠
학습방식	교사 중심, 강의형	대상자 맞춤형, 체험형

* 출처: 교육부(2025a),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5-29).

그림 VI-3. 어울림+(어울림 더하기) 개요

이를 위해 학부모 대상 어울림 더하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할 때 자녀 이해와 소통 역량 강화뿐 아니라 가정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심리·사회적 역량 제고를 위한 내용과 학부모 부부 간 관계 향상 및 상호 이해 증진에 관한 내용도 추가해서 담을 필요가 있다. 이는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직접적인 효과와 함께 자녀의 심리·사회적 안정을 돕고 장기적으로는 학교폭력 예방에도 긍정적 효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 정책과제 “1-1. 부모 교육(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강화”와 관련하여 현행 추진 중인 사업과 함께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서 계획하는 사업의 보완점에 관해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1-2. 부모-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 시행 강화 및 지원 확대” 과제와 관련한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부모교육과 부모-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예컨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온라인이나 특강 형태의 방식으로 개별 학교와 전국 각 학부모지원센터 등에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학부모들이 바쁜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개발된 프로그램과 교육에 참여하는 숫자는 제한적이다. 현재 직장에서는 직장 의무교육으로 온·오프라인 특강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유관 부처 및 교육지원청 등과 연계·협력하여 가정폭력, 학교폭력 및 부모교육에 관한 사항도 직장 교육에 포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장에서는 부모-자녀 간의 관계 회복과 학부모의 교육 참여 및 역량을 높이고 가정의 교육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에서 시행되는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러한 지원을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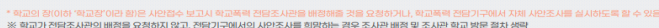
표 VI-3. 정책 영역 2 - 학교 장면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정책 영역 2	학교 장면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정책과제	2-1. 학교폭력 유형 변화에 따른 맞춤형 대응 방안 마련 2-2.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역량 강화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문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관련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2004년에 제정하였고, 5년 주기로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과 추진 과제를 수립·시행하고 있다. 최근에 교육부(2025a)에서 발표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하, 제5차 기본계획으로 표기)에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교육3주체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학교의 교육적 기능 확대 및 사안 처리 전문성 제고, 위기 및 피·가해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을 5대 정책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최근 변화된 학교폭력 정책 환경을 간략히 살펴보면,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어 학교폭력 사안 조치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되었다. 또한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사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사안 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 04)」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 조사, 피해학생 회복,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전국 시도교육(지원)청 단위에 총 176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24. 12. 22). 이에 따라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아지고 교원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보고서 작성, 악성 민원 대응 업무가 줄어들고 있다.

한편, 2019년 9월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도입됨에 따라 경미한 정도의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학생 간 관계 회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처벌이 아닌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는 제도로 안착되어 가고 있다. 또한 2020년 12월부터는 학교폭력 사안이 인지된 이후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체없이 분리하는 즉시분리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부 기록·관리 강화와 기록 삭제 요건도 강화하였다.



* 출처: 학교폭력 사안처리 안내, <https://on-maum.or.kr/page/a04.html>에서 2025년 10월 16일 인출.

그림 VI-4.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이와 같은 학교폭력 대응 정책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학교폭력 현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팬데믹 기간에는 학교폭력에 발생의 절대적 비율은 많이 낮아졌으나 이에 비례해 학교폭력 대처 역량도 동시에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학교폭력 발생 비율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학교폭력 양상을 보면, 딥페이크 성범죄, 온라인 도박 등 사이버폭력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영역 2. 학교 장면에서의 학교폭력 예방의 첫 번째 정책과제로 “2-1. 학교폭력 유형 변화에 따른 맞춤형 대응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2024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에서 청소년 9,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 가운데 사이버폭력 경험률이 42.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 경험률(5.7%)보다는 피해 경험률(20.3%)이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주된 폭력 유형은 ‘언어폭력(30.2%)’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50.8%, 친구가 33.6%였고, 피해 방식은 문자나 인스턴트메시지 45.4%, 온라인 게임 31.1%, SNS 26.9%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이버폭력 예방 경험은 90.1%였고, 그 중 83.9%가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는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급격한 사회 변화와 AI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이버폭력의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성 교육 강화와 함께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과 관련 법령의 제·개정도 요구된다. 예컨대 디지털 역량 개념의 확립과 프레임워크 마련이 요구되며,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3주체 대상 교육과 홍보도 강화되어야 한다. 한편, 청소년들이 디지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상의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를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청소년 유해 정보의 차단, 삭제 명령, 처벌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AI 이미지의 생성에 따라 현실과 가상의 혼돈이 많아지고 있어 AI 이미지에 대해 의무적으로 라벨링을 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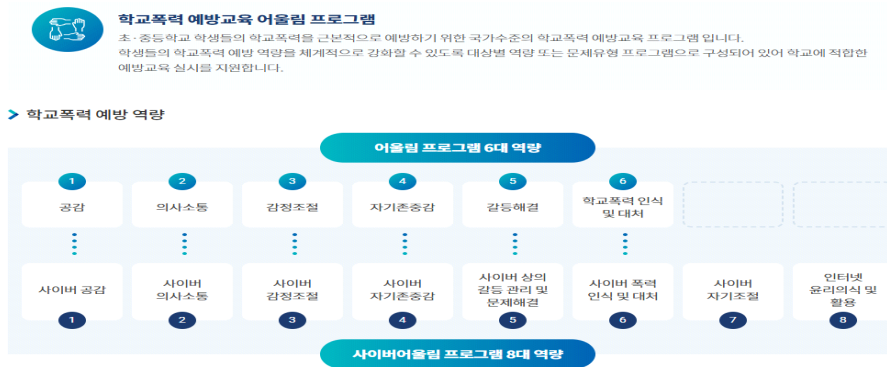
이처럼 청소년들이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좀 더 세분화하여 고도화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림 VI-5. 디지털 역량 개념 정의 및 프레임워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제2정책 영역의 두 번째 정책과제로 “2-2. 청소년 심리·사회적 역량 강화” 과제를 제안하였다. 제5차 기본계획의 5대 정책 영역 중 첫 번째 영역으로 학생, 교원, 학부모 “교육3주체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이 학교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 참여를 매개하는 핵심 경로가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 개인의 심리·사회적 역량 강화의 중요성이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결과이기도 하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제5차 기본계획에서도 관련 학교급별, 시기별 집중예방 유형을 선정하여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교우관계 진단을 통해 학교폭력 징후를 조기 파악하고, 또래상담 프로그램, 관계 개선 자율동아리 운영 지원 등을 통해 관계 중심의 생활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진단 기반 개인 맞춤형 콘텐츠로 고도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심리·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혹은 제5차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시행할 특정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 증진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과 수업이나 교사와 학생 간, 교우 간, 교사와 교사 간 학교생활 일상의 의사소통과 교류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증진하고, 심리·사회적 역량을 키워 가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출처: 어울림 프로그램 소개, <https://www.stopbullying.re.kr/board?menuId=MENU00345&siteId=SITE00002>에서 2025년 10월 17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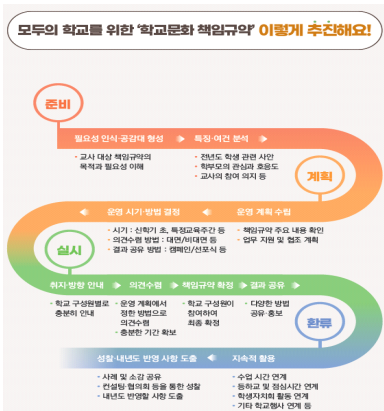
그림 VI-6.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표 VI-4. 정책 영역 3 - 지역사회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정책 영역 3	지역사회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정책과제	3-1.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 3-2.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인성교육 강화·확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에서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로 “3-1.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 과제를 제안하였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와 폭력에 대한 허용적 인식이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다. 많은 선행 연구에 의하면, 폭력 문화에 대한 허용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폭력 가해행위와 폭력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습득하게 되며, 폭력 문화의 학습도 쉬워진다고 지적한다. 또한 가정 학대나 폭력 목격 등의 가정폭력 경험은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이되어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가해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밝게 된다. 이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우리 사회의 폭력에 대한 부적응적 인식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현재 학교에서는 폭력 없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 구성원 각자의 책임을 다짐하고 실천을 약속하는 캠페인 활동인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5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지 2,000개교 내외의 저점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통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원이 상호 협력적인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고 있다.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를 신나게 배우고 자라는데 건강한 환경을 위해 참여하는 모든 우리 학교 문화는 온전히 우리가 함께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통해 만들고자 합니다. 학교문화 책임규약이란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교사, 교사)이 함께 학교문화 및 학생행동지침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역할 책임을 확인하며, 실천을 다짐하는 약속입니다.

1) 학생이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학생의 인권이자 교육기본권입니다. 학교폭력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학교 4대악(학폭, 학괴, 학괴, 학괴)을 예방하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통해 학교문화 조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여 학교문화 조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교사가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교육할 수 있는 권리
교사는 학생의 교육 활동에 있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통해 학교문화 조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여 학교문화 조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학부모/교사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권리
학부모/교사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통해 학교문화 조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여 학교문화 조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 학교의 역할: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학교 구성원의 사명은 다른 활동으로 대체 가능)

학생의 역할

- ✓ 학교 규칙을 존중하고 준수하겠습니다. (학생)
- _____ (학생)
- _____ (학생)

학부모/교사로서의 역할

- ✓ 학교 규칙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실천을 존중하겠습니다. (학부모/교사)
- _____ (학부모/교사)
- _____ (학부모/교사)

교사의 역할

- ✓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고 안전으로 존중하겠습니다. (교사)
- _____ (교사)
- _____ (교사)

20○○.○○.○○. ○○○ 학교장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2025), 학교문화 책임규약 가이드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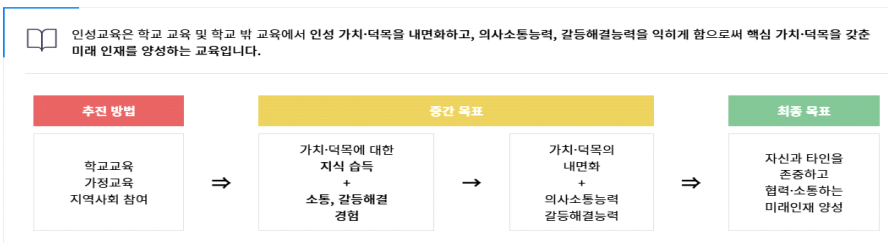
그림 VI-7. 학교문화 책임규약 가이드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서도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 형성과 평화적 의사소통 방법을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다각적 지원과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또한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부적응적 폭력 문화 개선을 위해 각종 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중매체, 유튜브 등을 통해 폭력의 유해성을 알리고 건강한 가정과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폭력 예방에 관한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지역사회에서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두 번째 정책과제로 “3-2.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인성교육 강화·확대” 과제를 제안하였다.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서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인성교육을 정의한다. 또한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와 덕목은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경기도 교육청 인성교육 시행 계획(경기도 교육청, 2025)에서는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관해 글로벌 지식사회,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정보량이 급증하는 미래사회에서는 인성교육에서 지향하는 덕목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성교육에서 지향하는 핵심 가치와 덕목을 갖추어 가는 과정 자체가 가정과 학교에서의 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연대하고 협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인성교육의 가치와 덕목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가정-학교-지역사회 협력 생태계 구축과 인성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인성교육 시행계획



* 출처: 온마음터, <https://on-maum.or.kr/page/b00.html>에서 2025년 10월 15일 인출

그림 VI-8. 인성교육 시행계획

표 VI-5. 정책 영역 4 -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기반 조성

정책 영역 4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기반 조성
정책과제	4-1.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전문지원기관 인프라 확대 4-2. 학교폭력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와 함께 이러한 요소가 가능하도록 하드웨어적 요소 또한 중요하다. 이에 “정책 영역 4.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기반 조성”에서는 “4-1.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전문지원기관 인프라 확대”와 4-2. 학교폭력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 등 2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현재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와 관련한 전문지원기관으로는 대표적으로 위(wee)프로젝트 관련 기관(위클레스, 위센터, 가정형 및 병원형 wee센터, 주간전담지원기관 등)들이 있고, 교육청에 학교폭력 통합 지원 기능을 하는 ‘학교폭력제로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전문 기숙형 기관으로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지원하고 (사)학교폭력피해가족협의회가 위탁운영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 기숙형 심리·예술 치유기관인 해맑음 센터가 있다. 위(wee)프로젝트 관련 기관의 경우 해마다 기관 수가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위클레스가 없는 학교들도 많고, 가정형, 병원형 위센터는 필요에 비해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전문기숙형기관의 경우도 현재 해맑음센터 1곳 밖에 없고, 그것도 시설이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교사 채용과 센터 운영은 물론 학생들의 치유를 위한 도움도 제한적이다.

한편, 학교폭력 전문지원기관은 아니지만, 유관기관들로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는 학교생활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위기 예방을 목적으로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성평등가족부(전, 여성가족부)의 국립청소년디딤센터(용인, 대구)가 기숙형 시설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학습·정서·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위한 전문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 지역사회에 좀 더 촘촘하게 학교폭력 전문지원기관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기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4-2 정책과제인 “학교폭력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요구된다. 먼저 학교폭력 관련 법령의 근간을 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으로 표기)」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에서는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이러한 제도적 근거와 학교에서의 노력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언어폭력이나 따돌림,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폭력 등은 학교폭력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신체폭력과 같은 물리적 폭력만을 학교폭력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학생, 교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학기당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2회 이상으로 개정하여 최소 분기별 한 번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학생의 부모와 형제·자매 등에 대한 치유와 회복 지원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호~3호까지의 조치 이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인 경우에도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20년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별로 설치되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이 나올 때마다 세부화되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아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처벌 중심의 법령 중심으로 되어 있고, 현장에서도 이러한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은 하나의 수단이다. 폭력으로 인해 깨어진 학생 간 관계를 회복하고,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도 변화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가 반영되고 실현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에서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단순 처벌만으로는 진정한 반성도 성장도 이루어질 수 없고, 학교폭력이 재발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에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과 함께 사회의 건전하고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법령과 현장에서도 이에 관해 좀 더 세밀한 적용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내문헌]

- 경기도교육청(2025). 2025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
- 교육부(2019).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교육부(2021a).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교육부(2021b).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교육부(2022).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교육부(2023a).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교육부(2023b).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교육부(2024). 2024년 1차(전수조사)및 2023년 2차(표본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교육부 보도자료(2024. 12. 22). 2024년 학교폭력제로센터 전국 176개 설치.
- 교육부(2025a).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 발표.
- 교육부(2025b). 모두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추진 방안.
-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2025). 「2025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 정신진단검사 실시 요강. 서울 : 중앙적성연구소.
- 김선희, 김경연 (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 문제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6.
- 김승경, 송미경(2014).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재엽, 박진경(2025). 청소년의 부부폭력 목격경험과 음란물 접촉과의 관계: 부모와의 대화시간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융합과학회지, 14(5). 123-143.
- 김재엽, 황성결, 오은영(2022). 청소년의 학대 피해와 부부폭력 목격에 따른 자살생각

- 차이 분석-잠재계층분석을 활용하여-. 한국가족복지학, 69(3), 5-35.
- 김평화, 윤혜미(2013). 아동학대가 아동의 정서결핍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41, 217-240.
- 김태명, 이은주(2017). 지각된 부모의 자기통제력과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효과. 교육심리연구, 31(1), 121-143.
- 박진아(2016). 청소년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에 미치는 영향: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가족치료연구, 14, 65-80.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4). 2024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경기: 방송통신위원회,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법제처(202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
- 손수민, 이소연(2022). 영유아기 가정폭력 노출과 아동기 학교폭력 피해의 관계: 아동기 내재화 문제로 인한 공격행동의 중단적 매개효과. 아동과 권리, 26(3), 375-395.
- 신태섭(2023). 학교폭력 실태 및 추이 분석. 한국의 사회동향 2023. 통계청.
- 여성가족부(2016).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
- 여성가족부(2019).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 여성가족부(2022a). 2022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 여성가족부(2022b). 『가정폭력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 유계숙, 이승출, 이해미(2013). 집단따돌림 참여자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가족·학교 관련변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3), 63-89.
- 유민상, 이경상(2023).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진석, 김준범(2024). 아동기 역경경험이 성인기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중복가해에 미치는 영향) -다중가해 관점 적용-. 한국사회복지학, 76(3), 179-199.
- 장하은, 이운경(2025). 대학생이 회상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32(2), 69-91.
- 정혜숙(2011).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중복발생과 관련된 국내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의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따로 또 같이. 한국사회복지학, 63(3), 83-108.
- 조봉환, 임경희 (2003).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조은수(2024). 가정폭력 목격경험이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31(4), 267-288. 10.21509/KJYS.2024.04.31.4.267.
- 최지훈, 남영옥(2017). 학교폭력과 주변인 역할에 관한 연구. *복지상담교육연구*, 6(2), 275-297.
- 최혜정(2012). 부부폭력을 목격하고 자란 자녀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2), 157-182.
- 하형석, 정은진, 최승호, 구본호(2017).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Ⅷ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18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진구, 김윤희, 정윤미(2023). 2023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사업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2025). 학교문화 책임규약 가이드북.

[외국문헌]

- Akaike, H. (1974). A new look at the statistical model ident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 19(6), 716-723.
- Andruff, H., Carraro, N., Thompson, A., Gaudreau, P., & Louvet, B. (2009). Latent class growth modelling: A tutorial. *Tutorials in Quantitative Methods for Psychology*, 5(1), 11-24.
- Baldry, A. C., & Farrington, D. P. (2000). Bullies and delinquent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arental styles.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10(1), 17-31.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Prentice-Hall.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Harvard University Press.
- Camisasca E., Miragoli S., Di Blasio P., Feinberg M. (2022). Pathways among negative co-parenting, parenting stress,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and child adjustment: The emotional dysregulation driven model.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31 (11), 3085-3096.
- Carter B., Paranjothy S., Davies A., & Kemp A. (2022). Mediators and effect

- modifiers of the causal pathway between child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and internalizing behavior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Trauma, Violence, and Abuse*, 23 (2), 594-604.
- Carter, J. (2005). *Domestic violence, child abuse, and youth violence: Strategies for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Family Violence Prevention Fund.
- Castañeda, A., Moral, G. D., & Suárez, C. (2017). Variables psicológicas comunes en la violencia escolar entre iguales y la violencia filio-parental: Un estudio cualitativo. *Revista Criminalidad*, 59(3), 141-152.
- Chan, K. L., Chen, Q., & Chen, M. (2021).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the co-occurrence of family violence: A meta-analysis on family polyvictimization. *Trauma, Violence, & Abuse*, 22(2), 289-305.
- Cicchetti, D., & Toth, S. L. (2009). The past achievements and future promises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The coming of age of a disciplin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0(1-2), 16-25.
- Cohen, J. A., & Mannarino, A. P. (1996). A treatment outcome study for sexually abused preschool children: Initial finding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5(1), 42-50.
-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3), 487-496.
-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uman, S., & Margolin, G. (2007). Parents' aggressive influences and adolescents' aggressive problem solutions with peer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6(1), 42-55.
- Ehrensaft, M. K., Cohen, P., Brown, J., Smailes, E., Chen, H., & Johnson, J. G. (2003).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rtner violence: A 20-year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4), 741-753.

- Felitti, V. J., Anda, R. F., Nordenberg, D., Williamson, D. F., Spitz, A. M., Edwards, V., & Marks, J. S. (1998). Relationship of childhood abuse and household dysfunction to many of the leading causes of death in adults: Th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 Study.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14(4), 245-258.
- Finkelhor, D., Ormrod, R. K., & Turner, H. A. (2007). Poly-victimization: A neglected component in child victimization. *Child abuse & neglect*, 31(1), 7-26.
- Finkelhor, D., Ormrod, R., Turner, H., & Holt, M. (2009). Pathways to Poly-Victimization. *Child Maltreatment*, 14(4), 316-329.
- Foshee, V. A., Bauman, K. E., & Linder, G. F. (1999). Family violence and the perpetration of adolescent dating violence: Examining social learning and social control process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2), 331-342.
- Gómez-Ortiz, O., Romera, E. M., & Ortega-Ruiz, R. (2016). Parenting styles and bullying. The mediating role of parental psychological aggression and physical punishment. *Child abuse & neglect*, 51, 132-143.
- Grasso, D. J., Petittclerc, A., Henry, D. B., McCarthy, K. J., Wakschlag, L. S., & Briggs-Gowan, M. J. (2016). Examining patterns of exposure to family violence in preschool children: A latent class approach.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9(6), 491-499.
- Grujić L.S. (2019). The association between cognitive functioning of adolescents exposed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family dimensions of cohesion and adaptability. *Vojnosanitetski Pregled*, 76 (9), 913-920.
- Herrenkohl, T. I., Sousa, C., Tajima, E. A., Herrenkohl, R. C., & Moylan, C. A. (2008). Intersection of child abuse and children's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Trauma, Violence, & Abuse*, 9(2), 84-99.
- Karsberg, S., Charak, R., Lasgaard, M., Bramsen, R. H., Hansen, N. B., & Elklit, A. (2019). Patterns of childhood abuse and 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among early adolescents from Denmark: A latent class approach.

- Psychology of violence*, 9(5), 574-585.
- Kawabata, Y., Alink, L. R. A., Tseng, W.-L., van IJzendoorn, M. H., & Crick, N. R. (2011).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styles associated with relational agg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conceptual analysis and meta-analytic review. *Developmental Review*, 31(4), 240-278.
- Knauf, R.-K., Eschenbeck, H., & Hock, M. (2018). Bystanders of bullying: Social-cognitive and affective reactions to school bullying and cyberbullying. *Cyberpsychology: Journal of Psychosocial Research on Cyberspace*, 12(4), Article 3.
- Lee, H., Russell, K. N., O'Donnell, K. A., Miller, E. K., Bender, A. E., Scaggs, A. L., ... & Berg, K. A. (2022). The effect of childhood intimate partner violence (IPV) exposure on bullying: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family violence*, 37(8), 1283-1300.
- Lepistö S., Luukkaala T., & Paavilainen E. (2011). Witnessing and experiencing domestic violence: A descriptive study of adolescents. *Scand J Caring Sci*, 25 (1), 70-80.
- Lereya, S. T., Samara, M., & Wolke, D. (2013). Parenting behavior and the risk of becoming a victim and a bully/victim: A meta-analysis study. *Child Abuse & Neglect*, 37(12), 1091-1108.
- Marçal K.E. (2022). Intimate Partner Violence Exposure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Outcomes: The Mediating Role of Housing Insecurit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7(21-22), NP19310 - NP19330.
- McLachlan, G. J., & Peel, D. (2000). *Finite mixture models*. Wiley.
- Monteleone A.M., Cascino G., Meule A., Barone E., Voderholzer U., & Kolar D.R. (2023). Pathways between childhood maltreatment and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ts with eating disorders: A network analysis.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31 (5), 724-733.
- Moylan C.A., Herrenkohl T.I., Sousa C., Tajima E.A., Herrenkohl R.C., & Russo M.J. (2010). The effects of child abuse and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 on adolescent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J Fam Violence*, 25(1), 53-63.
- Muthén, B. O. (2004). Latent variable analysis: Growth mixture modeling and related techniques for longitudinal data. In D. Kaplan (Ed.), *The SAGE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s* (pp. 345-368). Sage.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4), 535-569.
- Pearson, I., Page, S., Zimmerman, C., Meinck, F., Gennari, F., Guedes, A., & Stöckl, H. (2023). The co-occurrence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violence against children: a systematic review on associated factors in low-and middle-income countries. *Trauma, Violence, & Abuse*, 24(4), 2097-2114.
- Polanin J.R., Espelage D.L., Grotzinger J.K., Spinney E., Ingram K.M., Valido A., Sheikh A.E., Torgal C., Robinson L. (2021). A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partial correlations between school violence and mental health, school performance, and criminal or delinquent acts. *Psychological Bulletin*, 147(2), 115-133.
- Qiu, Y., Xu, L., Pan, Y., He, C., Huang, Y., Xu, H., Lu, Z., & Dong, C. (2021). Family resilience, parenting styles and psychosocial adjustment of children with chronic illness: A cross-sectional study. *Frontiers in Psychiatry*, 12, 646421.
- Ragelienė, T. (2016). Links of adolescents identity development and relationship with peer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the Canadi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5(2), 97-105.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ssell, K. N., & Voith, L. A. (2025). Applying an Intergenerational Lens to

- the Associations Between Childhood Intimate Partner Violence Exposure, Child Maltreatment, and Adolescent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1-11.
- Salmivalli, C. (1999). Participant role approach to school bullying: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s. *Journal of adolescence*, 22(4), 453-459.
- Salmivalli, C., & Voeten, M. (2004). Connections between attitudes, group norms, and behaviors associated with bullying in school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8(3), 246-258.
- Salmivalli, C., Lagerspetz, K., Bjorkqvist, K., Osterman, K., & Kaukiainen, A. (1996). Bullying as a group process: Participant rol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status within the group.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22(1), 1-15.
- Schwarz, G. (1978). Estimating the dimension of a model. *Annals of Statistics*, 6(2), 461-464.
- Sclove, S. L. (1987). Application of model-selection criteria to some problems in multivariate analysis. *Psychometrika*, 52(3), 333-343.
- Seligman, M. E. P. (1975). *Helplessness: On depression, development, and death*. W. H. Freeman.
- Shonkoff, J. P., Garner, A. S., Siegel, B. S., Dobbins, M. I., Earls, M. F., McGuinn, L. et al. (2012). The Lifelong Effects of Early Childhood Adversity and Toxic Stress. *Pediatrics*, 129, e232-e246.
- Soenens B., Deci E.L., & Vansteenkiste M. (2017). How parents contribute to children's psychological health: The critical role of psychological need support. *Development of Self-Determination Through the Life-Course*, 171-187.
- Soenens, B., & Vansteenkiste, M. (2010). A theoretical upgrade of the concept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Proposing new insights on the basis of self-determination theory. *Developmental review*, 30(1), 74-99.
- Thornberg, R., & Jungert, T. (2013). Bystander behavior in bullying situations:

- Basic moral sensitivity, moral disengagement and defender self-efficacy. *Journal of adolescence*, 36(3), 475-483.
- Uslucan H.-H., & Fuhrer U. (2004) Victimisation and juvenile violent acts. *Psychologie in Erziehung und Unterricht*, 51 (3), 178- 88.
- Vermunt, J. K. (2010). Latent class modeling with covariates: Two improved three-step approaches. *Political Analysis*, 18(4), 450-469.
- Xia, Y., Li, S. D., and Liu, T. (2018).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family violence, adolescent violence, and adolescent violent victimization: an ap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cultural spillover theory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5, 371.

[참고 사이트]

- 서울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parents.sen.go.kr>에서 2025년 10월 15일 인출.
- 어울림 프로그램 소개, <https://www.stopbullying.re.kr/board?menuId=MENU00345&siteId=SITE00002>에서 2025년 10월 17일 인출.
- 학교폭력 사안처리 안내, <https://on-maum.or.kr/page/a04.html>에서 2025년 10월 16일 인출.
- 학부모On누리 홈페이지: <https://www.parents.go.kr/index.do>에서 2025년 10월 15일 인출.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childhood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on youth participation in school violence and their psychosocial development. Moving beyond previous studies that focused on individual factors or cross-sectional analyses, this research utilized nationally representative datasets and longitudinal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2018) to investigate the underlying mechanisms over time.

The analysis consisted of preliminary and three in-depth stages. The preliminary analysis reviewed trends in domestic and school violence using national surveys such as the Survey on Domestic Violence, Survey on School Violence, and Survey on Children's and Youths' Rights. In-depth Analysis I explored how domestic violence experiences and parenting styles affect the roles of participants in school violence. In-depth Analysis II identified heterogeneous subtypes of children exposed to domestic violence and examined differences in their school violence experiences. In-depth Analysis III analyzed how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in childhood transfers to different psychosocial adjustment profiles in youth and its association with school violence experiences.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youth school violence rates, which temporarily declined during the COVID-19 period, have sharply increased in recent years, reaching the highest level since

monitoring began, with verbal violence being the most prevalent form. Second, domestic violence emerged as a consistent risk factor, while parental warmth and structure acted as protective factors against school violence. Negative parenting and parental violence increased the likelihood of aggressive roles (perpetrator, assistant, reinforcer), whereas positive parenting reduced such risks. Third, childhood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was categorized into four types: verbal abuse, corporal punishment, physical and multiple abuse, and witnessing violence. Among these, the physical and multiple abuse group showed the highest levels of both offline and cyber victimization, indicating a high-risk subgroup. Fourth, children exposed to domestic violence were less likely to transition into well-adjusted psychosocial groups and more likely to remain in moderately adjusted or maladjusted groups. The maladjusted group exhibited the highest levels of physical victimization, while the moderately adjusted group showed mixed patterns of offline and online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contrast, the well-adjusted group showed minimal involvement in school violence. This suggests that psychosocial adjustment plays a key mediating role linking domestic and school violence.

In conclusion, childhood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directly and indirectly influences school violence participation during youth, with psychosocial adjustment functioning as a critical mechanism that either mitigates or amplifies these effects. By integrating the interconnections among family environment, psychosocial adaptation, and school violence,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essential for designing protective and intervention strategies for youth.

Based on these findings and recent policy trends, the study proposes four policy domains and eight specific policy tasks for

preventing school violence. The policy domains are categorized into family, school, and community interventions, along with a systemic foundation area that integrates these three.

Keywords: childhood domestic violence, school violence, latent class analysis, latent transition analysis, school violence prevention policy

202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연구보고25-기본01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다체계 연계 지원방안 연구: 진로 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성은·김희진·조혜영·김현수
연구보고25-기본02	20대 초반, 후기청소년은 왜 금융이해력이 낮은가? :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 방안 연구 / 김지경·송현주·송원일
연구보고25-기본03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2022 개정 교육과정 중심으로 / 강경균·오해섭·최홍일·성은모
연구보고25-기본04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 연구 / 김형주·장근영
연구보고25-기본05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연구 / 성윤숙·문호영·손병덕
연구보고25-기본06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황여정·정은주
연구보고25-기본07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 김정숙·연보라·전현정·김나영
연구보고25-기본08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 / 김승경·백혜정
연구보고25-일반01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유성렬·유설희
연구보고25-일반01-01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
연구보고25-일반02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연구 I : 총괄보고서 / 김기현·김윤희·이용해
연구보고25-일반02-01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연구 I : 심층분석보고서 / 김기현·김윤희·권경만·오병돈·유현주
연구보고25-일반03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연구 I / 양계민·서정아·권오영·변수정·장윤선
연구보고25-일반06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황진구·최인재·한지형
연구보고25-일반06-01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최인재·노연경·정송
연구보고25-일반07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신동훈·이지연·이정민·장한소리
연구보고25-일반07-01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신동훈·이지연·이정민
연구보고25-일반07-02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신동훈·이지연·이정민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5-36-01
(자체번호 연구보고25-일반04)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Ⅱ
/ 최용환·임지연·좌동훈·박윤수·이동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5-37-01
(자체번호 연구보고25-일반05)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Ⅱ : 위기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실태
/ 배상률·김영지·모상현·김남희·조제성·김다은·
홍서아

수 시 과 제

연구보고25-수시01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현황 및 체계화 방안 연구 / 좌동훈·남화성

연구보고25-수시02 이주배경청소년 역량강화방안연구: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양계민·권오영·안지현

연구보고25-수시03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 /
권오영·남화성

연구보고25-수시04 청소년의 방과후활동수요 및 방과후아카데미 발전 방안 연구 / 장근영

연구개발적립금 과제

연구보고25-연적금0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 김승경·백혜정·김경준

연구보고25-연적금02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 분석 연구 / 김기현·유민상·신동훈·한지형

연구보고25-연적금03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전략수립 연구
/ 최용환·임지연·좌동훈

연구보고25-연적금04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배상률·김영지·모상현

수탁과제

< 일 반 >

연구보고25-수탁01	2024 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사업 결과보고서 / 최용환·이창호·임지영
연구보고25-수탁02	2025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지원 가이드라인 (2종) / 최정원
연구보고25-수탁03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프로그램 (초등학생용 2종) / 최정원
연구보고25-수탁04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4-01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통계자료집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5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표본)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5-01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표본)조사 통계자료집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6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업 결과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7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심층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성윤숙
연구보고25-수탁08	2025년 제2기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운영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5-수탁09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사업 성과관리 진단 / 임지연·김혁진·문지혜
연구보고25-수탁10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통계자료집/ 성윤숙·문호영
연구보고25-수탁11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황진구·김영지·모상현·김경준· 이용해·허효주·안지현·진인범·박지영
연구보고25-수탁12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서고운
연구보고25-수탁13	2026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전 연구 / 김지경·유준오·송현주·허효주
연구보고25-수탁14	역량기반 인증수련활동 효과 유의성 평가도구 개선 연구 / 송원일·김정숙·최수정
연구보고25-수탁15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수립 연구 / 하형석·김기현·유민상· 신동훈·성재민·박미선·박병영·변금선·배정희·권향원·김문정·진인범
연구보고25-수탁16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문호영
연구보고25-수탁17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1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학생용 워크북(초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2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교사용 매뉴얼(초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3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학생용 워크북(중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4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교사용 매뉴얼(중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8	202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혁진·황여정·김성은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5-학폭01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업 주요 현안 및 정책 분석 / 안병훈·모상현·김용남·박선영·김영인
연구보고25-학폭02	2024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결과보고서 / 모상현·백승훈·박재욱
연구보고25-학폭03	2024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모상현·백승훈·김영인
연구보고25-학폭04-01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3~4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 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연구보고25-학폭04-02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5~6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 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연구보고25-학폭04-03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2~3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연구보고25-학폭04-04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2~3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연구보고25-학폭05	2024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모상현·박재욱·전원지
연구보고25-학폭06	2024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효과성 분석 / 모상현·이경상·김현수·전원지·문은솔
연구보고25-학폭07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모상현·김경년·김경애·김봉섭·김소아·김승혜·박주형·차성현
연구보고25-학폭08	학교폭력예방 학생 언어습관 자기 진단도구 개발 연구 / 박창균·조재윤·이정우·최태경
연구보고25-학폭09	2025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안내서 / 모상현·백승훈·김영인·최지윤
연구보고25-학폭10	2025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운영 매뉴얼 / 모상현·최지윤·박재욱·문은솔

〈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

연구보고25-대안01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방안 : 보통교부금 개선 가능성 검토 / 남수경
연구보고25-대안02	지속가능한 대안교육을 위한 재정지원방안 연구 / 함승수·이시효·박현정·김희정
연구보고25-대안03	2025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패널조사 / 하형석·최인재·전현정·이지숙·신원규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 연구보고25-위센터01 위(Wee) 뉴스레터 / 김영지·김소연·주예찬
- 연구보고25-위센터02 제14회 위(Wee) 희망대상 우수사례집
/ 김영지·김승경·정춘현·김영인·주예찬
- 연구보고25-위센터03 문제행동별 개인상담 개입 지도서(중·고등) / 김영지·김승경·김영인
- 연구보고25-위센터04 2025 위(Wee) 클래스 및 센터 운영 가이드 / 김영지·양하나·정춘현
- 연구보고25-위센터05 2025년도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 사업 운영 결과보고서
/ 김영지·김승경·서고운·전현정·이정민·최홍일·양하나·이수민·
김소연·정춘현·김주영·문세진·김다인·김영인·주예찬·이유진

〈 학업중단예방지원센터 〉

- 연구보고25-학중0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꿈지락 활동집 / 김성은·이진아
- 연구보고25-학중02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 사전연구
/ 김희진·백혜정·황여정·유성렬·전예빈·정유경
- 연구보고25-학중03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 사전연구: 기초분석보고서
/ 김희진·백혜정·황여정·전예빈

자 료 집

〈 세 미 나 〉

- 세미나25-01 2025년 17개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담당자 1차 협의회 (25.3.27.)
세미나25-02 2025년 인성교육 우수교원 네트워크 발대식(1차 세미나) (25.6.13.)
세미나25-03 2025년 인성교육 우수교원 네트워크 중간보고회 (25.8.12.)

〈 워크숍 〉

- 워크숍25-01 2025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워크숍 자료집
(25.7.31.-25.8.7.)
워크숍25-02 가정형 위(Wee)센터 워크숍 (25.8.11.)

〈 포 럼 〉

- 포럼25-01 고립 은둔 청소년 삶 실태 및 정책과제 (25.3.26.)
포럼25-02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 (25.4.29.)
포럼25-03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책과제 (25.4.29.)
포럼25-04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_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 (25.7.28.)
포럼25-05 인구감소시대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강화방안 모색 (25.8.26.)
포럼25-06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청소년시설 추진방향 모색 (25.11.11.)
포럼25-07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보호 정책과제 개발 (25.11.19.)
포럼25-08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는 청소년 AI시대의 책임과 권리 (25.11.27.)
포럼25-09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성과 및 향후과제 (25.12.4.)

〈 콜로 키 움 〉

- 콜로키움25-01 선주민과 이민자간 노동시장 성과와 정책과제 (25.4.17.)
콜로키움25-02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25.5.13.)
콜로키움25-03 청소년 유해약물 정책 관련 해외사례 (25.8.26.)

〈 기 타 자 료 집 〉

자료25-01	2024 대안교육기관 교육 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자료25-02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제2판
자료25-03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운영기준, 3판
자료25-04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가이드북
자료25-05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1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5-06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2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5-07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3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5-08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가이드북
자료25-09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1차 설명회
자료25-10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2차 설명회
자료25-11	제14회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25-12	2025년 제12회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자료25-13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3차 설명회
자료25-14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가이드라인
자료25-15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육·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자료25-16	청소년 부모·한부모 지원 매뉴얼 (2판)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1호(통권 11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2호(통권 117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3호(통권 11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4호(통권 119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 154호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와 지역자원 연계: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 155호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의 정책방향
- 156호 OECD 국가의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
- 157호 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청소년 범죄 경로와 예방 대책
- 158호 청년 온라인 커뮤니티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NYPI Bluenote 통계 〉

- 86호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 I : 사이버도박
- 87호 청소년 근로 실태 및 권리 보장 현황
- 88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24년) 데이터 구축 및 주요 조사 결과
- 89호 청소년활동을 통한 환경 실천 지원방안
- 90호 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주요 지표 결과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인 쇄 2025년 12월 24일

발 행 2025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백 일 현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사단법인 대한민국공무원공상유공자회 인쇄사업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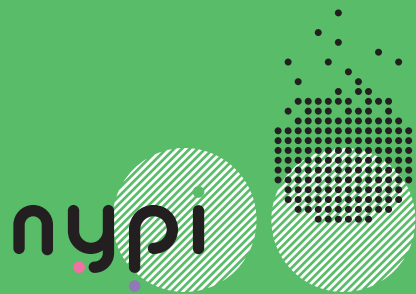
구독문의 : (044) 415-2125(지식정보관)

ISBN 979-11-5654-464-7 94330

979-11-5654-462-3 (세트)

연구보고25-일반06-01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
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464-7
979-11-5654-462-3 (세트)